임진왜란과 히라도 미카와치 사기장

세계적 보물을 빚은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

The Imjin wars and Captive Korean Potters at Mikawachi, Hirado

In Search of Mikawachi Potters Who Produced World-famous Pocela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왜란과 히라도 미카와치 사기장

세계적 보물을 빚은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

초판 1쇄 인쇄 2010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10년 12월 15일

지은이 황정덕 · 도진순 · 이윤상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0

ISBN 978-89-6187-204-1 9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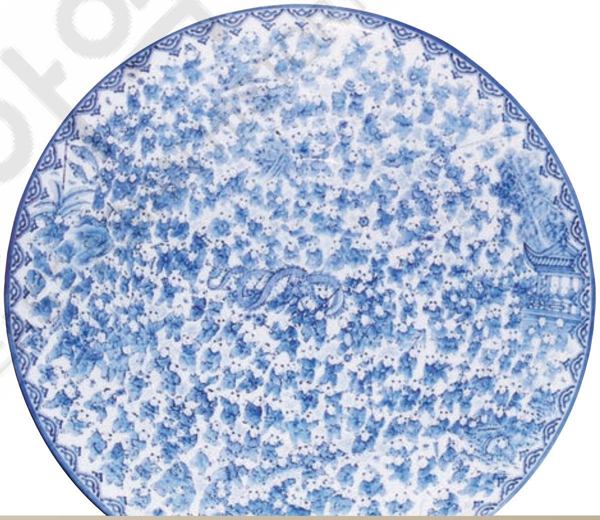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왜란과
히라도 미카와치 사기장

세계적 보물을 빚은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

황정덕 · 도진순 · 이윤상



The Imjin wars and Captive Korean Potters at Mikawachi, Hirado

In Search of Mikawachi Potters Who Produced World-famous Pocelai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 2010-12-30 오후 3:41:53

발간사

동북아역사재단은 여러 연구 · 교육사업과 국제교류, 출판 활동 등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구축과 공동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재단은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동북아해양평화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지의 근현대 전쟁 및 교류 관련 유적과 관련 기념시설의 현황과 활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향후 활발한 교류와 상호이해의 과정을 거쳐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로운 미래를 설계 · 실천하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근현대 전쟁 · 교류 관련 유적과 기념시설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과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초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거의 7년 여 동안 계속된 임진왜란은 한일간의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만주 등 동아시아에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 2010-12-30 오후 3:41: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커다란 변동을 일으킨 국제전쟁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은 참혹한 전쟁의 과정에서 엄청난 인적 · 물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임진 · 정유왜란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가 되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영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의 선진문물인 도자기 · 인쇄술 · 성리학 등이 일본에 전파 · 보급되어 큰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임진왜란과 히라도 미카와치 사기장-세계적 보물을 빚은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는 저희 재단 2008년도 '동북아해양평화벨트' 구축사업의 제2차 공동연구과제 공모 선정 결과물을 수정 · 보완한 것입니다. 주로 임진 · 정유왜란 시기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 도공과 그 후예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세계적 명작과 관련 유적 · 유물 등에 관한 현지조사 견문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우리 도공과 그의 후예들에 관한 생생한 현장보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 2010-12-30 오후 3:41:53

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임진왜란 전후 시기의 또다른 한일관계와 문화교류의 실상을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구나 임진왜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제병합과 식민지 통치 등 일본의 침략에서 비롯된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오늘에 주는 교훈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 · 중 · 일 ·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시민과 학생 등이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이웃으로서 교류와 협력에 앞장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재단의 공동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훌륭한 연구성과를 제출해주신 창원대학교의 도진순 · 이윤상 교수님과 일본현지 조사는 물론 귀중한 자료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을 발굴하여 번역까지 해주신 황정덕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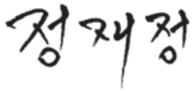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 2010-12-30 오후 3:41:53

향후 이 책을 좋은 길벗으로 삼아 일본 현지 답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도 한일 양국 사이에는 많은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 책은 작으나마 한일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출판사와 재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 2010-12-30 오후 3:41:53

책을 펴내면서

임진 · 정유왜란을 '도자기전쟁[일본 : 燒物戰爭]'이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과문한 내가 임진 · 정유왜란 당시 피랍된 조선 사기장의 흔적을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5월 가고시마[鹿兒島]에서였다. 가고시마 남단의 치란[知覽]에서 특공대 관련 유적을 본 후 우울한 마음으로 가고시마 인근 서쪽 작은 마을 미야마[美山]에 있는 심수관(沈壽官) 도요지(陶窯址)에 들렀다. 자랑스런 조선 사기장의 흔적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본의 저명한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가 심수관에 대해서 쓴 『고향을 잊을 수 없습니다[故郷忘じがたく候]』라는 책 제목을 새긴 비석을 보고, 400여 년전 피랍된 조국의 사기장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또한 60여 년 전 태평양전쟁 당시 동원된 조선인 특공대와 결부되면서 역사의 묘한 반복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 후 차츰 나는 임진 · 정유왜란 당시 피랍된 사기장 문제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 있는 현실의 문제임을 실감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 2010-12-30 오후 3:41:53

기 시작했다.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가고시마의 심수관 도요지나 아리타[有田]의 이삼평(李參平) 유적을 찾아 일본을 가고, 또한 한국에서도 이삼평 기념비를 세우면서 납치 여부에 대한 표현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전쟁 포로로서 사기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해 · 웅천향토문화연구회' 황정덕 회장님을 만나, 이삼평이나 심수관을 능가하는 피랍 조선 사기장이 있었으며, 그들이 바로 내가 재직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웅천(熊川)에서 끌려간 미카와치[三川內] 사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 회장님은 이미 미카와치 사기장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섭렵하였고, 또한 일본 큐슈[九州] 현지에도 여러 번 답사한 경험이 있었다. 황 회장님에 의하면 미카와치 도자기는 근대 일본과 세계의 도자기 예술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빚은 사기장들은 임진 · 정유왜란 당시 히라도[平戶]의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에 의해 경남 웅천에서 끌려간 조선 사기장의 후예라는 것이다. 그 순간 이것은 이 지역 역사가가 풀어야 하는 일종의 책무라고 느끼게 되었다. 마침 동북아역사재단(당시 김용덕 이사장)의 해당 프로젝트에 채택되어, 황정덕 회장님을 필두로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 소장인 이윤상 교수와 본인이 포함된 조사단을 꾸리게 되었다.

피랍된 미카와치 사기장 연구는 역사가의 책무에서 시작되었지만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 일은 무엇보다 행운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일찍이[1904년] 동양 도자기 연구의 선구자인 스튜어트 딕(Stewart Dick)이 미카와치 청화백자를 '일본 최고의 도자기'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 2010-12-30 오후 3:41:53

품평한 바 있으며, 미카와치 도자기는 일본 내에서 황실의 어용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인도회사와의 무역을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때문에 미카와치 도자기는 큐슈도자문화관은 물론 영국의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박물관(Topkapi Palace Museum), 네덜란드의 라이덴 국립 민속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 Leiden) 등에 널리 소장되어 있다.

스튜어트 딕은 미카와치 도자기 중에서 소나무 아래에서 나비를 쫓으며 노닥거리는 중국 어린이들을 그린 '가라코에[唐子繪] 도자기'를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가라코에 도자기의 위쪽 입술 아래 구연부에는 고려 출신임을 의미하는 '고(高)' 자가 무슨 암호처럼 연이어 새겨져 있다. 모국 조선의 어린이를 직접 그리지 못하여 중국 어린이를 그린 애틋함에 가슴이 아리고, 암호 같은 '고' 자 문양으로 고국을 표시한 것을 알고는 심장이 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에도 이 '고' 자 무늬가 있는 가라코에는 미카와치 도자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이 되고 있다. 미카와치 도자미술관[三川內燒美術館] 어귀에는 '고'자 영락(瓔珞)무늬가 있는 7명의 가라코에 큰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전시관 내에는 무려 400명의 어린이가 노니는 '400 가라코에 큰 접시(1999년)'가 입장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사연의 미카와치 피랍 사기장의 역사적 내력을 추적한 것이다. 곧 히라도[平戶]로 끌려간 웅천 출신의 사기장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 2010-12-30 오후 3:41:53

세 가문이 각 지역을 전전하다 미카와치에 정착하여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 근대 이후 미카와치 도자기가 몰락하다 현대에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의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헌조사로 히라도의 마쓰라사료박물관[松浦史料博物館]에 비장된『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平戶窯沿革一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사료의 가치를 생각하여 자료 전문을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큐슈 현지를 답사하였다. 이미 황정덕 회장님은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수행한 바 있고, 2008년 5월 다시 필자와 함께 답사하였다. 이러한 일본 현지답사로 문헌 자료에 보이지 않는 가마터와 신사, 비석과 비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이 거둔 수확을 외람되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히라도 본섬에서 조선 사기장의 첫 마을인 고라이마치[高麗町]와 첫 가마 나카노가마[中野窯]에서 시작하여, 중간 거점 시이노미네[椎の嶺], 웅천 출신 3대 도예 가문이 합류하여 황금시대를 구가하는 미카와치의 가마 자리를 일일이 추적 · 정리하였다.

② 히라도 본섬의 고려묘지와 고려비(碑), 시이노미네의 고려사(高麗祠), 미카와치의 가마야마신사[窯山神社]와 도조신사[陶祖神社] 등 웅천 출신 사기장의 묘와 기념시설도 일일이 조사하였다.

③ 히라도의 마쓰라사료박물관, 미카와치의 도자문화회관[陶磁文化會館], 사가현[佐賀縣]의 큐슈도자문화관[九州陶磁文化館] 등에 소장된 관련 유물과 자료도 조사하였다.

④ 과거의 미카와치 사기장과 도자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가문의 후예들을 추적하여 이들의 근황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앞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 2010-12-30 오후 3:41:5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 한일간의 문화교류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단이 조금이나마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기관의 도움과 여러 분의 각별한 지원 덕분이다. 먼저 이 연구를 지원해 준 동북아역사재단의 정재정 이사장님과 장세윤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호명되어야 하는 분들은 일본 현지에서 따뜻하게 도와준 분들이다. 히라도 지역에서는 마쓰라사료박물관의 마쓰라[松浦章] 이사장님과 기다[木田昌宏] 관장님이 답사지를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일일이 안내해 주었고,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 등 귀중한 사료를 제공해 주셨다. 히라도에서 고려묘지 발굴과 고려비 건립을 주도한 다테이시 마사하루[立石正春]님은 이미 운명하셨지만, 그 부인이 조사단을 환대해 주었다. 시이노미네 지역 답사에서는 나카자토 에이[中里燹]의 종가를 잇고 있는 나카자토 쿠수야타[中里久壽彌太] 부부가 고려신사를 안내해 주었다. 또한 이마리시[伊万里市] 교육위원회의 아라다니 요시기[荖谷義樹] 연구원은 시이노미에 고려사의 도리이[鳥居]에 새겨진 명문의 탁본과 해독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미카와치 지역에서는 종차관(從次貫)의 후예로 현재 나가사키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후쿠모도 마사노리[福本正則] 부부가 조사단을 환대하였고, 나카자토 에이 가문의 후손으로 향로를 전문으로 빚고 있는 츠치타 테루유키[辻田輝幸] 부부는 미카와치와 아리타의 답사지를 일일이 안내하고 자신의 향로 작품도 선물하였다.

이러한 환대와 협조는 물론 400여 년전 끌려가 일본에 뼈를 묻은 우리 선조 사기장의 영령과 음덕 때문일 것이다. 이 분들의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 2010-12-30 오후 3:41:53

음덕을 생각하면 이 책의 성과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확장되어 임진·정유왜란 당시 조선인 피랍 문제를 조금이라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일간 비극의 역사에서 진정한 교훈을 찾으려는 보다 진지한 작업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소 외람되지만, 이 책에서 조사한 지역은 피랍 조선 사기장의 흔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훌륭한 답사 코스라고 생각한다. 선조 사기장들의 영령을 생각하면 이 책의 제목『임진왜란과 히라도 미카와치 사기장-세계적 보물을 빚은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와 같은 의미 있는 답사, 가능하다면 한일공동의 답사가 실현되는 데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감히 기대해 본다.

이 책은 조사단 공동작업의 소산이지만,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황정덕 회장님의 선구적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책으로 만드는 최종 정리는 조사단을 대표하여 도진순이 담당하였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최종정리자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임에 깊은 이해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이용한 사진들은 대부분 조사단이 촬영한 것이나, 도록 등에서 이용한 것도 있다. 특별한 것 이외는 일일이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참고문헌으로 대치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조사단을 대표하여

도진순 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 2010-12-30 오후 3:41:53

차례

발간사 — 4

책을 펴내면서 — 8

| 서 문 |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 — 17

제1장 종차관과 그 후예 — 21

제1절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마쓰라 시게노부 23

제2절 도요토미의 납치 명령서 27

제3절 시이노미네를 거쳐 미카와치로 29

제2장 거관과 그 후예 — 33

제1절 첫 정착지 히라도 35

제2절 웅천 사기장의 첫 가마, 나카노 43

제3절 요시노모토를 거쳐 미카와치로 48

제3장 나카자토 에이와 그 후예 — 53

제1절 이름을 알 수 없는 앳된 소녀 에이 55

제2절 시이노미네의 고려사 57

제3절 가라즈 도자기의 발상지 기시타케와 조선 사기장 62

제4절 미카와치의 나가하야마 가마 6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장 미카와치의 전성기 69

제1절 웅천 사기장의 합류 71

제2절 막부와 황실의 어용가마 75

제3절 대관소와 감시소 79

제4절 해외 수출 81

제5장 미카와치의 상징 83

제1절 가라코에와 조선 사기장 85

제2절 에이를 모신 가마야마신사 88

제3절 거관 집안의 웅천신사와 도조신사 92

제6장 근현대의 시련과 재흥 97

제1절 메이지 유신과 민요로의 전환 99

제2절 현재의 미카와치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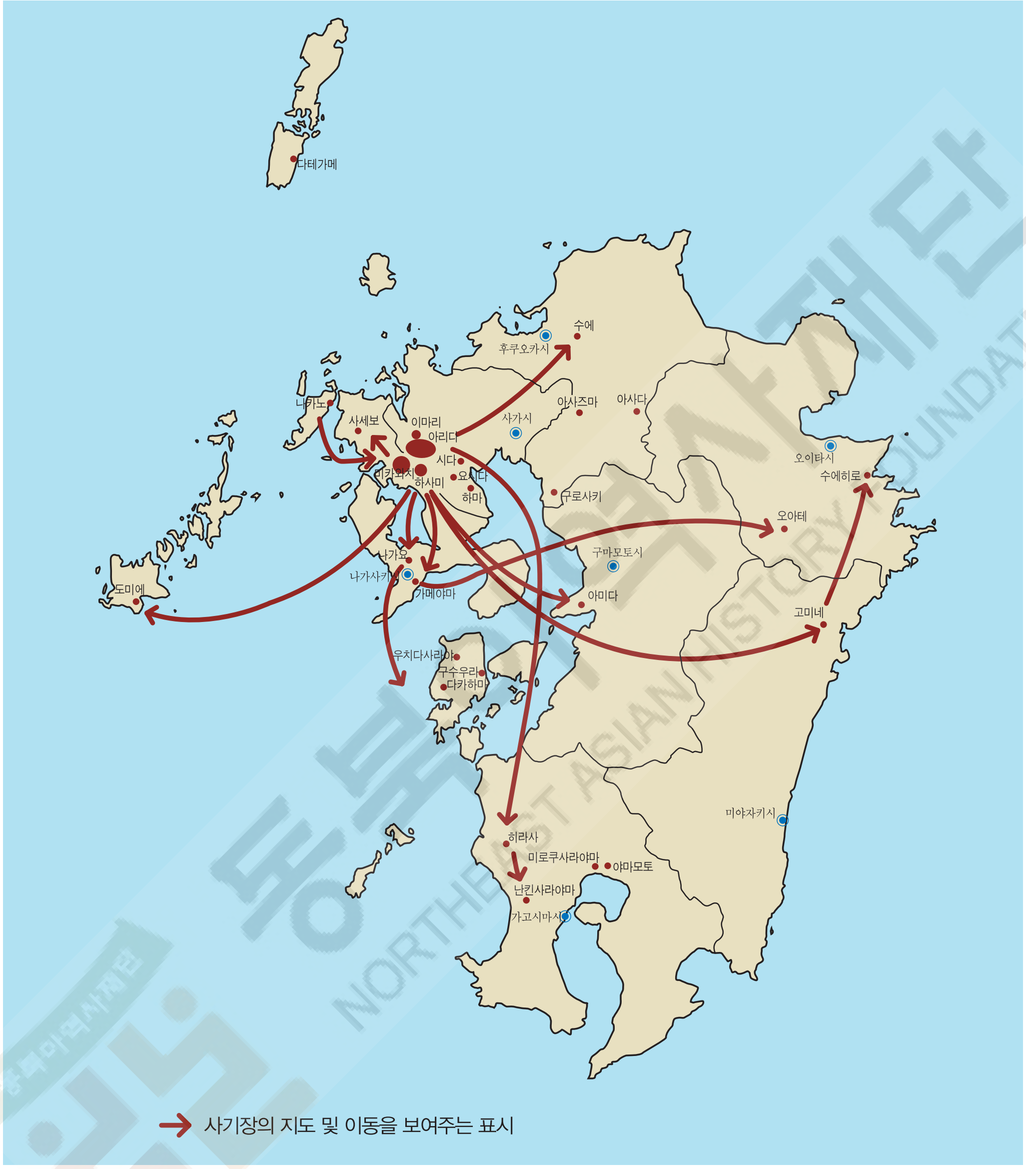
제3절 조선 사기장의 후예들 108

첨부자료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 해제 및 번역 115

참고문헌 157

찾아보기 16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1 에도시대 일본 큐슈지역의 주요 도자기 가마.『土と炎 : 九州陶磁の歴史的展開』12쪽.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

임진 · 정유왜란을 '도자기전쟁(일본 : 燒物戰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조선인 피랍자의 수는 5~1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1] 피랍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종의 하나가 바로 사기장이었다. 피랍된 이들 조선 사기장은 이후 일본의 도예문화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력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진 · 정유왜란 당시 피랍된 조선 사기장을 대표하는 존재로 대개 아리타[有田]의 이삼평(李參平)이나 사쓰마[薩摩, 현 가고시마]의 심수관(沈壽官)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존재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경남 웅천(熊川) 출신의 사기장들이다.[2] 이들은 임진 · 정유왜란 당시 히라도[平戶]의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에 의해 끌려가 히라도 · 미카와치[三川內] 도자기(이하 미카와치 도자기)의 시조가 되었으며, 이들이 만든 미카와치 도자기는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아리타 도자기나 사쓰

1 임진 · 정유왜란 당시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을 일본에서는 '피로인(被虜人)'이라고 하나, 이들은 군사 포로가 아니라 민간인이므로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책에서는 '피랍인(被拉人)'으로 표기한다.

2 웅천의 점골 가마에서 빚은 사발이 일본의 국보 '기자에몬이토다완[喜左衛門井戶茶碗]'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7 2010-12-30 오후 3:41:56

그림2 17–18세기 동인도회사의 교역로와 일본 도자기 수출. 『土と炎 : 九州陶磁の歴史的展開』 18~19쪽.

마 도자기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품이었다. 일본 황실의 어용품(御用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와의 무역을 통하여 세계로 전파되었다(그림2~3). 이런 연유로 덴마크 국립 박물관장 에밀 한 노바 박사는 "1750~1830년 일본의 백자(白磁)에서 히라도 미카와치 도자기가 제일이며, 나베시마[鍋島] 아리타[有田] 도자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미카와치 도자기를 품평한 바 있다.[3] 또한 스튜어트 딕(Stewart Dick)은 『일본미술사(*Arts and Crafts of Old Japan*)』에서 미카와치 도자기, 그 중에서도 특

3 野田敏雄(1993), 『魅惑の古平戸焼』, 創樹社美術出版, 176~177쪽.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8 2010-12-30 오후 3:41:57

히 청화백자(青華白磁)를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그림 3 동인도회사의 로고(VOC)가 새겨진 규슈도자기(九州陶磁文化館 소장).『土と炎 : 九州陶磁の歴史的展開』21쪽.

> 히라도의 미카와치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생산한다. 첫 제도소(製陶所)는 16세기 말 경부터 있었는데, 초기의 작품은 청색과 회색의 유약을 입힌 토기였다. 1712년 미카와치 인근에서 훌륭한 도토(陶土)를 발견하고, 1751년 히라도의 영주 마쓰라는 자신의 보호 아래 가마를 육성하였다. 그 후 100여 년 동안 미카와치 도자기는 일본 최고가 되었다. 지질(地質)이 순결, 순백할 뿐만 아니라, 까칠한 입자(粒子)가 없이 부드러운 천과 같은 정교함은 다른 도자기가 따라 올 수 없는 것이다. 드물게 청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青華白磁]가 있는데, 이 청색은 중국의 것과 같은 짙은 청색도 아니고 또 나베시마 도자기와 같은 옅은 청색도 아닌 그 중간의 미묘하고 은은한 빛깔이다.[4]

이처럼 미카와치 도자기는 일본과 세계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미카와치 도자기를 빚은 사기장들이 바로 임진·정유왜란 당시 히라도의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에 의해 경남 웅천에서 끌려간 조선 사기장의 후예들이다. 이제 이들의 행로를 찾아가고자 한다.

4 Stewart Dick(1904), *Arts and Crafts of Old Japan*, T. N. Foulis, ltd, Edinburgh & London, p.1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9 2010-12-30 오후 3:41:5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0 2010-12-30 오후 3:41:57

종차관과 그 후예

제1절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마쓰라 시게노부

제2절 도요토미의 납치 명령서

제3절 시이노미네를 거쳐 미카와치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2 2010-12-30 오후 3:41:57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마쓰라 시게노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고야성[名護屋城]에 황금다실(黃金茶室)을 차려 놓고 조선 차사발로 다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 중 왜장(倭將)들도 조선 사기장의 납치를 선호하였다.

1593년 말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명나라의 심유경(沈惟敬)이 경남 웅천 왜성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른바 '간파쿠항서[關白降書]'를 위작하여 강화회담을 추진하였으며,[5] 1595년(선조 28) 6월 29일 웅천의 제포(薺浦)를 시작으로 왜군들은 철수를 시작하였다. 당시 웅천 사화랑산(沙火郎山) 왜성(속칭, 明洞倭城)에 머물고 있던 일본의 왜장이 히라도[平戶]의 26대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 1549~1614]였다. 그는 전쟁 당시 밀밭에 숨어있던 아름다운 조선의 궁녀 고무기상[小麥樣][6]을 붙잡아 히라도로 데리고 가서 측실(側室)로 총애하는 등 많은 조선인을 잡아갔다(그림3~6 참고).

5 『宣祖實錄』, 宣祖 27年 5月 辛丑: 『亂中雜錄』, 癸巳 5月.

6 그녀는 궁녀[朝鮮王姬] '廓淸姬'로, 사람들은 고무기상[小麥樣]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시게노부의 측실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명 모두 번(藩)의 중신(重臣)으로 활약했다. 히라도에서 많은 존경을 받은 그녀의 묘는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最敎寺에 남편인 法印鎭信의 묘(墓) 옆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고향 조선이 보이는 해변[根獅子]에 자리하고 있다. 山口康夫(22판), 『歷史の平戶』, 平戶文化財硏究所, 80쪽.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3 2010-12-30 오후 3:41:58

3

4

5

6

그림3 마쓰라 시게노부 초상
그림4 고무기상[小麥樣]의 묘 안내판
그림5 마쓰라 시게노부의 묘
그림6 고무기상의 묘(根獅子 所在)

이른바 간파쿠항서로 강화가 추진되어 왜군이 일시 철수할 때, 마쓰라 시게노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환심을 사려고 웅천 사기장 가운데 기량이 뛰어난 종차관(從次貫)[7]을 나고야성의 도요토미 진영으로 보냈다고 한다.

7 '종차관(從次貫)'은 '정(鄭)' 또는 '정(丁)' 차관을 일본 글자로는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종(從)' 차관으로 표기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4 2010-12-30 오후 3:41:59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고야 대본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마쓰라 시게노부에게 명하여 사기장[陶師]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시게노부는 사기장 종차관(從次貫)을 불러서 나고야 진영에 보냈다. 도요토미는 그곳에서 가마[陶窯]를 차리게 하여 다기(茶器)를 만들게 하였다. 도요토미는 그 공으로 종차관의 이름을 '야지우에몬[彌治右衛門]'으로 고쳐주고 '후쿠모토[福本]'라는 성(姓)을 내렸다.[8]

8 佐藤獨嘯(1918), 『平戸燒沿革一覽』, 油印物版, 1598년 條.

임진왜란 당시 사기장의 납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의한 것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나고야 성에는 현재 '나고야성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의 어귀에는 임진 · 정유왜란을 '한 때 불행한 일'이며, '한일 간의 오랜 교류사 가운데 이해할 것'을 당부하는 동판이 걸려 있다. 동판의 한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그림8).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 사람들 사이에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로쿠 · 게이쵸의 역(文祿 · 慶長의 役, 임진 · 정유왜란을 말함)은 그 관계를 한 때 단절시킨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나고야성박물관은 이 전쟁의 반성 위에 서서 나고야 성적(城跡)을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 오랜 교류사 가운데서 이해하며, 그 역사적 위치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양국의 교류 및 우호의 추진 거점이 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은 이 취지 아래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와의 교류사를 주제로 내걸고 「나고야성 이전」, 「나고야성」, 「나고야성 이후」, 「특별사적 나고야 성적(城跡) 및 전적(戰跡)」을 코너마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5 2010-12-30 오후 3:41:59

그림7 나고야성 박물관 상설전시물 안내 간판
그림8 나고야성 박물관 입구의 동판 서문

> 전시를 보시고, 원시 · 고대 이래 유구한 「교류의 역사」에서 장래의 지침을 찾아내어 주시면 다행입니다.

동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일간의 문화 · 문명의 친근성과 오랜 교류의 관점에서 나고야성박물관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린 우호적 관점으로 나고야성박물관은 일본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시기가 교류와 선린의 시기보다 짧다고 해서 그 비중이 산술적으로 평가되어 경시되어서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한일간의 진정한 친선을 위해서는 불행한 전쟁의 역사를 깊이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나고야성박물관은 이 점을 소략하게 처리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6 2010-12-30 오후 3:42:03

도요토미의 납치 명령서

마쓰라 시게노부의 웅천 사기장 납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平戶燒沿革一覽]』에도 나와 있지만, 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증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슈인죠[朱印狀]이다. 슈인죠란 붉은 도장이 (그림9) 찍힌 명령서를 말하는데, 사기장 납치를 명령하는 도요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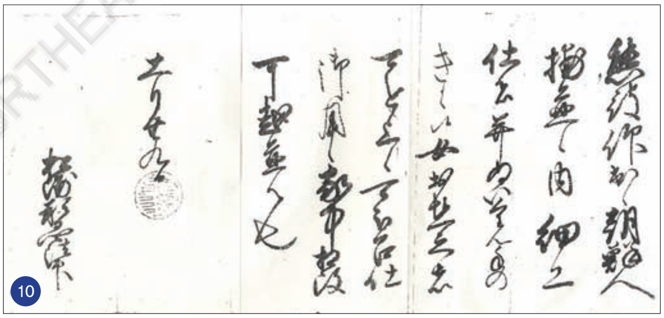


그림9 도요토미의 슈인조[朱印狀]
그림10 세공 기술자[細工仕者]의 납치를 지시한 도요토미의 슈인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7 2010-12-30 오후 3:42:05

미의 슈인죠가 히라도의 마쓰라사료박물관[松浦史料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그림9~10).[9]

態被仰出候, 朝鮮人

捕並候內, 細工

仕者并ぬいくわん, 手の

き, 候女, 於在之者,

可進上候, 可被召仕

御用候, 家中相改

可越並候也,

11月 29日 ㊞[豊臣秀吉朱印]

松浦刑部卿法印

사로잡아 놓은 조선 사람 가운데 세공 기술자와 바느질 잘하는 여인,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 있으면 곁에 두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싶으니 보내 주기 바란다. 부하들에게도 다시 일러 주기 바란다.

(1593년) 11월 29일 ㊞[豊臣秀吉朱印]

松浦刑部卿法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슈인죠를 보낸 날자는 1593년(선조 26) 11월 29일이었지만, 겉봉에 기록된 메모를 보면 마쓰라 시게노부가 이것을 받아 본 것은 이듬해인 1594년 3월 11일이었다. 여기서 세공 기술자[細工仕者]의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조선 사기장이었다.

9 松浦史料博物館에서 이 슈인죠를 전시하고 있지는 않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8 2010-12-30 오후 3:42:05

시이노미네를 거쳐 미카와치로

웅천 사기장 종차관은 차 사발뿐만 아니라, 도요토미가 좋아하는 포대화상(布袋和尙, 그림11)과 같은 복스러운 불상도 잘 빚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에 대한 포상으로 '후쿠모토 야지우에몬[福本彌次右衛門]'이라는 성과 이름을 내려 주었다고 한다.[10]

종차관은 나고야성에서 도요토미의 전속 사기장으로 있다가 도요토미 사후인 1608년 아들[彌一]을 얻었으며, 1613년 조선 사기장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시이노미네[椎の峰 : 현 佐賀縣 伊萬里市 南波多町 府招上]로 이주를 하여 도예업을 계속하다가, 1624년 그곳에서 작고하였다.[11]

이때 그의 아들은 17세로 아비의 이름 '야지우에몬[彌治右衛門]'을 습명하였으며, 고이차 다완[濃茶茶碗][12]을 만드는 기술이 특히 절묘하였다고 한다. 1667년 당시 미카와치에는 정유왜란 당시 납치된 웅천 사기장 거관(巨關)의 아들 이마무라 산노조[今村三之丞] 등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가 동향인인 종차관의 아들이 시이

10 『平戶燒沿革一覽』, 1598년조.
11 『平戶燒沿革一覽』, 1667년조.
12 일본 다도(茶道)에서 먼저 손님에게 올리는 진한 차를 '고이차[濃茶]', 마지막으로 올리는 차를 '우스차[薄茶]'라고 하는데, 고이차 다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29 2010-12-30 오후 3:42:05

그림11 포대화상(布袋和尚) 모습
그림12 종차관 비-전경

노미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카와치로 초청하였다.[13]

종차관은 시이노미네에서 사망하였지만, 현재 그의 묘는 이러한 인연으로 가족묘와 함께 미카와치에 있다. 미카와치에 있는 종차관의 묘비(그림12)에는 사후 법명(法名), '법예영전거사(法譽榮傳居士)'라 새겨져 있다. 이면에 있는 비명의 원문과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福本氏祖元朝鮮人也
豐公伐彼地之日 使陶工降數人歸朝 而分別各處 家祖住在唐津椎峰山 三世之後志方今村兩子以同域之好頻 以進卜平門之地方 不止應招定居三川內山矣 是稱彌治右衛門 沒時年八十有三才也 其子孫尚依然乎永世學陶器 而分以數家到于今益昌盛矣 實可謂繁榮之至而已 故錄以誌上也
山本拜月丹 識

후쿠모토씨의 조상은 원래 조선 사람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쳤을 때 사기장 몇 사람을 항복하게 하여 일본으로 데려와 이곳저곳에 살게 하였다. 후쿠모토 집안은 가라즈[唐津] 시이노미네에 3대까지 살았다. 시호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0 2010-12-30 오후 3:42:06

우[志方] 이마무라[今村] 두 사람이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으로 서로 좋아하며, 히라도[平門; 平戸] 지방에서 이주하여 미카와치[三川內山]에 정착하고 난 뒤 초청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이 사람이 야지우에몬[彌次右衛門]이며 83세에 돌아갔다. 그 자손은 대대로 도예업을 경영하니 지금은 여러 세대로 번창하여 매우 성황을 이루고 있다. 실로 끝없이 번창할 것이다. 때문에 비지(碑誌)로 써 남긴다.

야마모토[山本拜月丹] 씀

이 비문에는 종차관의 후손이 3대까지 시이노미네에 살았다고 하였으나,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平戶燒沿革一覽]』에는 1667년 이마무라 산노죠와 시호우 한노죠[志方半之丞]가 시이노미네에 있는 종차관의 아들 후쿠모토 야지우에몬[福本彌次右衛門]을 초빙하였다고 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14]

13 『平戶燒沿革一覽』, 1667년조.
14 『平戶燒沿革一覽』, 1667년조.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1 2010-12-30 오후 3:42:0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2
2010-12-30 오후 3:4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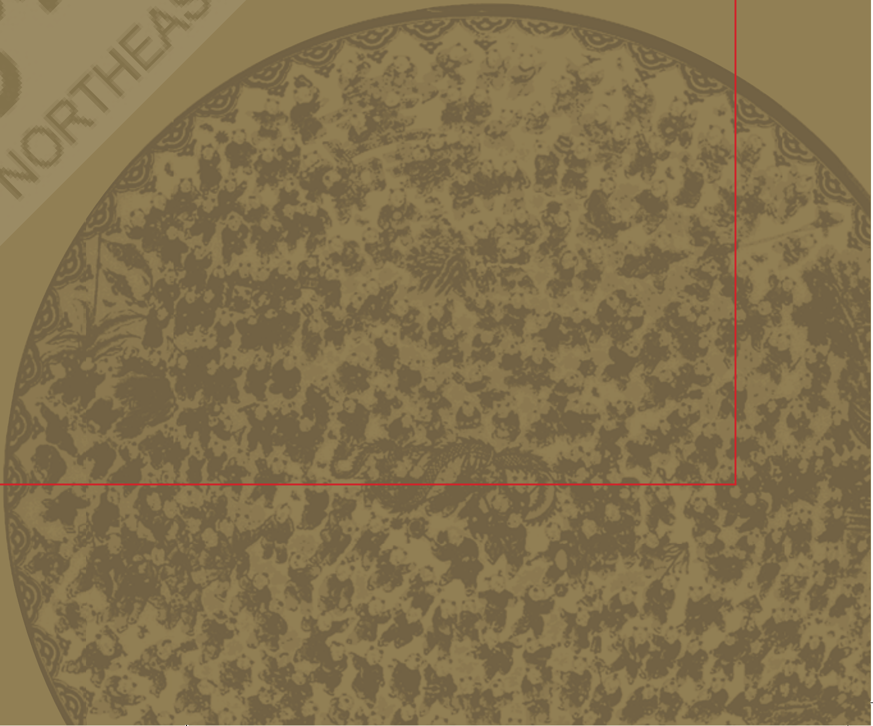
제2장

거관과 그 후예

제1절 첫 정착지 히라도

제2절 웅천 사기장의 첫 가마, 나카노

제3절 요시노모토를 거쳐 미카와치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3 2010-12-30 오후 3:42:0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4 2010-12-30 오후 3:42:07

첫 정착지 히라도

(1) 고라이마치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는 히라도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가 1598년 초 정유왜란에서 철수하면서 조선 사기장들을 대거 데리고 왔음을 밝히고 있다.

> 재한(在韓) 7년의 전쟁을 겪고 귀국하면서 웅천의 사기장[陶師] 거관(巨關) 등 100여 명의 한국인을 데려와 히라도성[平戶城] 아래 마을을 정하여 고라이마치[高麗町]라 하고 여기에 살게 하였다.[15]

당시 조선 사기장들이 정착한 곳이 히라도의 죠시타무라[城下村] 고라이마치[高麗町]였으나, 이들은 나중에 모두 미카와치로 옮겨가 현재 이곳에 조선 출신의 사기장 후손들은 아무도 없다. 고라이마치라는 지명 역시 지금은 고이시가와마치[戶石川町]로 바뀌어

15 『平戶燒沿革一覽』. 당시 납치된 사기장의 수를 125명이라고 추산한 경우도 있다. 中島浩氣(1936), 『肥前陶磁史考』, 靑潮社, 2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5 2010-12-30 오후 3:42:07

그림13 고라이마치(高麗町) 기념비
그림14 고라이가마(高麗窯)

있다. 그런데 다테이시 마사하루[立石正春]라는 일본 사람이 고라이마치 자리인 자신의 집 앞에 '고라이마치[高麗町]'라는 기념비를 세워 놓아,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13). 비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 1598년 정월, 히라도의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 공이 조선에서 귀국할 때 거관(巨關) 등 사기장 수십 명을 데려 와 이곳에 살게 하여 도예업을 시킨 것이 히라도 도자기의 발상이고, 고라이마치[高麗町]의 기원이 된다.

다테이시는 일본인이지만 고라이마치 기념비를 세웠을 뿐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6 2010-12-30 오후 3:42:10

아니라, 자신이 도자기 기술을 배워 집안에 '고라이가마[高麗窯]'라는 가마를 차려 놓았다(그림14). 그는 한국의 도예학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숙식을 제공하며 실습을 시키고, 지도도 하였으며, 돌아갈 때는 여비도 주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한다.

(2) 고려묘와 고려비

다테이시는 2008년 1월 26일 타계하였지만, 히라도에는 그가 발기하여 세운 '고려비(高麗碑)'가 남아 있다. 먼저, 이 비를 세우게 된 연유에 대한 그의 증언은 아래와 같다.

>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옛 무덤을 관리하면서 아무래도 조선 사람 무덤 같아서 시에 의뢰를 하여 1992년 24기 중 2기를 발굴을 하여 보았습니다. 발굴 유물 가운데 일본의 엽전, 구리 손거울과 더불어 조선의 담뱃대(그림20)가 있었습니다. 담뱃대는 설대가 썩어 없어지고 담배통과 물부리만 남아 있었지만 조선의 담뱃대가 분명하여, 이것으로 조선 사람의 무덤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려묘지(高麗墓地)'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잊어온 것이 죄송하여 다음 해 추모비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테이시의 발기로 추진되어, 1994년 5월 18일 히라도시 당국과 시민 유지, 현재 미카와치가 소속되어 있는 사세보시 당국과 시민 유지, 피랍 사기장들의 후손들이 협력하여 제막식을 성대하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7 2010-12-30 오후 3:42:10

16 『西日本新聞』, 1994. 5. 19.

열었다. 한국에서는 조선 사기장들이 피랍된 창원시 진해구의 김한곤 과장, 김성주 당시 웅천차인회장, 이영수 진해문화원 총무이사, 장영준 화백, 옥두태 민속무용가, 안정남 새진해라이온스 전회장, 황정덕 진해 · 웅천향토문화연구회 회장 등 8명이 참석하였다.

제막식은 일본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진해 · 웅천향토문화연구회에서 준비해 간 한국의 막걸리와 전통 시루떡도 제상에 진설하였으며, 황정덕 회장이 우리말로 고유축을 올리고 막걸리로 헌작하였다. 장영준 화백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달마상 그림을 히라도 시장과 다테이시에게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옥두태 민속무용가의 살풀이춤으로 400년 전 낯선 하늘 아래에서 영면하신 웅천 사기장들의 명복을 빌었다. 황정덕 회장은 방금 제막을 한 '고려비' 옆에, 웅천 도요지가 있는 점골의 흙과 도편이 담긴 그릇을 묻었다. 이날 제막식 행사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니시니폰신문[西日本新聞]』에도 보도되었다(그림15).[16]

1994年(平成6年)5月19日 木曜日 40499号 (日刊)

朝日新聞

「強制連行」の史実刻む

「高麗碑」除幕 陶工たちの霊弔う

平戸市

高麗碑の前で慰霊舞を披露する韓国の舞踊家＝平戸市戸石川町で

とーく

平戸の高麗碑除幕式に出席した韓国・鎮海郷土文化研究所長の 黄 正徳さん（67）

豊臣秀吉が仕掛けた文禄慶長の役の時、人命だけでなく文化資産も略奪され、朝鮮半島の陶工が強制的に日本へ連れ去られたのは歴史的な事実です。その後、私たちにとっては祖先に当たる朝鮮人陶工の頑張りが、日本の陶芸の隆盛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

平戸市や佐世保市・三川内などの方々の努力で、陶工団の供養塔「高麗碑」は建立されました。ら致されて異国の地で苦労を重ねて死んでいった祖先の霊をまつってもらい、感激しています。

これからもお互いに手を取り合って、陶芸が結ぶ国際交流を民間ベースで進めていきたいですね。（韓国・鎮海市）

西日本新聞

15

그림15 고려비 제막식 기사

위 고려비 앞의 살풀이춤 모습(『朝日新聞』, 1994. 5. 19)

아래 황정덕 관련 기사(『西日本新聞』, 1994. 5. 20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8 2010-12-30 오후 3:4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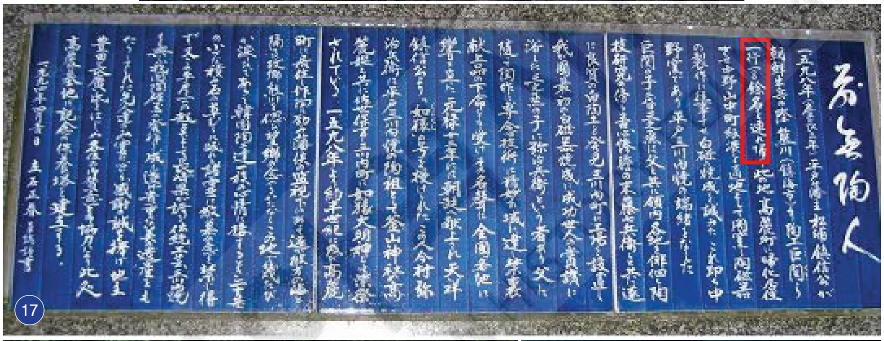


그림16 고려비 전경과 고(高)자 문양 장식

그림17 고려비 비문, 전무도인(前無陶人)이라 이름하였다

그림18 고려묘지의 돌 무덤 20여기

그림19 고려묘에서 발굴된 담뱃대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39 2010-12-30 오후 3:42:16

히라도 본섬의 높지 않는 산등성이에는 돌로 평장한 무덤 20여 기가 있는데, 이 무덤 앞에 '고려비'가 있다(그림16~19).

고려비의 정상부에는 우리나라 고려(高麗)를 의미하는 고(高)자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그림16), 앞면 앞머리에 '히라도 미카와치 도자기 선조 위령[平戶三川內燒陶祖之慰靈]'이라 쓰고 '전무도인(前無陶人)'이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그림 17).

전무도인(前無陶人)

1598년 히라도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26대 松浦鎭信] 공이 조선 출병을 하였을 때 웅천(熊川, 현 창원시 진해구)에서 사기장 거관(巨關) 등 일행 10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와[連れ歸り] 이곳 고라이마치[高麗町]에 귀화 거주시켜, 나카노[中野] 야마나카죠[山中町] 가미자키[紙漉]에 가마를 차려 도자기를 생산하게 하여 백자 빚기를 꾀하였다.

거관의 아들 2대 산노죠[三之丞]는 아비와 같이 영내 각지를 배회하며 도기(陶技) 연구를 하는 한편, 참담한 고생 끝에 후지시 치베에[藤七兵衛] 등과 같이 마침내 양질의 백도토를 발견하여 미카와치 마을[三川內町]에 공장을 두고 우리나라(일본) 최초의 백자기 빚기에 성공하여 세인의 상찬(賞讚)을 받았다.

산노죠의 아들 야지베[彌治兵衛]가 아버지를 따라 도자기 빚기에 전념하여 기술이 정묘(精妙)의 경지에 이르렀고, 황실 진상품을 빚도록 명령을 받아 그 명성이 전국 각지에 떨치게 되었다. 1699년 조정에 도자기를 진상하였으며, 이로해서 마쓰라 시게노부[29대 松浦鎭信] 영주로부터 죠엔[如猿]이라는 호가 내려졌다. 이 사람 이마무라 야지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0 2010-12-30 오후 3:42:16

베[今村彌治兵衛]는 가마야마신사[釜山神社]의 '고라이바바[高麗媼]'와 같이 히라도 미카와치 도자기의 도조(陶祖)로서 사세보시 미카와치 마을[佐世保市 三川內町]에 죠엔 다이묘진[如猿大明神]으로 모셔지고 있다.

1598년부터 약 반세기에 걸쳐 고려마을에 살면서 도자기 빚기에 힘쓰며 영주의 감시 아래 이곳에서 바다 건너 아득한 고향 웅천을 그리며 망향의 아픈 가슴을 달랠 수 없어서 그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을까!

조선 사기장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20기의 작은 적석(積石)의 풀밭에 잠들고 있는 여러 영(靈)에 경모(敬慕)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었고, 또 이 히라도를 한 기점으로 하여 나가사키[長崎]현이 자랑스러운 전통 공예 '미카와치 도자기'를 일으켜서 우리나라(일본) 도자계(陶磁界)의 발상을 이루어서 귀중한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게 하여 주었다.

선인들의 영에 충정에서 감사드리며, 지주 도요타 나가히로[豊田長廣] 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찬동과 협력으로 이곳 고려묘지에 기념의 추모탑(追慕塔)을 세운다.

1994년 5월 길일

다테이시 마사하루[立石正春]가 초하고 쓰다

다테이시 마사하루가 초하고 쓴 이 감격스런 비문에도 문제가 된 구절이 있었다. 비문의 초안에 '납치를 하였다'고 하지 않고 '데리고 돌아와[連れ歸り]'로 되어 있었다. 황정덕은 아리타의 도조(陶祖) '이삼평이 스스로 왔다'는 식의 서술이 재현될까 우려되어 비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1 2010-12-30 오후 3:42:16

을 초하는 다테이시에게 우려와 당부의 편지까지 보냈다. 현장에서 다테이시는 '連れ歸り'가 사실상 '강제 연행으로 납치와 같은 뜻'이라고 해명하였으며, 이를 보도한 신문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확인하였다(그림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2 2010-12-30 오후 3:42:16

웅천 사기장의 첫 가마, 나카노

히라도 시내에서 차량으로[17]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야스만다케[安滿岳] 산 중턱 야마나카마을[山中町]의 가미수키[紙漉] 또는 쓰바키자카[椿坂]라고 하는 곳에 '현 지정 사적 나카노가마자리[縣指定史跡中野窯跡]'가 있다. 이곳은 사철 물이 흐르는 가미수키 내[紙漉川]가 있어서 종이 가내공업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도자기를 만들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 조선 사기장들이 살던 고라이마치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영주는 큰 기대를 걸고 이곳에 가마를 차리게 하였다.

안내판이 서 있는 곳은 차사발을 굽던 가마터였는데, 2008년 5월 현재 안내판은 '1993(平成 5)년 10월의 안내판'과는 달랐다. 먼저 1993년 안내판(그림21)의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나카노가마[中野窯]는 1598년 제26대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가 조선 출병에서 귀국할 때 동행(同行)했던 조선 웅천(熊川)의 사기장

17 대형 차량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3 2010-12-30 오후 3:42:16

그림20 나가사키 현 지정 사적 가마자리 표주
그림21 나카노 가마자리 안내판(1993)
그림22 나카노 가마자리 안내판(현재)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4 2010-12-30 오후 3:4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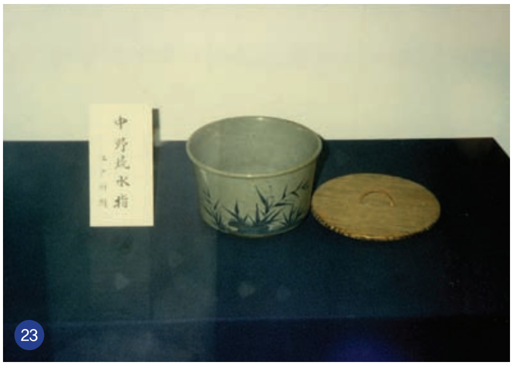


그림23 출토된 나카노 도자기 물잔
그림24 출토된 나카노 도자기 차사발

거관(巨關, '고세키') 등에 의해 가마를 열었다고 전한다. 미카와치[三川內]로 옮긴 1650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영하였다고 한다. 위쪽에 있는 가마를 차사발 가마, 아래쪽에 있는 가마를 접시가마라고 하며, 두 가마를 같이 '나카노가마[中野窯]'라고 한다.

1992~1993년에 한 발굴조사로 층계꼴연방식등요[階段狀連房式登窯]가 확인되었다. 산의 비스듬한 바닥에 직교(直交)하는 형태로 쌓여서 차사발 가마에서는 6실, 접시가마에서 5실의 번조실(燔造室 · 燒成室)이 확인되었다. 특히 차사발 가마는 국내(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내화 벽돌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

제품은 두 가마가 같이 자기(磁器)를 번조하고 있었고, 내화갑(耐火匣)이 많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고급품을 번조한 어용가마라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겠다.

1993년(平成 5) 10월.

히라도시 교육위원회[平戸市教育委員會]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5 2010-12-30 오후 3:42:22

다음 2008년 5월 현재 확인한 안내판(그림2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98년 제26대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가 조선 출병에서 귀국할 때 연행했던[連行した] 조선 웅천(熊川, 고모카이) 출신 거관(巨關, 고세키) 등이 열었던 가마로 전해진다.
>
> 제품은 고려(高麗) 풍의 하케메문양[刷毛目文樣, 귀얄문양]과 백화장토(白化粧土)에 오수(吳須)[18]와 철유(鐵釉)로 그림을 그린 다도(茶陶)류에서 일반의 일용잡기인 호(壺), 옹(甕) 등이 전해진다.
>
> 발굴조사에서 백자(白磁)·칠부(柒付)의 제품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도기(陶器)에서 자기(磁器)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가마로 추정되는 귀중한 사적이다.
>
> 1650년경에 미카와치[三川内]로 이전하였다고 추정된다.

1993년의 안내판에 기록되었던 '동행했던'이 현재의 안내판에서는 '연행했던'으로 바뀐 것은 역시 히라도 시내 고려묘의 비문 덕분이다. 또한 1993년 '고급품 자기(磁器)를 번조하고 있었고, 내화갑(耐火匣)이 많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고급품을 번조한 어용가마'로 설명하였으나, 현재에는 '도기(陶器)에서 자기(磁器)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가마'로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안내판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의 안내판에서 말하는 '층계꼴 연방식등요[階段狀連房式登窯]'는 가마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단계이다. 먼저 가마 시설 없이 노천에 토기를 쌓아 놓고 그 주위에 나무를 쌓아 그릇

18 오수는 코발트·망간·철 따위를 함유한 천연 광물로 유약으로 쓰인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6 2010-12-30 오후 3:4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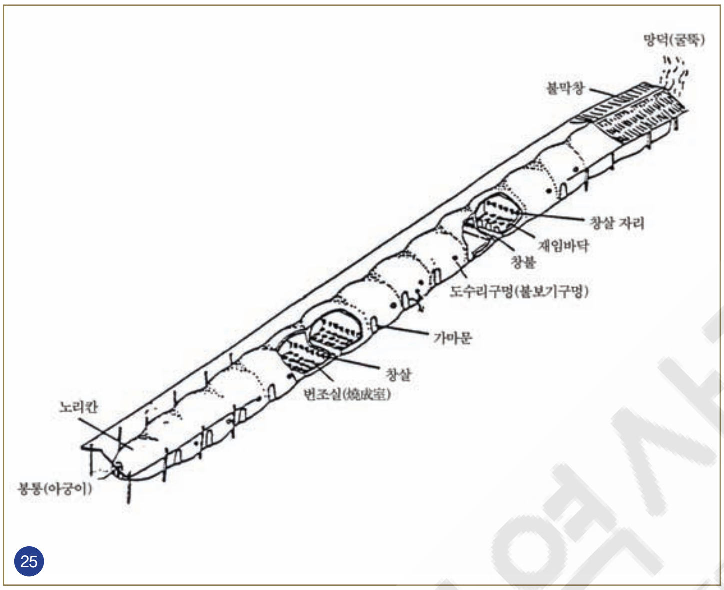


그림25 층계꼴 연방식 등요 모식도 [大橋康二 (2004), 51쪽, 부분 수정]

을 굽던 평상식 단실(平床式單室) 단계에서 출발하여, 노천에 깊지 않게 땅을 파거나 언덕의 경사면에 길게 만들어진 터널형 오름가마(登窯) 단계로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안에 칸막이[隔壁]를 여러개 둔 연실 형식(連室形式)으로 발달한 형태이다(그림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7 2010-12-30 오후 3:42:23

요시노모토를 거쳐 미카와치로

19 『平戶燒沿革一覽』 1643년 조.
20 『平戶燒沿革一覽』 1610년 조.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 웅천 사기장 거관이 1643년 88세로 사망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서,[19] 1598년 납치 당시 43세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는 일본에 와서 일본인 큐죠[久城]의 딸과 혼인을 하여, 1610년 55세에 아들을 얻어 산노죠 마사이치[三之丞 正一]라고 이름을 지었다.[20]

정유왜란 당시 끌려간 거관 등 웅천 사기장들은 '나카노 도자기'를 빚었으나, 주변에 도토(陶土)가 없는 어려움 때문에 나카노에서는 장래성이 없었다. 1622년 당시의 영주는 사기장을 납치한 시게노부[鎭信]의 손자인 타카노부[隆信, 松浦家 28世]인데, 그가 거관(巨關)과 그 아들 산노죠[三之丞] 등에게 영내에서 도예업의 적지를 찾아보도록 명령을 하였다. 67세 노령의 거관(巨關)은 13세의 어린 아들 산노죠와 함께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가 히가시소노기군[東彼杵郡], 하이기무라[早岐村, 現 長崎縣 東彼杵郡 早岐町]의 곤죠지[權常寺, 現 長崎縣佐世保市權常寺], 히우무라[日宇村]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8 2010-12-30 오후 3:42:23

그림26 요시노모토 가마 자리의 나가사키현 문화재 지정 표주와 안내판(葭の本窯跡範圍確認調査報告書)

의 히가시노우라[東の浦], 요신타[吉の田] 및 야코바[相木場, 現 佐世保市三川內町] 등 네 개소에서 도토(陶土)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도토 생산지에서 가까운 미카와치[三川內]로 주거를 옮기고, 요시노모토[葭の本]에서 시요(試窯)에 들어갔다.[21]

거관이 시요를 한 요시노모토는 현 사세보시 기하라쵸[木原町] 후루사토[古里]로 사가현 아리타[有田]와 경계지대에 있다. 1960년 나가사키 현에서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여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지만, '사적 요시노모토 가마 자리[史跡葭の本窯跡]'라고 써서 세운 안내판은 글자가 지워진 데가 많아 판독조차 힘들다(그림26). 가마는 북서쪽을 보고 비탈을 이용하여 설치되었고, 나카노와 마찬가지인 '층계연방식오름가마'로 한 방의 평균 너비는 2.5m 깊이는 3m(2.5m×3m)의 번조실 16~17개가 들어서 있는, 전체

21 『平戸燒沿革一覽』 1610년 · 1622년 조 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49 2010-12-30 오후 3:42:24

22 佐世保市教育委員會(1982), 『葭の本窯跡範圍確認調査報告書』.

23 『平戸燒沿革一覽』, 1622년 · 1632년 조. 그런데 『葭の本窯跡範圍確認調査報告書』는 1614년 요시노모토 가마가 개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24 『平戸燒沿革一覽』, 1635년 조.

25 『平戸燒沿革一覽』, 1637년 조.

길이는 38m의 비교적 규모가 잘 갖추어진 가마였다. 이런 가마 3기를 확인하였다.[22]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 의하면, 거관은 1622년 요시노모토에 들어갔으며 10년 후인 1632년 요시노모토에서 지금의 사가현 다케오시[武雄市] 야마우치마치[山內町] 구로카미야마[黑髮山]의 다이지인[大智院]에 들어가 존각법인(尊覺法印)으로 귀의하여 은거하며 오로지 도기빚기에만 전념하면서 기술이 더욱 정교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곧 거관은 요시노모토에서 1622년부터 1632년까지 10년간 있었던 셈이다.[23]

1634년 거관은 아들 이마무라 산노죠에게 자기를 생산하기 위한 양질의 흙을 탐색하게 하여 영내의 하리오 섬[針尾島]의 미쓰타케[三ツ岳]에서 백자광(白磁鑛)을 발견하였다.[24] 또한 '이마무라[今村]의 기록'에 의하면 거관의 아들 산노죠는 아리타의 난가와라[有田 南川原]에 있는 같은 고향(웅천) 사람인 다케하라 미치이오리[竹原道庵]의 아들 고로우시치[五郎七]로부터 비법을 몰래 빼내오기도 하였다. 당시 산노죠는 백자 기법을 익히려고 고로우시치의 제자가 되었으나, 고로우시치는 유약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산노죠는 그의 아내를, 잿물[土灰]을 걸러 마지막 손질하는 여자 날품팔이로 취업시켜 비법을 빼내고 도주하여 2~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기도 하였다.[25]

이러한 곡절을 거쳐 아버지 거관과 아들 산노죠는 마침내 양질의 백자와 청자를 생산하여 영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들은 하리오 섬에서 가까운 미카와치에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생산하는 가마를 차렸으며, 이에 히라도 나카노가마의 조선 사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0 2010-12-30 오후 3:42:24

기장들도 1650년까지 미카와치로 모두 이주하게 되어 미카와치가 히라도 도자기의 중심이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1 2010-12-30 오후 3:42: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2 2010-12-30 오후 3:4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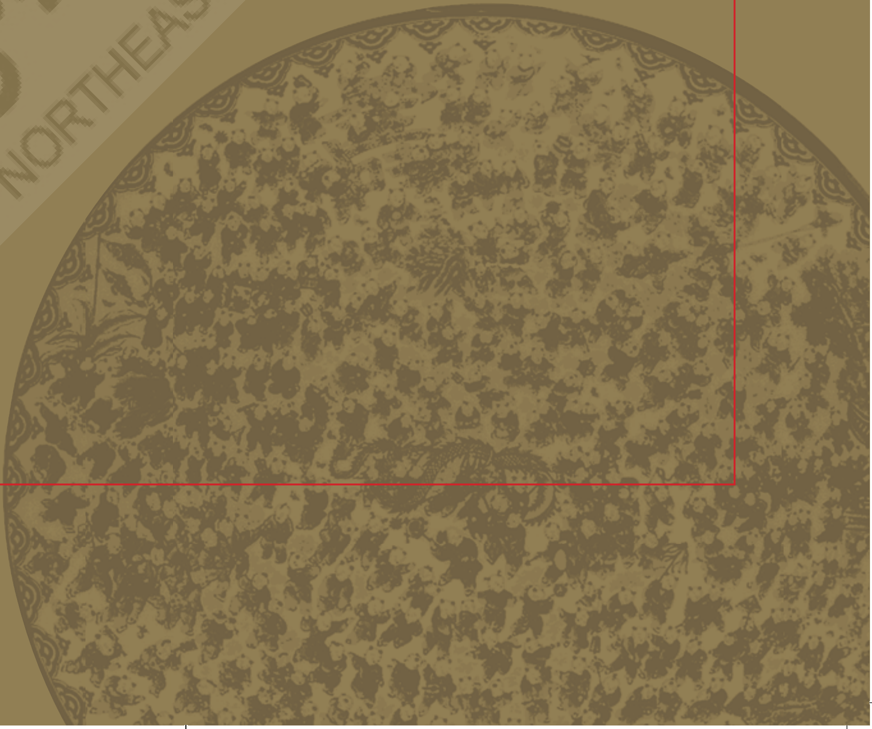
나카자토 에이와 그 후예

제1절 이름을 알 수 없는 앳된 소녀 에이

제2절 시이노미네의 고려사

제3절 가라즈 도자기의 발상지 기시타케와 조선 사기장

제4절 미카와치의 나가하야마 가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3 2010-12-30 오후 3:42: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4 2010-12-30 오후 3:42:24

이름을 알 수 없는 앳된 소녀 에이

마쓰라사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카와치 도자기 약기[三川內燒物略記]』에는 거관과 더불어 조선 웅천에서 납치된 한 여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조선에서 빨래하러 나온 어린 여성을 데려 와서 영주가 외로운 그녀에게 모든 편의를 보아 주며 손으로 빚는 도예기술을 배우게 하였는데 1610년경 스무 살쯤 되어 보였다. 그는 이름도 나이도 밝히지 않았고 혼인할 뜻도 없었다. 거관(巨關)이 혼인하여 1610년 아들을 낳자 어미처럼 거관의 아이를 돌보다가, 영주가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에게 의탁을 시켰다.[26]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에서 납치된 어린 여성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610년에 스무살 정도라 했으니, 12년 전 납치될 당시에는 8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 의하

26 『今村家記錄 : 三川內燒物略記』, 松浦史料博物館 소장.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5 2010-12-30 오후 3:42:24

27 에이[翳]는 "앳되고 예뻐 보이는 여성"을 의미한다. 한 책에는 에이의 이름을 "累"로 표기하였으나, 이는 "翳"의 오식으로 보인다. 岡部猾介(2000), 『史都平戸』, 松浦史料博物館, 64쪽 (8판, 1962 : 1판).

28 『平戸燒沿革一覽』, 1622년 조.

29 나카자토 구수야타[中里久壽彌太]에 의하면 에이의 남편 나카자토 모베에[中里茂兵衛]의 형인 나카자토 모이치[中里茂一]가 자신의 시조라고 한다.

30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습명하는 관습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유추해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31 『平戸燒沿革一覽』, 1622년 · 1672년 조.

32 이하 본문에서 언급되는 에이의 나이는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 따른다.

면 이 여인은 거관(巨關)과 더불어 납치된 여인으로 '에이[翳]'라 불렸다고 한다.[27]

> 에이는 웅천(熊川) 태생으로 거관(巨關)과 같이 귀화하여 나카노[中野]의 사기장이 되었으나, 뒤에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에 출가하여 가라즈[唐津] 시이노미네[椎の嶺]로 이주하였다. 1613년(慶長 18) 아들을 얻었으나, 1622년 남편이 죽자 아들에게 그 이름을 승계시켰다. 이 때(1622년) 에이는 56세, 아들 모에몬은 10살이었다.[28]

앞의 두 자료 모두 에이가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조사단의 황정덕이 시이노미네로 찾아가 나카자토 가의 14대 종손으로 도예업을 계승하고 있는 나카자토 구수야타[中里久壽彌太][29]를 만나 들은 증언에 의하면, 위 자료의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은 에이의 장남이며, 남편 이름은 '나카자토 모베에[中里茂兵衛]'라고 한다.[30]

또 위의 두 자료를 비교하면 에이의 나이가 서로 다르다.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 의하면 에이는 1622년 남편 사별 당시 56세로 밝히고 있어,[31] 이에서 유추하면 1598년 납치 당시 8세가 아니라 32세가 된다. 그러나 『미카와치 도자기 약기[三川內燒物略記]』에는 1610년경 20세, 납치 당시 8세가 되어, 위의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과는 24세의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에이의 정확한 나이나 이름은 알 수 없다.[32]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거관과 같이 웅천에서 끌려왔으며, 결혼하기 전 동향 출신인 거관과 매우 가까워 거관의 아이를 어미처럼 돌보았다는 사실이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6 2010-12-30 오후 3:42:25

시이노미네의 고려사

에이가 시집갔던 시이노미네에는 놀랍게도 '고려사(高麗祠)'라는 조선 사기장의 신사가 있었다. 에이는 1610년 이곳으로 시집와서, 1613년 아들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을 낳았으며, 1622년 남편이 죽자 아들을 데리고 미카와치 나가하야마[長葉山]로 이주하였다. 곧 그녀는 이곳 시이노미네에서 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이노미네에 '고려사(高麗祠)'가 있다는 것은 에이가 정착하기 이전에 이미 이곳에 조선 사기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1) 도리이 명문의 신공황후

신사의 나들문(도리이, 鳥居) 편액에 세로로 '고려사(高麗祠)'란 이름이 선명하였으며(그림28), 좌측 기둥에는 '신공황후(神功皇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7 2010-12-30 오후 3:4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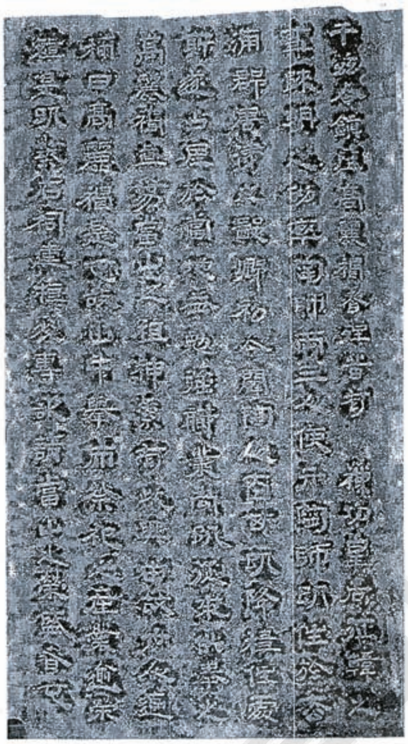
그림27, 28 고려사(高麗祠) 입구와 편액

后)가 정한(征韓)하였다가 돌아올 때' 운운하는 명문이 있었다. 내용이 심상치 않아 해독하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2008년 5월 9일 본 조사단은 이마리시[伊万里市] 교육위원회에 찾아가 탁본을 문의한 결과,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6월 3일, 교육위원회의 아라다니 요시기[荖谷義樹] 연구원이 귀중한 탁본과 해독문을 팩스로 보냈다. 일본인들의 정확성에 무척 감사했지만, 탁본과 해독문의 내용은 당황스러웠다.

우선 오른쪽 기둥의 명문을 보면 이 고려사(高麗祠)의 도리이는 메이지 14년(1881)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운 이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에이의 후손인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의 이름도 있었다. 다음 좌측 기둥의 명문에는 '이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8 2010-12-30 오후 3:42:29



29

右柱「崒蹬建華表一基
維時明治十四年巳三月上澣穀旦」

「中里茂右衛門
同 苗 彌 吉
緒方 治三郎
同 苗 喜 市
大嶋恒右衛門
大嶋 兵太郎
崒 文次郎
中里惣右衛門
緒 方 吉 治
中里徳左衛門
福嶋 三治郎
仝 □□次
安村 甚太郎」

「里正
犬山 辰治郎」

31

左柱「干茲令鎮座高麗祠者、往昔、有　神功皇后征韓
事、帰朝之砌、率陶師両三人使元陶師、以住松
浦郡唐津之鄙郷、初令開陶□□□以降移住處
躰？遂占屋、於當地益勉強職業、尚以、従来供奉之
高麗祠直、爲當山之祖神、素有以興由、故世人遍
稱曰高麗祠是也、故山中舉而祭祀之、産業愈榮
殖、是以築石祠建植表、専欲請當山之榮盛者也」
「古稀有六帰仁堂謹書」(120cm×70cm)

30

그림29, 30 고려사 도리이 좌측 기둥 각자 탁본과 해독문

그림31 우측 기둥 각자 해독문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59 2010-12-30 오후 3:42:33

고려사는 옛날 신공황후(神功皇后)가 정한(征韓)하였다가 돌아올 때 사기장[陶師] 2~3인을 데려와 마쓰라[松浦郡] 가라즈[唐津]의 시골에 살게 하였다'는 문제의 구절이 있었다(그림31).

이것은 터무니없는 왜곡이지만, 메이지 시기 '신공황후 정한론'이 풍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였다. 또한 일본에서 조선 사기장에 대한 기념 신사가 조선 침략과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반길 문제도 아니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이곳의 고려사가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 사기장과 관련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2) 제전(祭殿)

도리이에서 약 200m쯤 산비탈 길을 걸어 올라갔더니 오른쪽에 제전으로 보이는 건물이 나타났다(그림32). 또한 건물 뒤에는 '고려신(高麗神)'이라 새긴 '선돌 신위[立石 神位]' 3위가 세워져 있었다(그림33~34). 오른편에 '고려신(高麗神)'이라 새긴 신위는 "칸세이[寛政] 5년(1793) 8월 길일(吉日)"에, 왼편의 '고려신(高麗神)'이라 새긴 신위는 "코우카[弘化] 14년(1847) 재건립", 가운데 신위는 양쪽보다 조금 높게 세워서 '도조대신(陶祖大神)'이라 새기고 "메이지[明治] 10세(十歲)(1877) 정축(丁丑) 4월 8일"에 세운 것이다.

이들 세 신위는 모두 메이지 14년(1881)에 세운 나들문보다 오래된 것으로, 메이지 시기 이전에도 고려신(高麗神)에 대한 제사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0 2010-12-30 오후 3:42:3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32 고려사 제전
그림33 선돌 신위 셋과 가운데 신위
그림34 가운데 선돌 신위

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대 후손 나카자토 구수야타[中里久壽彌太]와 그의 부인에 의하면, 현재 고려사의 대제는 매년 5월 8일에 지낸다고 한다.[33]

33 시이노미네 답사를 안내해 준 사람은 나카자토가의 종가를 잇고 있는 나카자토 구수야타[中里久壽彌太] 부부이다. 남편은 노화현상으로 청각 장애가 있었으나 친구들에게 도예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아내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아들 유이치로[裕一郎]도 도예업을 계승하고 있으며, 한국에 와서 전시회도 연 적이 있다고 한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1 2010-12-30 오후 3:42:35

가라즈 도자기의 발상지 기시타케와 조선 사기장

에이의 시가(媤家)인 나카자토 가문은 인근 가라즈 도자기[唐津燒]의 발상지인 기시타케[岸岳]에서 시이노미네로 왔다고 한다. 현 사가현[佐賀縣] 가라즈시[唐津市] 기타하다죠[北波多町]의 '기시타케 옛 가마자리[岸岳古窯跡]'는 사가현 사적[佐賀縣史跡]으로 지정되어 있다.

기시타케에는 현재에도 가마자리가 남아 있으며, 두 개의 안내판에는 가마의 구조와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위의 안내판(그림35)은 전반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기시타케 옛 가라즈'라 부르는 '한도우가메[飯洞甕]'의 창시에 대하여는 가마쿠라(1192~1333) 말기 · 무로마치(1336~1573) 말기 · 게이쵸(1596~1615) 말기의 세 가지 설이 있다. 입증하는 특별한 자료는 없으나 현재는 무로마치 말기(1500년대)로 보는 설이 강하다. 가라즈 계통으로 가장 오래된 가마는 조선 북방계의 '사키다케식[割竹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2 2010-12-30 오후 3:4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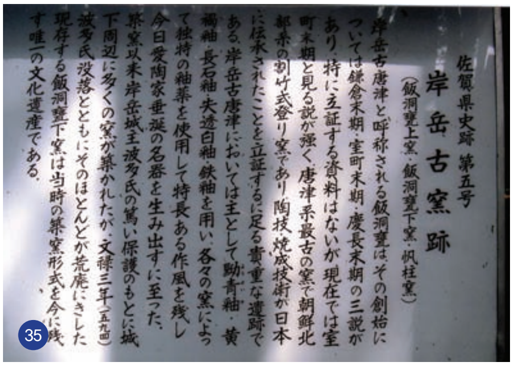


그림35 기시타케 가마자리[岸岳古窯跡] 설명판

그림36 기시타케 가마자리

그림37 한도우가메 시타가마[飯洞甕下窯跡] 설명판

그림38 한도우가메 시타가마[飯洞甕下窯] 출토 유물(九州陶磁文化館 소장)

式] 오름가마'로 도예 번조(燔造) 기술이 일본에 전승된 것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귀중한 유적이다 ……

가마를 차린 이후 기시타케 영주 하다씨[波多氏]의 두터운 보호로 성 아래 주변에 많은 가마를 차렸으나 1594년 하다씨 몰락과 더불어 대부분이 황폐해 버렸다. 현존하는 '한도우가메 시타가마[飯洞甕下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3 2010-12-30 오후 3:42:39

窯]'는 그때의 축요 형식(築窯形式)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문화유산이다.

안내판(그림37)에서는 가마의 구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임진왜란 이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름가마라는 의의는 동일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1592~1598)은 흔히 '도자기 전쟁(燒物戰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조선 사기장을 일본에 데려왔다. 그 뒤로 일본에도 오름가마로서 본격적인 도기(陶器) 생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기시타케[岸岳] 옛 가마터는 그 이전에 하다[波多]씨의 비호 아래 조선 사기장이 쌓은 가마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름가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 사기장들이 만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 가마는 임진왜란 이전에 영주 하다의 비호 속에서 이미 번창하였다. 그런데 하다 영주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협조하지 않아 1594년 영지를 몰수당하자, 조선 사기장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당시 인근 시이노미네에는 영주 데라자와 히로타카[寺澤廣高]가 나카자토[中里]·후쿠모토[福本] 등 사기장[陶匠]들을 후대하면서 도자기 사업을 영주의 식산산업으로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기시다케에 있던 사기장들도 상당수 시이노미네로 옮겼다. 그 중 나카자토 가문은 에이의 시댁이 되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에이가 시집간 시이노미네에는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에 온 조선 사기장들이 이미 있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4 2010-12-30 오후 3:42: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시이노미네 고려사(高麗祠)의 도리이 기둥 명문에서는 '옛날 신공황후(神功皇后)가 정한(征韓)하였다가 돌아올 때 사기장'을 데려왔다고 분식(粉飾)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5 2010-12-30 오후 3:42:39

미카와치의 나가하야마 가마

34 『平戶燒沿革一覽』, 1622년 조.

1622년 나카자토 에이[中里筴]는 가라즈의 시이노미네[椎の峰]에서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을 데리고 미카와치로 와서 나가하야마[長葉山]에 가마를 열었다.[34] 당시 나가하야마에는 1594년 기시타케[岸嶽] 가마에서 흩어진 사기장의 일부가 이미 정착하여 도기를 빚고 있었다. 에이가 이곳으로 온 것도 그의 남편 나카자토와 인연이 있었던 기시타케의 사기장들이 이미 나가하야마에 와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하야마 가마자리는 사세보시 미카와치 마을 223번지로, 미카와치 마을에 들어가는 왼편 해발 40~50m가 되는 낮은 산 귤밭 남쪽 비탈에 자리하였다(그림39). 1997년부터 사세보시 교육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 발굴 조사한 결과, 이곳에서 동서 2기의 층계꼴연방식오름가마[階段式連房式登窯]가 확인되었으며, 각 가마 오른쪽에 폐기장이 있었다(그림4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6 2010-12-30 오후 3:4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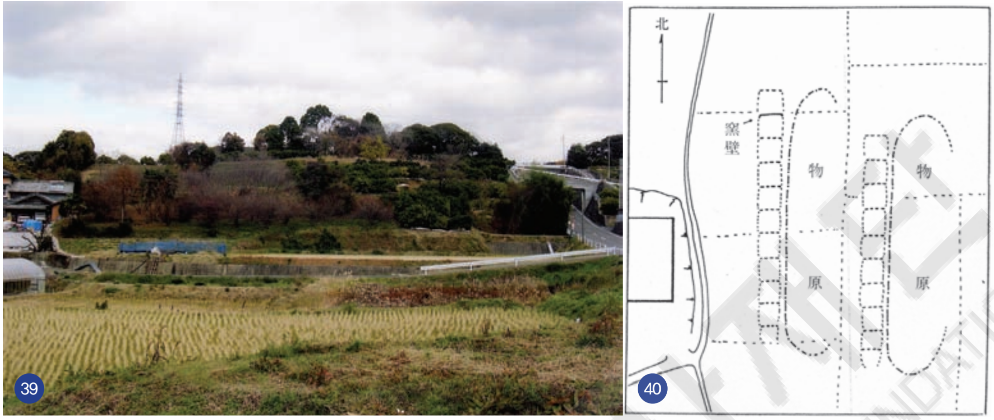


그림39~40 나가하야마의 가마 자리와 평면도(物原은 폐기장)

이 산에 있는 옛 가마터의 폐기장에서 질그릇 가마와 사기그릇 가마 등의 유물이 발굴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가라즈 계통의 질그릇에서 사기의 창시기를 거쳐서 미카와치 백자 전기에 해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16세기 후반 조선의 도예기술을 기초로 출발한 히젠지방[肥前地方 : 佐賀縣 · 長崎縣]의 요업(窯業)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계의 회유(灰釉) 도기(陶器)를 빚는 가마로 사기를 빚었다. 당초는 작은 규모로 시작한 사기 생산은 도토(陶土)의 대량 발견으로 도기(陶器)에서 자기(瓷器)로의 이행을 촉진하였다. 그때까지 분산 형태로 경영하던 질그릇 가마들은 원료 산지와 가까운 곳에 새로 차린 가마와 병합하여 사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1637년 사가(佐賀) 영지 안에서 이마리[伊万里] · 아리타[有田] 지방의 가마가 정리 · 통합되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35]

이와 같이 17세기 전반 히젠 지역에는 도기와 자기를 빚는 두

35 佐世保教育委員會(1999),『長葉山窯蹟發掘調查報告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7 2010-12-30 오후 3:4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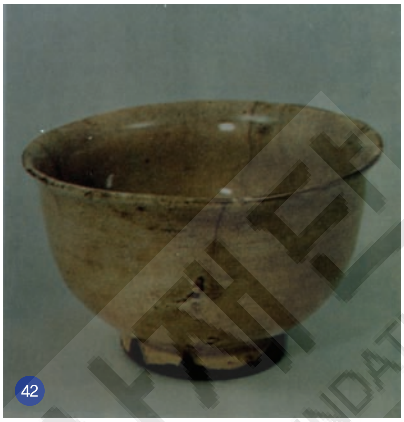


그림41 나가하야마 가마터의 출토품
그림42 웅천다완

집단이 있었는데, 도기 가마에서는 당시 환영받던 다도(茶道)의 영향을 받아서 차 모임[茶會]에 쓰이는 다기(茶器)를 많이 생산하였다. 당시 차 도구의 중심을 이루는 차사발(茶碗)은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던 잿물을 입힌 질그릇 사발로 '고려다완(高麗茶碗)'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나가하야마 가마터에서 차사발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그 모양은 주발 꼴로 보이는 조선의 '웅천형'이라 할 만한 것이 대부분이다(그림41~42).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8 2010-12-30 오후 3:4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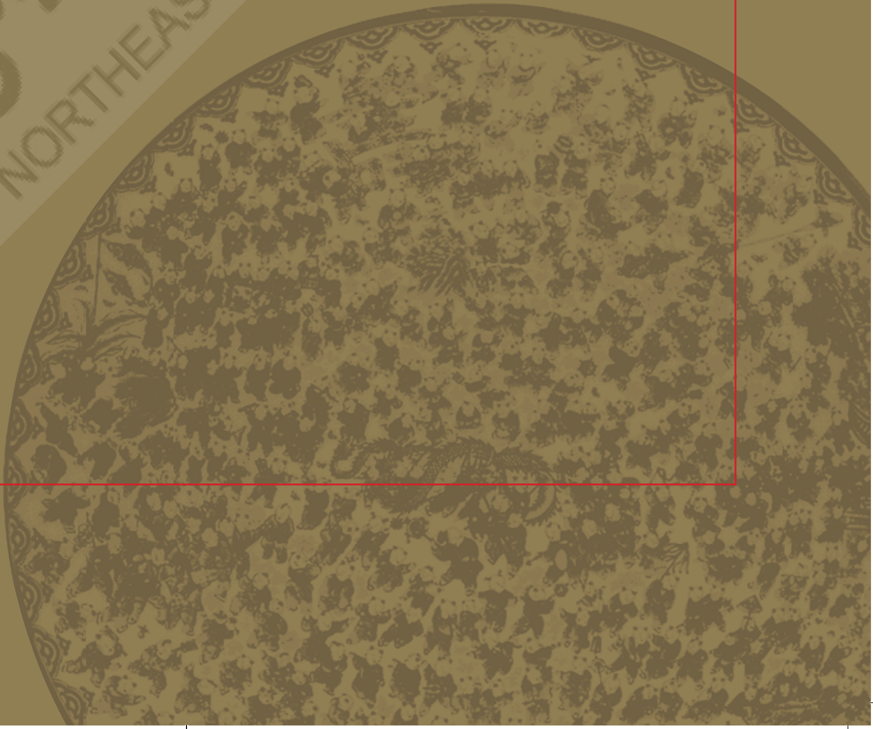
미카와치의 전성기

제1절 웅천 사기장의 합류

제2절 막부와 황실의 어용가마

제3절 대관소와 감시소

제4절 해외 수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69 2010-12-30 오후 3:42:4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0 2010-12-30 오후 3:42:42

웅천 사기장의 합류

1610년 히라도의 나카노가마와 고라이마치에서 헤어진 거관과 에이는 1622년 미카와치에서 다시 만났다. 에이가 먼저 시이노미네에서 미카와치로 와서 나가하야마에 가마를 열었다. 그녀는 검은 자기[黑燒]를 빚는 기능이 뛰어나더니 연구를 거듭하여 고려다완(高麗茶碗) · 말차다완(抹茶茶碗)을 빚었고, 이어 회색 자기[灰色燒]를 발명하고, 다시 적갈색 자기[朱泥色燒]를 빚어 내었다.[36]

미카와치에 먼저 와 있던 에이와 연결이 된 것인지 불명확하지만, 1622년 거관 역시 아들 산노죠를 데리고 미카와치로 왔다. 거관과 아들 산노죠가 이곳에 온 직후 가마를 연 곳은 요시노모토[葭の本]였으며, 12년이 지난 1634년 히라도 청자도자기[平戶燒靑磁]를 발명하여 영주 다카노부[隆信, 松浦家 28世]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미카와치 지역은 영주의 어용가마가 되었으며 본격적인 도자기 생산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36 『平戶燒沿革一覽』, 1622년 · 1629년 · 1632년 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1 2010-12-30 오후 3:42:42

그림43 미카와치 마을 원경

이처럼 거관과 에이가 미카와치로 이주하고 15년 뒤인 1637년, 히라도 영주 타카노부[隆信]는 도예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리오세무라 미카와치 본산[折尾瀨村三川內丸山 : 현 佐世保市 三川內町 丸山]에 거소를 정하고, 나가하야마에 가마를 차려 도자기 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하였다. 당시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두령(頭領) : 산노죠 마사이치[三之丞 正一].

화사(畵師) : 야마노우치 죠베에[山の內長兵衛]

마에타 도쿠자에몬[前田德左衛門].

불대장 :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

보조 : 후지모토 치자에몬[藤本治左衛門].

거나꾼 : 오키타 쿠베에[沖田久兵衛].[37]

이 임원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어용요의 핵심은 거관과 나카자토 에이 집안이었다. 가마 자리는 에이가 연 나가하야마에 있었으며, 제품의 질을 좌우하는 기술적인 중책인 불대장은 에이의 아들 나카자토 모에몬이 맡았다. 거관의 아들 산노죠는 두령을 맡아 전반적인 조직을 주도하였다. 그는 떠돌이 무사[浪士] 출신으로 화공이 된 야마노우치를 시이노미네에서 데려왔다. 또 다른 화공 마에타는 그의 장인이었으며, 시이노미네에서 조선 출신 사기장 오

37『平戶燒沿革一覽』1637년 조.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2 2010-12-30 오후 3:42:43

야마다 사헤[小山田佐平]를[38] 미카와치로 데려와 제자로 삼았다. 또한 영주의 화사(畵師) 호쿄 나오카게[法橋尙景]의 아우 다나카 요베에[田中與兵衛 尙俊]가 화공 야마노우치 쵸베에[山の內長兵衛]의 양자가 되어 미카와치에 왔다.

이처럼 체계를 갖춘 도자기 제조 공장의 설립을 계기로 미카와치는 히라도 자기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사기장과 기술자들이 집결하였다.[39] 1641년 영주[鎭信, 29세]가 미카와치 일대를 순시하면서 도예 기술의 진보와 정교함을 칭찬하고 산노죠를 불러서 새로이 '이마무라[今村]'라는 성을 내렸다.[40]

1643년 이마무라 산노죠[今村三之丞]는 영주의 허가를 받아 기하라산[木原山]과 에나가산[江永山] 두 곳에 분점을 두고, 오야마다[小山田佐平]를 기하라산에, 다쓰지로[辰次郞]를 에나가산의 담당자로 하고, 자신이 모두를 총괄하였다. 영주[鎭信]는 또 금품·밭·논 등을 내려 이를 격려하였다. 이로써 미카와치의 어용세 사라야마체제(三皿山體制)가 확립되었다.[41] 참고로 『미카와치 지구향 토사[三川內地區鄕土史]』의 부도(附圖)[42]에 수록된 '세 사라야마[三皿山]'와 나가하야마의 가마자리는 (그림44)과 같다.

38 이 사람은 요시노모토 가마자리에 무덤이 있는 조선 사기장 김구영(金久永)의 생질 박정의(朴正意)이다. 거관이 요시노모토에 있었음으로 거관과 그의 아들은 이들을 잘 알았을 것이다.
39 『平戶燒沿革一覽』 1637년 조.
40 『平戶燒沿革一覽』 1641년 조.
41 『平戶燒沿革一覽』 1643년 조.
42 三川內地區生涯學習推進會(1991), 『三川內地區鄕土史』.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3 2010-12-30 오후 3: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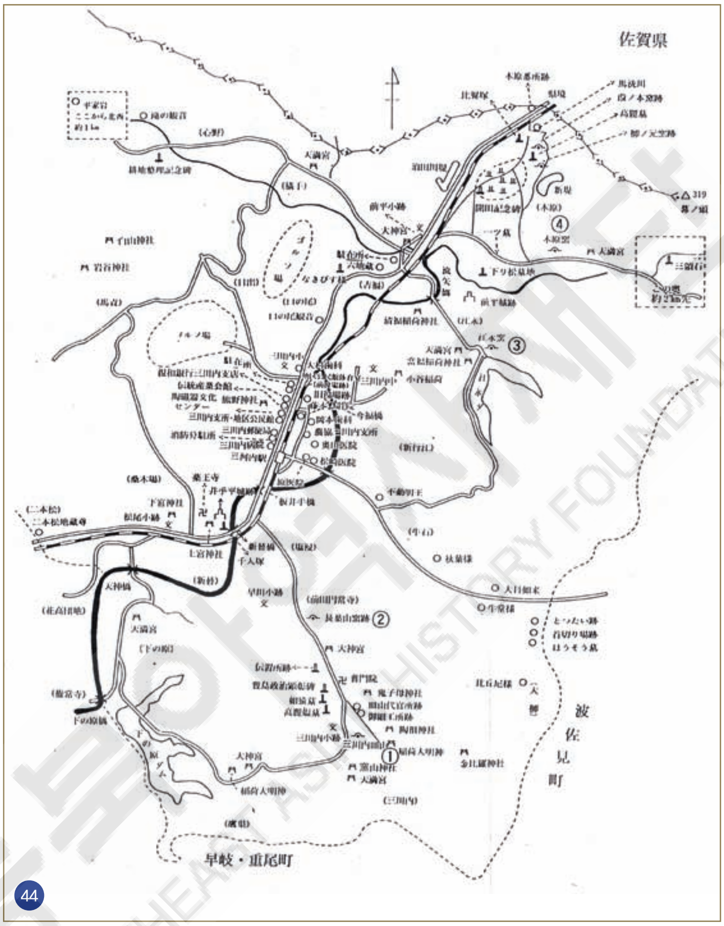


그림44 미카와치와 주변 가마 지도
① 三川内皿山 ② 長葉山窯蹟
③ 江永山皿山 ④ 木原山皿山 (『三川内地區鄕土史』 附圖)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4 2010-12-30 오후 3:42:45

막부와 황실의 어용가마

(1) 이마무라 야지베

1634년 거관의 아들 산노죠가 도예 기술을 연마하러 답사할 때 시이노미네에서 마에타 도쿠자에몬[前田德左衛門]의 딸과 혼인을 하여, 다음 해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이 성장하여 유명한 사기장 이마무라 야지베[今村彌次兵衛]가 되었다.[43]

야지베[彌次兵衛]는 1641년 7세 때 당시 구로카미산[黑髮山]에 있던 할아버지 거관(巨關)에게 가서 도예기술을 배웠다. 2년 뒤 구로카미산[黑髮山] 다이지잉[大智院]에서 거관이 88세로 사망하자, 야지베는 아버지 산노죠의 곁으로 돌아와 도예기술을 익혔다. 그는 아버지 산노죠가 개발한 종래의 자질(磁質)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1622년 구마모토현[熊本縣] 아마쿠사[天草]에서 더 좋은 원료를 발견, 구입하였다.[44] 시요(施窯)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는 마침내 순백의 뛰어난 자기를 빚어내어 크게 명성을 떨쳤다.

43 『平戸燒沿革一覽』, 1635년 조

44 『平戸燒沿革一覽』, 1662년 조. 아마쿠사는 영지가 달랐기 때문에, '야지베'는 이름을 '지로베에[次郎兵衛]'로 바꾸고 아마쿠사에 건너가서 도석장(陶石場)의 지주 우에타[上田]와 거래하여 양질의 도토를 구입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5 2010-12-30 오후 3:42:45

(2) 막부 어용가마

1664년 미카와치 자기의 명성이 일본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도쿠가와 막부의 어용가마가 되었고, 각 영주의 주문도 쇄도하여 공전의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45] 이에 영주[29대 鎭信公]는 이마무라 야지베[당시 나이 30세]를 불러 그 공을 칭찬하고, 신분을 100석의 오우마마와리[御馬廻][46] 수준으로 올리고, 꾸지나무 잎[梶の葉紋] 가문(家門) 문장(紋章)이 있는 삼베옷 한 벌, 철에 맞는 옷 한 벌[時服 1重], 그리고 산수화[常信筆山水畵] 1폭, 그 밖에 그림본 여러 가지를 내렸다. 이때 영주는 나카자토 에이도 불렀으나, 그녀가 늙었다고(당시 98세) 사절하자 영주는 그 자손에게도 어용(御用) 고려 도기 번조를 명하였다.[47] 1667년 이마무라 산노죠는 임진왜란 당시 웅천에서 끌려온 종차관(從次貫)의 후손 후쿠모토 야지우에몬[福本彌次右衛門]을 시이노미네에서 미카와치로 초빙하였다.[48] 이로써 경남 웅천에서 피랍된 조선 사기장 3대 가문은 모두 미카와치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었다. 1698년 당시 미카와치 세 사라야마[三皿山]의 임원은 〈표1〉과 같았다.

45 『平戶燒沿革一覽』 1663년 조.
46 우마마와리[馬廻]는 말을 관리하는 하급 무사.
47 『平戶燒沿革一覽』 1664년 조.
48 『平戶燒沿革一覽』 1667년 조.

표1 미카와치 세 사라야마 임원

교산부교(御山奉行)	다테이시 이자에몬[立石伊左衛門]
사라야마 대관[皿山代官]	이데 진고베에[井手甚五兵衛]
3 사라야마 대표	이마무라 야지베 죠엔[今村彌次兵衛 如猿]
어용 화가	다나카 요베에[田中與兵衛]
미카와치 촌장	구치이시 죠에몬[口石長右衛門]
5인 대표	가네우지 타자에몬[金氏太左衛門] 후루가와 진에몬[古川甚右衛門] 등

전거 : 『平戶燒沿革一覽』 1698년 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6 2010-12-30 오후 3:42:45

(3) 황실 어용가마

미카와치의 도예기술은 점점 호평을 받게 되고 명성을 떨쳐, 1699년 드디어 일본 황실의 어용요가 되었다. 미카와치에서는 영주의 각별한 보호 정책에 힘입어 청화(青華) · 상회자기(上繪磁器) · 양각 그림 · 조각 · 세공품 · 투조(透彫) 등 아주 정교하고 다양한 도자기를 빚어내었다.[49]

어용가마에서는 영주 · 막부 · 황실에 올리는 물건을 만들었으며, 영주는 그에 상당한 사례를 하였다. 금품과 피복, 미곡, 전답 등을 내렸으며, 신분도 격상되어 무사와 같은 대우가 되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었다.[50] 1702년 이마무라 야지베 쇼묘[今村彌次兵衛 正名]가 스님이 되어 영주[29대 鎭信]를 뵈었을 때, 영주가 특별히 '죠엔'[如猿]이란 호를 지어 주었다.[51]

일반적으로 왕실 등에서는 어용품을 받으면 (그림45)와 같은 수령증을 보내 왔다. 이를 해독 ·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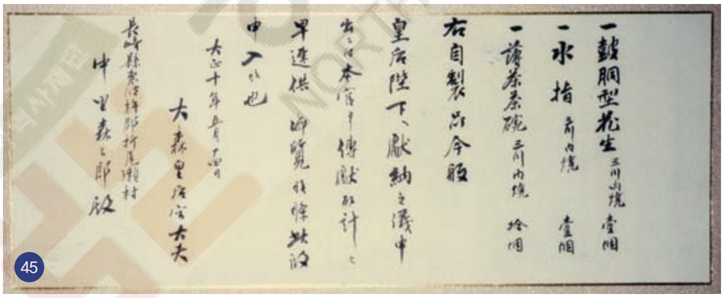

一鼓胴型花生 三川内焼 壹個
一水指 同上焼 壹個
一謹茶茶碗 三川内焼 拾個
右自製品今般
皇后陛下ヘ獻納之儀申
出之付本官ヲ經テ獻納取計ヒ
早速供御覧候條此段
申入候也
大正十年五月十四日
大森皇后宮大夫
長崎縣東彼杵郡折尾瀬村
中里森三郎 殿

그림45 진상품에 대한 황실 수령증(나카자토 이치로 소장)

49 『平戸燒沿革一覽』 1699년 조.

50 『平戸燒沿革一覽』 1637년 · 1643년 · 1664년 · 1671년 · 1698년 · 1791년 · 1842년 조.

51 쇼묘[正名]의 모습이 얼핏 보아 원숭이를 닮았기 때문에 여원(如猿)이란 호를 내렸다고 한다. 『平戸燒沿革一覽』 1702년 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7 2010-12-30 오후 3:42:45

1. 鼓胴型 꽃병 : 미카와치 도자기 1개

1. 물병 : 미카와치 도자기 1개

1. 薄茶다완 : 미카와치 도자기 10개

이 自制品을 이번에 황후 폐하께 진상하여 본관이 전해 올려 곧 보셨음을 알려드립니다.

1921(大正10)년 5월 14일

오오모리 皇后宮大夫

나가사키현 히가시소노기군 오리오세 마을

中里森三郎　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8　2010-12-30 오후 3:42:46

대관소와 감시소

미카와치[三川內], 에나가[江永], 기하라[木原] 등 세 곳에 가마를 열자, 히라도 영주는 사라야마에 대관소(代官所)를 두어서 연료나 제품의 관리를 하였다. 또한 1668년 히라도 영주[29대 鎭信]는 미카와치에 3,966.56㎡의 땅을 내려 어용품을 위한 세공소(細工所)[52]와 더불어 도예업에 관한 일체의 일을 관리하는 대관(代官) 사무소, 경비실[御番宅] 등 5동의 집을 새로 지었다. 2000년 10월 사세보시 교육위원회에서 발굴 조사한 결과, 대관 사무소 자리는 바로 이마무라 가의 주택임이 밝혀졌다.[53]

1699년 미카와치가 황실 어용요에 지정되는 등 명성이 천하에 자자해지자, 18세기 전반기 50~60년 동안 여러 영지의 사기장들이 변장하고 미카와치 세 사라야마에 잠입하여 비법을 염탐하려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대관은 경계를 더욱 엄하게 하고 제조 방법 일체를 비밀로 하였으며, 사기장도 장남 이외에는 비법을 전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어용품을 올린 뒤에 남은 여분은 판매를

52 細工所는 물레를 쓰지 않고 손으로만 빚어 만드는 도자기인 세공품(細工品)을 만드는 장소이다. 미카와치에서 초기 어용품은 손으로 빚었다.

53 佐世保史談會(2002), 『平戶藩御用窯總合調査報告書』, 182~18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79 2010-12-30 오후 3:42:46

54『平戶燒沿革一覽』, 1704년 조.
55『平戶燒沿革一覽』, 1846년 조.
56『平戶燒沿革一覽』, 1856년 조.

엄격히 금했는데, 대개는 깨뜨려 땅속에 묻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카와치에 침투하여 기법을 염탐하고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54]

이러한 체제 속에서 미카와치는 19세기 중반 어용 도자기는 물론, 여기저기의 상인들의 주문이 쇄도하여 최대의 번성기를 누렸다. 당시 미카와치에는 어용 기능인 18명, 요업 보조 51명, 적갈색 자기 전문 6가구 등의 전문가들이 있었으며, 도예업에 종사하는 이는 미카와치야마 300여 가구가 있었는데 기하라야마와 에나가야마를 합하면 500여 가구나 되었다.[55]

그 즈음 미츠다케[三ッ岳]의 흙을 밤중에 도굴하여 배로 실어내어 다른 영지의 도예업자에 전매하는 사람을 발견하자 영주[松浦家 36世 源曜公]는 미츠다케에도 감시소[御番宅]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1856년 감시소 건축 담당 다나카[田中記太夫]와 후쿠모토[福本脇右衛門]가 같이 힘을 써서 11월 감시소를 완공하였다. 또한 미츠다케의 흙을 채굴하여 하이기[早岐] 선창으로 운반하여 그곳의 창고에 저장하고, 다나카[田中記太夫]가 이를 감독하게 하였다. 미츠다케의 흙을 3등분하여, 가장 흰[上太白] 흙을 어용토로, 다음 흰[上白] 흙을 미카와치산, 그 다음 흰[下白] 흙을 기하라와 에나가 두 산에 두기로 결정하였다.[56]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0 2010-12-30 오후 3:42:46

해외 수출

19세기에 들어와 미카와치의 상인 오오노 게이쓰케[大野慶助]·오오노 진조[大野甚造]·나카자토 리스케[中里利助] 등은 나가사키에 오가며 네덜란드 사람과 무역을 시작하였다.[57] 당시 나가사키에 와 있던 네덜란드 상인들이 가장 선호한 것은 미카와치에서 빚은 달걀 껍질처럼 희고 얄팍한 커피 용구나 양주잔이었다.[58] 1904년 스튜어트 딕(Stewart Dick)의 『일본미술사(*Arts and Crafts of Old Japan*)』에서도 미카와치 도자기의 대표적 표징으로 가라코에[唐子繪]와 더불어 달걀 껍질처럼 얇은 도자기(난각지소, 卵殼地燒)를 거론하였다.

> 미카와치 도자기는 후기에 이르러 미묘한 청·백색의 달걀 껍질처럼 아주 얇은 도자기(eggshell porcelain, 卵殼地燒)가 유명하였다.[59]

57 『平戸燒沿革一覽』, 1804년 조.

58 미카와치에서 얇은 커피잔을 만든 시조는 이케다[池田安次郎]·다카하시[高橋平助]·나카자토[中里丑太郎]·후루카와[古川庄作] 등이었다(『平戸燒沿革一覽』,1830년 조).

59 Stewart Dick(1904), p.105.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1

2010-12-30 오후 3:42:46

그림46 달걀 껍질처럼 희고 얄팍한 양주 잔.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中里末太郎(1896~1986) 작

60 『平戸燒沿革一覽』, 1830년 조.
61 『平戸燒沿革一覽』, 1865년 조.

당시 이러한 난각지소(卵殼地燒) 번조를 주도한 것은 거관의 후예 이마무라 쓰치타로[槌太郎]였다. 그는 영주[松浦家 35世 源凞公]에게 보고하고 열심히 커피 용기를 만들었으며, 영주는 임원을 나가사키에 보내어 '히라도도자기거래소[平戸燒物産會所]'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60] 1865년에는 종차관(從次貫)의 후예 후쿠모토 에이타로[福本榮太郎]가 무역회사 '히라도도자기거래소'를 전담하였다.[61]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2 2010-12-30 오후 3:4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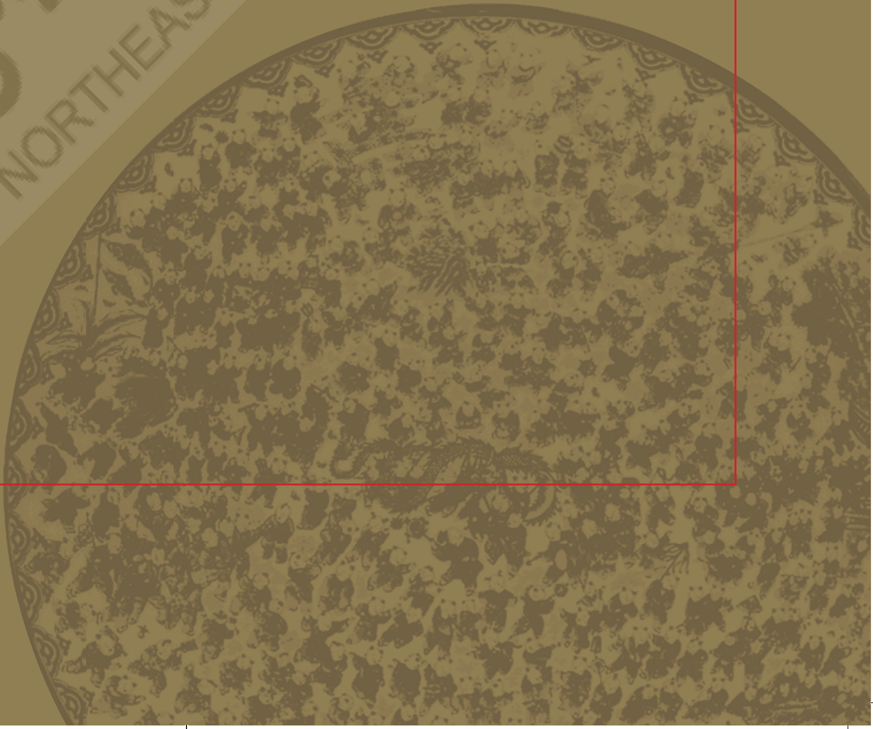
제5장

미카와치의 상징

제1절 가라코에와 조선 사기장

제2절 에이를 모신 가마야마신사

제3절 거관 집안의 웅천신사와 도조신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3 2010-12-30 오후 3:42: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4 2010-12-30 오후 3:42:47

가라코에와 조선 사기장

1904년 스튜어트 딕(Stewart Dick)은 미카와치 도자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 미카와치 도자기 중에서 가장 애호하는 의장(意匠)은 소나무 아래에서 노닥거리는 중국 어린이들 그림이다[唐子繪]. 가장 상등품으로 치는 것은 7명의 어린이, 중등품은 5명의 어린이, 보통의 것은 3명의 어린이가 그려져 있다.[62]

중국 어린이들이 소나무 아래에서 즐겁게 나비를 쫓으며 노니는 그림을 그린 자기를 '가라코에 도자기[唐子繪燒]'라 한다. 처음에는 길상이라고 하는 100명의 어린이가 무리지어 노는 그림인 '백자희희(百子嬉戱)'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어용품이 되고 난 이후 도자기에 그려지는 어린이의 수는 신분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였다. 어린이를 7명 이상 그린 도

62 Stewart Dick(1904), p.1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5 2010-12-30 오후 3:42:47

47

48

그림47 11명 당나라 어린이 그림꽃병 (마쓰라사료박물관 소장)
그림48 400 가라코에[唐子繪] 큰 접시 (1999년 작, 미카와치 도자기 미술관 소장)

자기는 황실이나 막부에 올리고, 5명의 어린이가 그려진 도자기는 영주에 납품되었으며, 3명의 어린이가 그려지면 일반인이 썼다.

〈그림47〉은 에이의 후손인 나카자토 미마타[中里己午太, 호 三猿, 1870~1941]의 작품으로, 11명의 어린이가 노니는 그림이다. 황실 진상품의 여분으로 빚은 것이나,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이라 박물관에 소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라코에[唐子繪] 도자기의 위쪽 입술 아래 두른 윤보(輪寶)의 영락(瓔珞) 무늬는 고려(高麗)를 의미하는 고(高)자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히라도 '고려묘비'의 고(高)자 문양과 같은 것으로 조선 도공이 만들었다는 표식이다. 그런데 조선 도공이 왜 중국 어린이가 노니는 모습을 그렸을까? 이와 관련하여, 피랍된 조선 도공들이 조국에서의 평화스런 어린시절 또는 어린이에 대한 그리움을 중국 어린이를 통해 간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6 2010-12-30 오후 3:42:49

그림49 중국 어린이 7명 그림모형 (미카와치 도자기 미술관 소장)

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63]

현재 이 고(高)자 윤보의 영락 무늬와 가라코에[唐子繪]는 미카와치 작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으로 되었다. 미카와치 도자미술관 어귀에는 고(高)자 윤보(輪寶)의 영락무늬가 있는 7명의 가라코에 큰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그림49), 전시관 내에는 무려 400명의 어린이가 나오는 가라코에 원형 접시가 전시되어 있다. '400 가라코에[唐子繪] 큰 접시'(그림48)는 1999년 나가자토 이치로(中里一郎)·나가자토 사네나리(中里實也)·히구치 타이치(樋口太一)·이마무라 테루조(今村輝三) 등이 미카와치 도자기 개요 400년 기념으로 5개월 30시간을 소요하여 빚은 것으로, 지름이 1m 1cm, 무게는 약 50kg이나 된다.

63 大畑三千夫(1992), 『平戸藩窯(三川内焼)と鶴峰園三猿』, 39쪽.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7 2010-12-30 오후 3:42:51

에이를 모신 가마야마신사

64 『平戸焼沿革一覽』, 1672년 조.

거관(巨關)보다 먼저 미카와치에 도요지를 연 에이[瑩]는 늙어서 조선에서 온 할머니를 의미하는 '고라이바바[高麗媼]'로 불리웠다. 그녀는 미카와치에서 산에 작은 사당을 지어놓고 조선의 가마신인 '니무네묘진[ニムネ明神]'이란 산신을 모셨다고 한다.

> 1672년(寬文 12)까지 조선에서 온 할머니(中里茂兵衛의 아내 에이)가 제관[祭女]으로 해마다 제사를 지내었으나, 할머니가 어느 날 말하되 "내가 죽으면 이 사당을 불태워라. 연기가 하늘로 오르면 조선으로 돌아가니 이 제사를 지내지 말고, 새로이 산신당(山神堂)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라. 만약 연기가 하늘로 오르지 않고 땅에 맴돌다가 사라지면 영원히 이 사당에 제사 지내어라"라고 하였다. 뒷날 할머니가 죽어서 사당에 불을 붙이니 연기는 하늘로 오르지 않고 사라져 이상히 여기고 영원히 제사지내기로 하였다.[64]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8 2010-12-30 오후 3:42:5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16~1731년 사이 어느 해 큰불이 나서 사당 좌우의 큰 소나무가 불타 없어졌다. 재앙이 두려워 지금의 산으로 천궁(遷宮)하여 '가마야마신사[窯山神祠 또는 窯山神社]'로 불리었다(그림50). '가마야마신사'에서는 해마다 네 번 제사를 올리는데, 그 중 11월 15일이 본제사날이다. 원래 제사 때에는 장구를 치며 주문을 외웠다고 한다.[65]

그런데『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 의하면 지금의 신사가 있는 당산[宮山] 지역을 "산바라게[さんばらけ(げ)]"라고 불렀다고 한다.[66] 이 '산바라게'에서 '산(さん)'은 일본어로 삼(三)을 의미하고, 한국에서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포(浦)를 '개'라고 하는데 '게[け(げ)]'와 발음이 유사하다. 본 조사단의 황정덕은 이러한 근거로 '산바라게[さんばらけ(げ)]'를 한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삼포(三浦) 마을로 비정하였다. 삼포 마을은 에이를 납치한 히라도[平戶]의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가 있었던 명동의 사화랑산 왜성과 아주 가깝다. 이러한 근거로 황정덕은 나카자토 에이를 '삼포할머니'로 부른다. 현재 미카와치 마을 안을 흐르는 시내의 이름이 웅천(熊川)인데, 이것 역시 창원시 진해구의 웅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세보(佐世保) 시에서 세운 안내판(그림54)에는 가마야마신사가 '부산신사(釜山神社)'라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나가자토 에이를 부산(釜山)에서 끌려온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67]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부산(釜山)'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비롯된 것으로 알았는데, 추가 조사에 의해 그것이 오래 전에 시작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가마야마신사의 선돌 신

65『平戶燒沿革一覽』, 1672년 · 1799년 조.

66『平戶燒沿革一覽』, 1791년 조.

67 김문길(1995),『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 혜안, 212~2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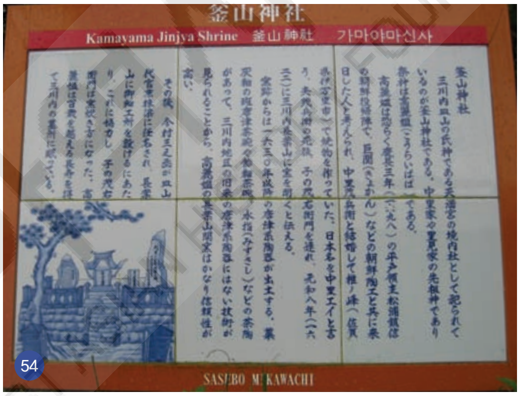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89 2010-12-30 오후 3:42:51

50

51

52

53



54

그림50 가마야마신사의 선돌 신위와 좌우의 기념비
그림51 1883년 구스모토[楠本孚嘉]가 찬하고 나카하야시[中林子達]가 쓴 釜山神社記 비
그림52 창요 300년 기념비
그림53 가마야마신사 개축비 표지석
그림54 釜山神社 안내판(최근)

위에는 '부산대명신[釜山大神社]'이라 새겨져 있고(그림50), 1883년 히라도의 저명 유학자 구스모토[楠本孚嘉]가 글을 짓고 저명한 서예가 나카하야시[中林 子達]가 아름다운 글씨로 쓴 '부산신사기(釜山神社記)'(그림51)에도[68] '부산(釜山)'으로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었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0 2010-12-30 오후 3:43:01

고려 할머니가 사망한 지 150~160년 이후 그 자손들이 신사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신사 이름을 부산신사(釜山神祠)라 하였다. 대개 가마를 부산(釜山)이라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부산(釜山)에서 취한 것이다(媼沒百五六十年 其子孫建祠祀之 名曰釜山神祠, 蓋俗謂陶窯 曰釜山 且取之韓之釜山).

여기서 부산(釜山)을 한국의 지명 부산(釜山)으로 읽기 쉽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취사용 가마[釜]와 도자기 가마[窯]를 구분하지만, 일본에서는 혼용하고 있다. 곧 일본어 '부(釜)'의 훈독은 가마(かま)로 도자기를 굽는 '요(窯)'의 훈독 가마와 같다. 그래서 가마야마신사에 세워진 여러 기념비들은 '窯山神社(祠)'와 '釜山神社(祠)'를 혼용하고 있다. 요컨대 '釜山神社(祠)'에서 부산(釜山)은 한국의 지역명 부산이라기 보다 가마마을(釜山)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918년 마쓰라 아츠시[源厚] 백작이 제호를 쓴 '창요삼백년기념지비(創窯三百年記念之碑)'(그림52)[69]와 선돌 오른편의 '가마야마신사개축비[窯山神社改築碑]'(그림53)에는 '가마[窯]' 또는 '가마야마[窯山]'로 되어 있다.

1672년 106세로 작고한 나카자토 에이의 유택은 마을 건너에 있는 가족묘지에 있었으나, 태풍으로 훼손되어 중건되었다(그림54). 묘비명은 불교식에 따라, 가운데 법명 '석존념묘서대자(釋尊念妙西大姉)'를 새기고, 오른쪽에 '간분[寬文] 12 병자천(丙子天)' 왼쪽에 "춘3월삭축(春三月朔丑)"이라 새겨 1672년 3월 사망하였음을 명기하였다.

68 「釜山神社記」를 지은 구스모토[楠本 孚嘉, 1832~1916]는 히라도 번사[平戶藩士]의 아들로 태어나 막부말기과 메이지시대 저명한 유학자가 되었다. 이 비문의 글씨를 쓴 나카하야시[中林梧竹, 1827~1913]는 히라도 인근 나베시마번[鍋島藩] 가신의 아들로 태어나 메이지 3대 서예가가 되었다. 그의 자가 자달(子達)이다. 「釜山神社記」의 비문의 글씨도 그림과 같이 조형미가 뛰어나다.

69 1918년 마쓰라 아쓰시[源厚] 백작이 제호를 쓴 「창요삼백년기념지비(創窯三百年記念之碑)」로 환산하면, 에이가 미카와치에 가마를 연 것은 1618년이 되어 『平戶燒沿革一覽』의 1622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1 2010-12-30 오후 3:43:01

거관 집안의 웅천신사와 도조신사

미카와치의 동쪽 산등성이에는 나카자토 에이의 가마야마신사[窯山神社]가 있었으며, 서쪽 산등에는 거관(巨關) 집안에서 '웅천명신(熊川明神)'을 모시는 웅천신사(熊川神社)가 있었다. 이 웅천신사에 대해서는 1779년 히라도 34대 영주 마쓰라 세이산[松浦靜山, 1760~1841]이 미카와치 일대를 순회하면서 거관의 후예 이마무라 집에 들렀던 경험을 남긴 『갑자야화(甲子夜話)』[70]에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그 개요는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에도 옮겨져 있다.[71]

> 내(34대 영주 源淸: 역자)가 1779년 히라도 본성을 떠나 영지의 변경을 순시하여 하이키[早岐, 미카와치]에 이르러, 산마을로 가서 이마무라의 집에서 쉬었다 …… 잔디 동산 가운데 작은 사당이 있었는데, 작은 도리이[鳥居]에는 '웅천명신(熊川明神)'이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내가 "이는 어떤 신이냐?" 물으니, 아무개가 "씨족신"이라 대답하

70 『甲子夜話』는 히라도 34대 영주 마쓰라 세이산[松浦靜山, 1760~1841]의 수필집으로, 원본은 마쓰라 사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일본 平凡社에서 출판되었다.

71 『平戶燒沿革一覽』, 1791년 · 1834년 조.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2 2010-12-30 오후 3:43:01

였다 …… 이마무라에게 조상을 물으니 조선 웅천 사람 거관(巨關)이라 하며, 그렇다면 웅천은 바로 이마무라씨가 태어난 나라의 씨족신이라 믿을 수 있다 ……

동산에는 자연산 잔디가 깔려 있고, 둘레에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는데, 가운데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런데 비스듬히 누워 있는 매화나무 가지에 표주박을 끈에 달아 놓았다. 내가 궁금하여 "저기 달아놓은 표주박은 무엇인가?"하고 물었더니, "산새가 와서 저 안에 삽니다"라고 하였다. "스스로 날아오느냐?" 고 다시 물으니 "스스로 날아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72]

55

그림55 웅천신사 그림(『갑자야화』 3편 11권)

그런데 이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832년 제35대 영주[源凞]가 미카와치에 와서 '웅천신사'에 대해 물어보니, 그 사당은 지금 없어졌으며 촌장도 모른다고 하였다.

1842년, 사기장 쓰치타로[槌太郎]가 1년전 하명 받은 어용품을 빚었지만 병으로 세공인 감독 다나카 기타유[田中記太夫]를 대리인으로 성에 납품하자, 전 영주[35대 源凞]는 가신의 우두머리인 야마모토 진자에몬[山本甚左衛門]를 통하여 만나게 하고, 각서(覺書)와 와카[和歌, 일본의 짧은 정형시]를 쓴 단책(短册)을 내렸다.[73]

72 『平戶燒沿革一覽』, 1834년 조. 이것은 『갑자야화(甲子夜話)』 속편(續篇) 77권을 간추렸다.

73 『平戶燒沿革一覽』, 1842년 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3 2010-12-30 오후 3:43:02

각(覺)

그 조상 죠엔[如猿]에게 옛날 한없이 입은 은덕을 세 사라야마[3皿山 : 三川內皿山, 江永山皿山, 木原山皿山]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자자손손 잊지 말지니, 그러므로 앞으로 도기(陶器), 만족, 기원소로서 죠엔다이묘진[如猿大明神]으로 우러러 받들고 제사를 지낼지어다.

1842(天保 13)년 임술(壬寅) 3월 9일. 源凞.

이에 따라 본산(本山 : 미카와치를 에워싼 산)의 서쪽 땅을 내려서 신사를 세워 '죠엔다이묘진[如猿大明神]'이라 모셨으며, 그 와카[和歌]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흙을 지키는 신이시여, 가마가 번영하도록 힘을 다해 기원을 올립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찾아가서 보아라, 귀신도 감동시키는 가사(歌辭)의 위력을.[74]

이리하여 원래 웅천명신을 모시는 웅천신사(熊川神社)는 없어지고, 이후 거관의 손자 이마무라 야지베[彌次兵衛] 곧 죠엔[如猿]을 대명신으로 모시는 도조신사(陶祖神社)가 새로 세워졌다.

1910년 거관(巨關)의 묘비와 유해를 구로가미산[黑髮山]에서 미카와치 본산(本山)에 옮겨 조상 3대를 같은 곳에 모셨다.[75] 이후 1917년 마쓰라 아쓰시[源厚, 마쓰라 38대] 백작이 '세 사라야마 개요 기념비[三皿山開窯記念碑]'를 세웠는데,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74 이 와카의 번역은 창원대 일문과 마치다[丁田隆] 객원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원문은 "ひたふるに山さかへよとわかわさをつくしていのれつちまほる神/わけいりてた連(れ)もみよかし鬼神もあはれとおもふことのはの道"이다.

75 『平戸燒沿革一覽』 1910년 조.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4 2010-12-30 오후 3:43:02

그림56 도조신사 안내판
그림57 도조신사 나들문

我第35世祖肥前守潶公賞今村氏第2世祖如猿開窯之功命其7世孫正日永祀如猿而勿怠焉上所刻之文卽是也今記其由爲記念言爾.

우리 제35세 조 히젠모리 히로무[潶] 공이 이마무라씨 제2세 조(祖) 죠엔[如猿]이 개요(開窯)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그 7세손에게 죠엔을 영원히 잊지 않고 제사 지내기를 명하였다. 이 일을 글로 새겨 둠은 옳은 일이라, 지금이라도 그 내력을 써서 기념한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5 2010-12-30 오후 3:43:0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6 2010-12-30 오후 3:4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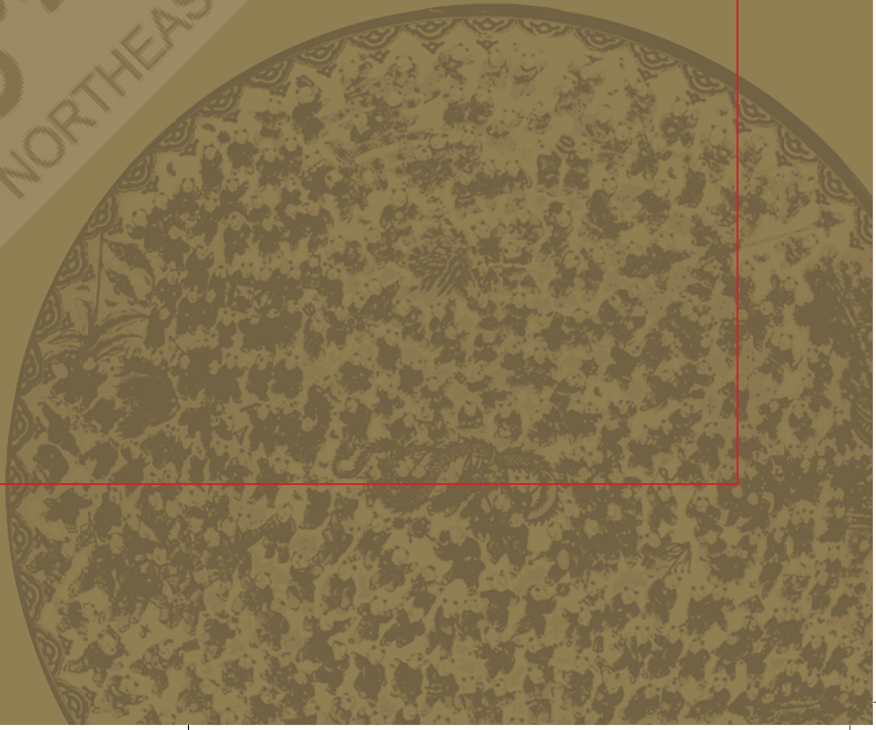
제6장

근현대의 시련과 재흥

제1절 메이지 유신과 민요로의 전환

제2절 현재의 미카와치

제3절 조선 사기장의 후예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7
2010-12-30 오후 3:43:0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8 2010-12-30 오후 3:43:06

메이지 유신과 민요로의 전환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 일어나고, 3년 뒤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니 어용요는 민요로 전환하였다. 미카와치는 어용요 시절 영주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어용품과 고급 민수품을 함께 생산하여 전성시대를 누렸으며, 명품을 빚는 도예가는 무사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871년 폐번치현으로 도예업을 보호해 주던 영주가 없어지자 미카와치에서도 스스로 자활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 그 활로는 첫째 개인이나 조직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 둘째 각종 전시회나 국제박람회 등에 출품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 셋째 체계적인 후진 양성을 하는 것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99 2010-12-30 오후 3:43:06

(1) 판로 개척

76 『平戶燒沿革一覽』, 1871년 조.
77 『平戶燒沿革一覽』, 1871년 · 1872년 · 1876년 · 1877년 · 1879년 · 1883년 조 등.
78 『平戶燒沿革一覽』, 1884년 조.
79 『平戶燒沿革一覽』, 1894년 · 1907년 조.

1871년 폐번치현이 되자 히라도의 마지막 영주인 37대 아키라[詮, 1840~1908]는 당시의 대관(代官) 후루카와 쵸지[古川澄二]에게 '히라도도자기거래소[平戶燒物産會所]'의 일체 업무를 물려주었다. 후루카와는 이를 인수하여 더욱 발전시키고자 후쿠모토[福本榮太郎] 등과 협의하여 만포잔상포(萬寶山商鋪)를 차리고 제품에는 '만포잔시에세이[萬寶山枝榮製]'라고 명기(銘記)하였다.[76]

1874년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가 숙부인 후루카와 쵸지[古川澄二]로부터 '히라도도자기거래소'를 물려받았다. 이후 도요시마, 나카자토 쇼노수케[中里庄之助], 이마무라 호쥬[今村豊壽], 나카자토 모리사부로[中里森三郞], 나카자토 도요시로[中里豊四郞] 등이 판로 확장에 노력하였다.[77]

1884년 이후 미카와치에서 빚은 청화 제품 등이 일본은 물론 외국인의 칭송을 받게 되어 판로는 점점 넓어졌다. 국내만이 아닌 영국, 미국, 기타 외국으로부터 연이어 주문이 들어와 도자기 판매의 해외, 국내 비율이 7 : 3에 이르게 되었다. 근대 초기 미카와치 도자기의 번조와 판매의 중심적인 인물은 도요시마[豊島政治]였다. 그는 1884년 경부터 도요타 구마사부로[富田熊三郞]와 협조하여 미카와치의 옛 대관 자리에 가게를 열고, 도쿄 · 요코하마 · 고베 · 나가사키 기타 각지에 제품을 팔게 되었다.[78]

1894년 미카와치 사기장들은 자기제조업조합(磁器製造業組合)을 조직하였으며, 1907년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를 사장으로 추대하였다.[79]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0 2010-12-30 오후 3:43:06

(2) 출품을 통한 인정 받기

폐번치현 이후 미카와치 사기장들은 각종 국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주요 성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미카와치 사기장들의 전시회 · 박람회 출품과 성과

연도	출품자	전시회 · 박람회 · 기타	수상 등 입상
1885	다나카 사쥬로 [田中佐十郎]	우에노 공진회 [上野共進會]	출품, 수상
1889	나카자토 모리사부로 [中里森三郎]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	출품
	구치이시 다케노수케 [口石丈之助]	황실 진상	허용됨
1890	이마무라 고쿠지로 [今村克次郎]	메이지[明治] 천황의 사세보 진수부(鎭守府) 방문	닭 모습 장식물 [太白鷄置物] 구입
	다나카 사쥬로 [田中佐十郎]		노송화(老松畵) 꽃병 1개, 궁내성에서 구입
	구치이시 다케노수케 [口石丈之助]	우에노공진회 [上野共進會]	3단 향로 1개, 2단 향로 1개 출품, 당일 외국인이 모두 구입 매진
	후쿠모토[福本源七]	마쓰라가[松浦家]의 동경 아사쿠사[淺草] 저택 내 어용요(御用窯)	담당으로 지정
1893		미국 시카고 박람회	출품
1895		교토 내국 권업박람회 [京都內國勸業博覽會]	출품
1899	후쿠모토[福本源七]	군마현[群馬縣] 군마군[群馬郡] 무로타산[室田山] 장명사(長命寺)	500나한(羅漢) 안치(뒤에 武藏國 安樂寺에 16羅漢, 信濃國 正安寺에 500羅漢, 東京 田端 興樂寺에 弘法大師像을 안치)
1900	이마무라 시카요시 [今村鹿吉]	황태자 성혼(成婚)	사세보시의 위촉으로 투각 향로 1기 올림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	출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1 2010-12-30 오후 3:43:06

1901		일본 요업 제1회 공진회	출품
1904	사토미 마사시치 [里見政七]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	총대로서 본산 조합에서 출품하여, 금패(金牌) 1등상 수상
1906	도요시마 세이지 [豊島政治]	영국 왕족 Prince Arthur, Duke of Connaught and Strathearn의 사세보 방문	미카와치 도자기조합을 대표하여 꽃병 3개 선물

전거 :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平戶窯沿革一覽]』, 1885~1906년 조.

(3) 의장전습소

1899년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 1852~1919]의 발기로 미카와치 685번지에 '도자기의장전습소(陶磁器意匠傳習所)'를 개설하였다. 도요시마는 미카와치 도자기 산업의 근대적 육성을 위해 1897년 나가사키 현 지사에 탄원하여 현의 지원을 받고, 유지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1899년 마침내 전습소를 개설하였다.[80]

전습소에는 도화과(陶畵科) · 제형과(製型科) 두 학과를 두었는데, 도화과에는 이미 있는 이마무라 호쥬[今村豊壽] · 나카자토 쓰치고타[中里己午太] 등과 더불어 동경미술학교 등에서 도안과(圖案科) 교사를 초빙하였다. 제형과에는 이미 있는 세공인 모로쿠마 시카타로[諸隈鹿太郞] · 후루가와 고메노수케[古川米之助] · 이케다 지키노수케[池田直之助] 등을 주임 교사로 임명하였다. 교사의 조직과 알선에는 간사 이마무라 토라노수케[今村寅之助]가 주도하였다.[81] 이처럼 거관의 후예인 이마무라 집안과 에이의 후손인 나카자토 집안이 전습소를 주도하였다.

80 木田三郎(1915), 「三川内陶磁器意匠傳習所と豊島政治翁の事蹟」, 5쪽.
81 『平戶燒沿革一覽』 1899년 조.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2 2010-12-30 오후 3:43:06

의장전습소는 1917년, 공업보습학교에 물려주고 폐소할 때까지 약 500명의 수료자와 총 18회, 약 2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의장전습소는 미카와치·에나가·기하라 등지의 도제 양성에 이바지함은 물론 미카와치 도자기의 형상도안 등의 의장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82]

그러나 의장전습소는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나카자토 쓰치고타[中里己午太]가 설립한 공업보습학교에 교육권을 이양하고 1917년 문을 닫았고, 공업보습학교마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반면 인근 아리타[有田]에는 요업대학이 설립되어 미카와치보다 후진 양성에 더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82 木田三郎(1915), 「三川内陶磁器意匠傳習所と豊島政治翁の事蹟」, 6~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3 2010-12-30 오후 3:43:06

현재의 미카와치

(1) 국가지정 전통공예품 시대

83 1950년 '미카와치 도자기 공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32년 '나가사키현 미카와치 도자기 공업조합'[83]을 설립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300년 전통을 가진 미카와치 도자기는 이후 깊은 침체기에 빠졌다. 미카와치 도자기는 1978년 일본의 전통공예품으로 인정 받은 것을 계기로 다시 회생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일본에서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傳産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78년 일본에서 아홉 번째로 '미카와치 도자기'가 통상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전통공예품'으로 인정받아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2) 전통산업회관 · 직매장 ·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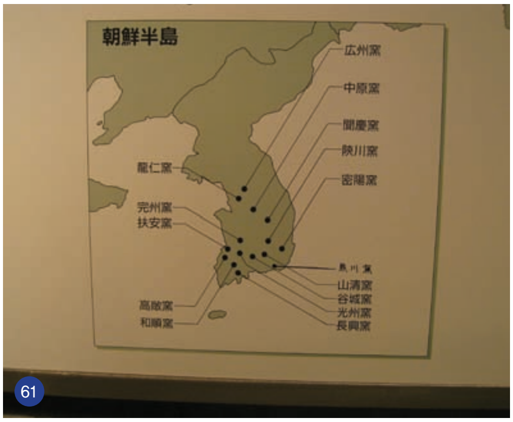
'국가지정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고 난 이듬해인 1979년 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4 2010-12-30 오후 3:43:06

그림58 미카와치 도자기 전통산업회관
그림59 미카와치 도자기 직매장
그림60 사세보시 용기(うつわ)역사관 앞모습

카와치는 '전통공예품 산업 미카와치 도자기 진흥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미카와치 혼마치[三川內 本町] 343번지 미카와치 소학교 자리에 '미카와치 도자기 전통산업회관(이하 회관)' 건설을 추진하여, 1982년 6월 개관하였다. 회관은 총 면적 1,542.69㎡로, 1층에 종합전시실 192㎡, 자료전시실 100㎡, 기술연수실 76㎡, 도서실 35㎡, 사무실 80.92㎡, 2층에 종합연수실 319㎡, 연수실 72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5 2010-12-30 오후 3:4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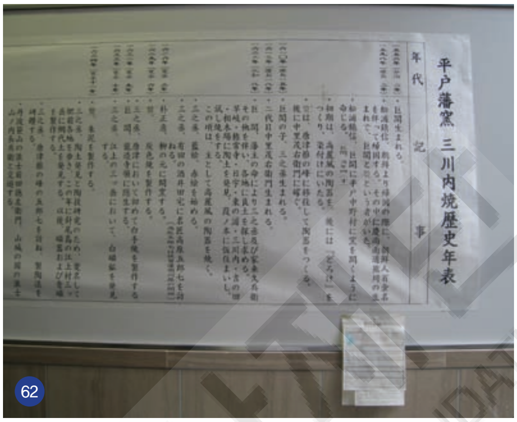


그림61 한국 도요지 지도
그림62 미카와치 도자기의 역사 연표

㎡ 등을 두었다. 회관은 '미카와치 도자기공업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84]을 위한 연수 등의 사업과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일본 전국의 도매상을 초청하는 특별전시도 하고 있다.[85]

종합전시실은 보통 '미카와치 도자기미술관[三川内焼美術館]'이라 불리며, 미카와치 도예가로서 희망을 하는 사람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009년 1월 6일 현재 26명의 도예가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회관의 부속시설로 직매장(그림59)과 '사세보시 용기(うつわ, 用器) 역사관'(그림60)이 있다. 직매장은 미카와치 도자기의 판매장 구실만 하고 있으나, '용기 역사관'은 도자기의 역사와 제조과정, 제도(製陶) 용구, 가마 모형 등이 전시되어 도자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1996년 7월 개관한 '용기 역사관'에는 사세보시 센푸쿠지[泉福寺]라는 곳에서 1만 2천 년 전에

84 조합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회비 부담이 있다.
85 이때 일반인의 관람은 허용되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6 2010-12-30 오후 3:43:14

빚었다고 추정되는 '콩알무늬토기[豆粒文土器]'를 비롯하여, 오래된 토기와 석기도 전시되어 있다. 콩알무늬토기의 비중이 워낙 중요해서 입구에는 역사관 간판보다 '豆粒文土器 大公開'가 더 큰 글씨이다(그림60).

역사관에 들어가면 일본 도자기의 원류인 한국 도요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지도에 최근 웅천요(熊川窯)가 추가되었으며, 역사 연표는 웅천 사기장 거관(巨關)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그림61, 6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7 2010-12-30 오후 3:43:14

조선 사기장의 후예들

1996년도 사세보시의 통계에 따르면 도예업을 하고 있는 가구는 미카와치 마을에 16가구, 에나가 마을에 6가구, 기하라 마을에 2가구, 미카와치 본정에 4가구, 기타 4가구였다. 또한 2005년도 가문별 통계에 의하면, 웅천 사기장의 후손으로는 거관의 후손이 22가구, 고라이바바[에이]의 후손이 33가구, 종차관[福本]의 후손이 27가구였다.[86]

86 佐世保市教育委員會(2008), 『歷史教育副讀本 : ふるさと歷史めぐり』, 130쪽.

(1) 도조 이마무라 가문과 축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족보가 없어서 후손과 직계 종손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미카와치에서 도조(陶祖)로 추앙되는 사기장 거관(巨關)을 시조로 하는 이마무라[今村] 가계를 추적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히젠도자사고[肥前陶磁史考]』에 의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8 2010-12-30 오후 3:43:14

하면 일단 10대까지 정리할 수 있었다.

초대(巨關 : 今村彌次兵衛. 1643년 사망. 향년 88세).

2대(正一. 三之丞. 1696년 사망. 향년 87세).

3대(正景. 彌次兵衛. 如猿. 1717년 사망. 향년 83세).

4대(好貞. 彌次兵衛. 1716년 사망. 향년 52세).

5대(正幸. 彌次兵衛. 1736년 사망. 향년 50세).

6대(正芳. 彌次兵衛. 1803년 사망. 향년 73세).

7대(正和. 楚八. 1838년 사망. 향년 88세).

8대(正文. 槌太郎. 1861년 사망. 향년 57세).

9대(正義. 楚八. 1879년 사망. 향년 45세).

10대(正方. 甚三郎. 1890년 사망. 향년 57세).[87]

2005년도 조사 집계에 따르면 미카와치 내에 살고 있는 이마무라 가구는 22가구가 된다고 한다. 가구 수는 다른 가문보다 많지 않으나, 이마무라 가문의 3대 죠엔[如猿]을 다이묘진[明神]으로 모시는 미카와치의 도조신사(陶祖神社)는 여전히 미카와치의 상징이 되고 있다.[88]

그림63 하마젠 축제 때의 제사 모습

도조신사를 세울 때 돌을 먼 하리오[針尾] 섬에서 가져와 정성

87 中島浩氣(1936), 『肥前陶磁史考』, 青潮社, 230쪽.

88 佐世保市教育委員會(2008), 『歴史教育副讀本 : ふるさと歴史めぐり』, 13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09 2010-12-30 오후 3:43:15

을 다하여 지었고, 원래 제일(祭日)은 3월 9일(如猿 忌日)이었고, 제사 때 앞에 소개한 영주에게 받은 각서(覺書)와 단책(短册)의 노래를 읊었다. 현재 미카와치의 도조신사(陶祖神社)에서는 해마다 5월 1일부터 닷새 동안 '하마젠[錢]' 축제를[89] 열고 있으며(그림 63), 10월에는 미카와치 전통미술관 광장에서 가을 도자기 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2) 에이의 후예, 나카자토 가문

2005년도 통계에 따르면 미카와치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나카자토 집안은 33가구가 된다고 한다.[90] 원래 에이[嫛]의 후손, 곧 나카자토[中里]의 가계는 2대 모에몬[茂右衛門]에게 다섯 아들이 있었다. 장남은 모에몬[茂右衛門]으로 습명을 하고, 차남 센우에몬[千右衛門]은 역시 성을 '나카자토'로 하였다. 3남 후지시치베에[藤七兵衛]는 뒷날 기하라산[木原山]의 담당자가 되어, 요코이시[横石]라는 성을 창씨하였다. 4남 고베에[五兵衛]는 성을 사토미[里見]라고 창씨를 하였다. 5남 진에몬[甚右衛門]은 성을 후루카와[古川]로 창씨하였다. 모두 분가하여 도예업에 종사하였다. 장남의 경우 5대까지는 같이 모에몬[茂右衛門]이라 습명하고, 6대는 몬에몬[紋右衛門], 7대는 후지고로[藤五郎], 8대는 후지시치로[藤七郎], 9대는 시게타로[繁太郎], 10대는 도쿠쥬[德壽]로 이어졌다.[91]

현재 나카자토가의 종손은 미카와치마치 889번지에서 '히라도 고오쇼단에몬가마[平戶洸祥團右衛門窯]'를 운영하는 나카자토

89 '하마'란 그릇을 가마에 넣어서 구울 때 그릇의 기형(器形)이 변하지 않도록 까는 밑받침으로 우리말로는 속칭 '개떡'이라고 한다. 이것은 돈처럼 동그랗고 작은데, 일본 아이들이 돈처럼 '돈놀이'를 하며 '하마 젠[錢] 놀이'라 한다. 이 독특한 이름으로 도자기 축제를 내세워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90 佐世保市教育委員會(2008), 『歷史教育副讀本: ふるさと歴史めぐり』, 130쪽.

91 『平戸燒沿革一覽』, 1672년 조 : 中島浩氣(1936), 225쪽 참고.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0 2010-12-30 오후 3:43:15

64

65

그림64 종손 니가사토 이치로우 가족과 공방
그림65 나카자토 츠치다의 작품

이치로우[中里一郎, 그림64]인데, 에이의 후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종중 일을 맡고 있었다.

나카자토 가문의 후손으로 사가[佐賀]현 타케오[武雄] 야마우치쵸[山内町] 오오아자 이누하시라[大字犬走]에서 향로를 전문으로 빚고 있는 츠치타 테루유키[辻田輝幸]는 그의 가계를 다음과 같이 자기 소개서에 밝히고 있었다.

> 2~3대는 모에몬[茂右衛門] 습명, 4대는 센에몬[千右衛門], 5~8대도 모에몬[茂右衛門] 습명, 9대는 몬에몬[紋右衛門], 10대는 후지고로[藤五郎], 11대는 후지시치로[藤七郎], 12대는 시게타로[繁太郎], 12대는 가메에[龜重], 14~15대 다시 모에몬[茂右衛門] 습명하였다. 15대는 자신인데 본명은 츠치다 테루유키[辻田輝幸]이나 역시 모에몬[茂右衛門]을 습명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1 2010-12-30 오후 3:43:17

그는 족보가 없어서 가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라이 바바의 직손인 것은 분명하다며 자긍심이 대단하였고, 본 조사단이 방문하였을 때에도 성심껏 안내하였다. 1999년 진해 · 웅천향토문화연구회(회장 황정덕)에서 마쓰라 시게노부의 종손, 마쓰라 아키라[松浦章]와 마카와치 도자기 미술관의 이사장, 아사이 토시쭈구[淺井利嗣]를 비롯하여 조선 사기장의 후손들을 초청하였을 때, 그는 경상남도와 진해시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고 동생의 가족도 같이 오는 성의를 보였다.

(3) 종차관의 후예, 후쿠모토 가문

종차관[從次貫, 福本家]의 가계, 즉 후쿠모토[福本] 가문은 1대 후쿠모토 야지우에몬[福本彌次右衛門, 從次貫], 2대 야이치[彌一, 彌次右衛門], 3대 히사노조[久之丞], 4대 기에몬[喜右衛門], 5대 오노에몬[斧右衛門], 6대 기자에몬[喜左衛門], 7대 사다베에[貞兵衛], 8대 우메노스케[梅之助], 9대 와키에몬[脇右衛門], 10대 기타로[喜太郎], 11대 겐시치[源七], 12대 나히치로[仁八郎], 13대 야부이치[數市], 14대 마사노리[正則]로 이어지고 있다.[92]

현재 미카와치에 살고 있는 후쿠모토 가문은 27 가구인데, 그 가운데 14대 후쿠모도 마사노리[福本正則]는 나가사키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부인[福本豊子]은 전통공예사이다. 부부는 옥천제도주식회사(玉泉製陶株式會社, 통칭 玉泉燒)를 경영하며, 과거 왕실 어용요로서 명품을 빚던 미술 도자기의 솜씨를 잇고 있다(그림

92 종차관의 가계는 『平戸燒沿革一覽』(1667년 조)에 10대까지, 나카시마 히로키[中島浩氣]의 『히젠도자사고[肥前陶磁史考]』, (靑潮社, 1936)에 11대까지 밝혀져 있는데 서로 약간 다르다. 본문은 『히젠도자사고[肥前陶磁史考]』에 의한 것이며, 『平戸燒沿革一覽』에는 8대 脇右衛門, 9대 喜太郎, 10대 源七로 되어 있다. 12대부터는 황정덕이 고증한 것이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2 2010-12-30 오후 3:43:18

그림66 후쿠모도 마사노리의 옥천요(玉泉燒) 전경
그림67 후쿠모도 마사노리의 3층 향로
(왼쪽은 일본 황태자 혼인 때 진상한 것, 오른쪽은 경상남도 미술관에 기증한 것)

66). 1999년 진해 · 웅천향토문화연구회에서 조선 사기장의 후예를 초청하였을 때, 3층 장식향로(裝飾香爐) 1점을 경상남도 미술관에 기증하였다(그림67).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3 2010-12-30 오후 3:43: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4 2010-12-30 오후 3:43:20

첨부자료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 해제 및 번역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 해제

○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平戶窯沿革一覽]』은 현재 히라도[平戶] 마쓰라사료박물관[松浦史料博物館]에 비장되어 있는 것인데, 2008년 5월 기다[木田昌宏] 관장(館長)의 배려로 본 조사단이 그 사본을 입수하였다.

○ 이 사료는 마쓰라백작가 편수소[松浦伯爵家 編修所]에서 1918년 유인물로 인쇄한 60쪽 분량으로, 웅천에서 끌려간 종차관(從次貫), 거관(巨關), 고려할머니(고라이바바, 나카자토 에이) 등 3대 사기장과 그 후예들의 활동을 비롯하여, 히라도 도자기의 발생과 성장의 전말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5 2010-12-30 오후 3:43:21

○ 이 사료를 통하여 임진 · 정유왜란 당시 경남 웅천에서 히라도로 끌려간 조선 사기장들이 일본에서 정착, 활약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곧 미카와치에 정착한 웅천 사기장의 작품들이 히라도 영주의 어용도자기, 일본 황실 어용도자기로 납품되었으며, 나가사키에 와 있던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서구로도 널리 전파되었던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 각종 박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전말을 잘 알 수 있다.

○ 이 사료들은 영주 측에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히라도 영주 마쓰라(松浦) 가문의 각별한 사기장 보호 정책과 도자기 산업 장려책을 잘 알 수 있지만, 사기장들의 애환과 육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없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조선 사기장의 일본 정착과 활약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매우 드물 것이다.

○ 이 자료들은 고어체의 일본어와 와카[和歌] 등의 일본문학이 구사되어 번역이 쉬운 것이 아니다. 본 조사단은 여러분에게 번역 자문을 구하였으나,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도 조선 웅천 출신 사기장들이 히라도에 정착하여 활약하는 역사적 사실(史實)을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이 없다고 생각한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6 2010-12-30 오후 3:43:21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 번역

서 문

세 가마마을[三ケ皿山 : 三川內 · 木原 · 江永][1]의 도자기를 '히라도 도자기[平戶燒]'[2] 혹은 '미카와치 도자기[三川內燒]'[3]라고 하여, 1615~1624년 즈음부터 이미 해외에 알려졌고, 또한 일찍이 중국에도 그 소문이 자자하였다.

분명한 것은 임진 · 정유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나고야[名護屋]에 대본영을 두고, 멀리 조선에 출정한 마쓰라 시게노부[松浦 法印鎭信][4]에게 사기장[陶匠]을 데려오게 명령하였다. 이에 마쓰라는 웅천(熊川)[5]의 사기장 종차관(從次貫)[6]을 나고야 대본영에 보내었다. 다음에 개선하면서 다시 사기장 거관(巨關) 등 100여 명을 데리고와 귀화시켜 히라도[平戶]의 나카노마을[中野村]에 가마를 차리게 하였다.

그 뒤 300여 년, 때에 따라 성쇠가 있었지만 여러 대에 걸쳐서 영주는 늘 도자기업을 보호, 장려하였다. 히라도에는 이제 40여 호의 도예가가 있고, 약 600명의 사기장이 있어서 한 해의 생산액은 20만 엔을 헤아려서 또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백작 난주(鸞洲)[7] 공은 '창요(創窯) 300년 기념비'를 찬하는 한편, 나에게 『히라도 도자기 연혁 일람』을 엮도록 요청하였다. 다행히 먼저 다카바시[高橋久滿治]씨의 저술인 『미카와치 요업 연혁사[三川內窯業沿革史]』가 있어서 거기에서 따고, 주워 탈고를 하였다.

1 三ケ皿山 : 웅천에서 끌려간 사기장들이 관계하여 가마를 차린 세 산을 말한다.

2 平戶燒 : 도자기의 이름은 그 빚은 곳의 이름을 따서 붙인다. 히라도[平戶島]는 1550~1641년 포르투갈 · 네덜란드 · 영국 등과의 무역항으로서 해외문화와 접촉하였다. 왜구의 근거지 중에 하나였던 이곳의 영주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는 임진 · 정유왜란 당시 조선에 쳐 들어와 사기장을 납치하여 히라도에서 "히라도야키(도자기)"를 빚게 하였다.

3 미카와치야키[三川內燒] : 히라도에서 사세보시(佐世保市) 미카나치[三川內]로 이주한 뒤에 구운 도자기를 말한다.

4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 : 임진왜란 때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휘하의 왜장으로 사화랑산에 남산왜성의 지성을 쌓아 머물렀고, 정유재란 때는 순천왜성에 머물렀던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의 영주이다. 두 차례 웅천 사기장과 주민을 납치하였다. 불교를 믿어 불승에 준(俊)하는 존칭 '법인(法印)'을 호로 사용했다.

5 웅천(熊川)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의 임란 때 고을 이름이다.

6 종차관(從次貫) : 우리나라 성에 '종(從)'씨는 없으니 우리말 표기가 자유롭지 못한 일본식 표기인 듯 싶다.

7 난주(鸞洲)는 히라도 38대 영주 아츠시[厚, 1864~1934]의 호이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7 2010-12-30 오후 3:43:21

뒤에 다시 사료를 얻는 데 따라 온전한 연표를 엮을 것을 기약한다. 독자들은 가르침을 아끼지 말아 달라.

1918년 무오(戊午) 맹춘(孟春) 길일(吉日)
마쓰라[松浦] 백작가(伯爵家) 문고(文庫) 낙세당(樂歲堂)에서
사토 도쿠쇼[佐藤獨嘯] 삼가 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8 2010-12-30 오후 3:43:21

본 문

마쓰라가(家) 백작 문고 편집

O 1598(慶長 3. 戊戌)

마쓰라 법인(法印) 시게노부[鎭信] 공[松浦家 26世 영주]은 아들 히사노부[久信, 松浦家 27世 영주]와 같이 정한(征韓)의 전쟁에 앞장섰다. 이후 24회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7년의 전쟁을 끝내고 웅천(熊川)의 도사(陶師) 거관(巨關) 등 100여 명의 한인(韓人)과 같이 돌아와, 히라도성[平戶城] 아래에 마을을 이루어 '고라이마치[高麗町]'라 일컬어 이들을 여기에서 살게 하였다.

이 해에 마쓰라 공은 거관으로 하여금 나카노 마을[中野村] 가미수키[紙漉]에서 요업(窯業)을 하게 하였다. 이 후 25년 동안에 걸쳐 고려풍[高麗手]을 주로 한 흰 자기[白手燒]와 니시키데[錦手][8]도 빛게 되어 '히라도 나카노 도자기[平戶中野燒]'라고 일컬어 좋은 평을 들었다. 생각건대 이들의 중요한 재료는 마쓰라 공이 조선에서 귀국할 때 수입하거나 혹은 뒤에 가져왔을 것이다.

그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고야 대본영에 있을 때에 마쓰라 시게노부[松浦法印鎭信] 공에게 명하여 도사(陶師)를 데려오게 하였다. 시게노부[鎭信]공은 특히 웅천의 도사(陶師) 종차관(從次貫)을 불러서 나고야[名護屋] 진중에 보내었다. 도요토미는 그곳에 가마를 차려서 다기(茶器)를 만들게 하였다. 공은 그 정교한 작

8 니시키데[錦手]는 도자기에 유약을 입혀서 초벌구이한 위에 화려한 금채(金彩)를 입히는 도예 기법이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19 2010-12-30 오후 3:43:21

품을 칭찬하여, 이름을 야지우에몬[彌治右衛門]이라 고치고, 성은 후쿠모토[福本]로 하게 하였다[寬文 7년(1667) 참조].

O 1610(慶長 15. 庚戌)

거관(巨關)이[9] 나카노에서 아들을 얻어 '산노죠 마사이치[三之丞正一]'라 이름하였다.

O 1622(元和 8. 壬戌)

시게노부[鎭信]공의 손자 다카노부[隆信, 松浦家 28世 영주]의 명령에 따라 거관과 그 아들 산노죠, 가신 구베에[久兵衛] 등이 영내를 답사하다가, 우연히 ① 히가시소노기군[東彼杵郡] 하이키 마을[早岐村] 곤조지[權常寺], ② 히우 마을[日宇村] 히가시노우라[東の浦], ③ 미카와치[三川內] 요신타[吉の田]와 ④ 야시코바[相木場] 등 네 곳에서 도토(陶土)를 발견하여, 이 해에 나카노 마을에서 미카와치[三川內]로 이주하여 요시노모토[葭の本]에서 가마를 열었다.

이 해에 가라즈[唐津] 시이노미네[椎の嶺]에서 '에이[嫛]'[음은 '에이' 또는 '이'. 영아(嬰兒)또는 추녀(醜女)를 의미하는 별명이다][10]도 미카와치의 나가하야마[長葉山]에 이주하여 요업을 시작하였다. 에이는 웅천 사람으로 거관과 같이 귀화하여 나카노의 사기장이었으나, 뒤에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11]에 출가하여 가라즈 시이노미네에 이주하였다. 1613년(慶長 18) 아들을 얻었다. 남편이 죽자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승계시켰다. 이 때 에이는 56세, 아들 시게에몬은 10살이었다. 에이는 고려계통의 검은 자기[黑燒]를 만드는 기예가 뛰어났다고 전한다.

9 일본인은 거관(巨關)을 '고세키'라 부른다.

10 여기서 에이[嫛]는 '앳되게 예뻐 보이는 여성'을 의미한다.

11 후손에게 확인한 결과 에이가 혼인한 남편은 中里茂兵衛였고, 그 첫 아들이 中里茂右衛門이었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0 2010-12-30 오후 3:43:21

O 1629(寬永 6, 己巳)

에이는 이미 고려다완(高麗茶碗), 말차다완(抹茶茶碗)을 만들었으며, 이 해에 회색자기[灰色燒]를 발명하였다.

O 1632(寬永 9, 壬申)

거관(巨關) 77세. 요시노모토[葭の本]를 떠나 류조시[龍造寺] 구로카미야마[黑髮山] 다이치인[大智院]의 존각법인(尊覺法印)에 귀의하여, 이 산에 은거하여 오로지 도기(陶器) 빚기에 전념하던 중, 쓰치에(つちゑ)라고 하는 곳에서 도토(陶土)를 발견하였고, 그것으로 만든 도기의 기술이 정교하고 뛰어났다.

O 1634(寬永 11, 甲戌)

에이는 점점 연구를 거듭하여 뛰어난 적갈색 자기[朱泥色燒]를 만들어내었다. 거관 역시 그 아들 산노죠[三之丞]를 격려하여 연구를 하는 한편 오로지 도토의 발견에 애를 쓰더니, 이 해 히가시소노기군[東彼杵郡] 에가미 마을[江上村] 미츠다케[三ッ岳]에서 백자광[白磁礦]을 발견하여, 흰 자기[白手燒]를 시험적으로 만들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가라즈의 시이노미네와 기타 지역의 원료를 섞어서 마침내 양질의 백자기를 만들어내었다. 또 청자를 발명함으로써 히라도 청자도자기[平戶燒靑磁]라 일컬어지며 크게 좋은 평을 받았다. 영주 다카노부[隆信] 공은 그 공을 치하하며 상을 주고 격려하였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1 2010-12-30 오후 3:43:21

12 나베시마 영지는 현재 큐슈 북부의 사가현에 속한다.
13 현 사세보시(佐世保市) 마카와치 마치(三川内町) 마루야마(丸山).

O 1635(寛永 12, 乙亥)

거관의 아들 산노죠 마사이치[三之丞正一]가 도예기법을 연구하러 시찰 답사를 할 때, 나베시마 영토[鍋嶋領]인[12] 수코모미 오카야마[須古籾岡山]에서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이 뒤에 유명한 사기장 이마무라 야지베[今村彌次兵衛] 죠엔[如猿]이다.

O 1637(寛永 14, 丁丑)

영주 다카노부[隆信] 공이 명령을 내려 오리오세무라[折尾瀨村] 미카와치[三川内] 마루야마[丸山][13]에 거소를 정하고, 나가하야마에 가마를 차려 도자기 제조장을 두게 하였다. 당시 임원은 다음과 같았다.

頭領 : 三之丞 正一

畵師 : 山の內長兵衛 · 前田德左衛門.

불대장 : 中里茂右衛門.

보조 : 藤本治左衛門.

거나꾼 : 沖田久兵衛.

마에타[前田]는 단바[丹波] 사사야마[笹山]의 떠돌이 무사[浪士]이며, 야마노우치[山の內]는 야마시로[山城, 京都]의 떠돌이 무사였는데, 둘 다 그림을 잘 그렸다. 산노죠는 시이노미네에서 이들과 장래를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이해 부하 오키타[沖田久兵衛]를 시켜서 둘을 데려왔다. 마에타는 나가하야마 변두리에 거처를 정하여 거기를 마에타[前田]라 일컫고, 야마노우치는 마루야마[丸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2 2010-12-30 오후 3:43:21

의 동남쪽 고타니[小谷]에 살았다. 둘 다 그림에 빼어나 어용화[御用畵]의 원조가 되었다.

또 영주의 화사 호쿄 나오카게[法橋尙景]의 아우, 다나카 요헤[田中與兵衛 尙俊]라는 사람이 야마노우치 초베[山の內長兵衛]의 양자가 되어, 화공들의 감독으로 이 해에 미카와치에 왔다. 또한 이 해에 산노죠는 시이노미네의 오야마다 사헤[小山田佐平][14]를 미카와치로 불러들여, 영주에게 간청하여 돈·쌀의 수당을 받게 하였다.

[今村氏가 남긴 책에서] 전하기를, 먼저 산노죠가 히라도에서 나와 제자 오야마다[小山田佐平]와 오키타[沖田久兵衛]를 데리고 연구 시찰을 다닐 때, 류조지 영[龍造寺領] 아리타[有田 南川原 : 현재 佐賀縣 有田]에 거관과 동향인 웅천(熊川) 사람으로 다케하라[竹原道庵]의 아들, 고로시치[五郞七]라는 사람이 지쿠젠[筑前 : 현 福岡縣]에서 이주하여 도예업을 하고 있었다. 산노죠는 백자[白手燒] 기법을 익히려고 날품팔이가 되어 일을 하다가, 뒤에 고로시치의 제자가 되었으나, 고로시치는 유약 만드는 비법을 비밀로 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고로시치가 유약을 배합할 때는 2층에 올라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산노죠는 비법을 알아내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고로시치가 잿물[土灰] 거르는 마지막 손질에는 언제나 여자 날품팔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노죠는 자신의 아내(前田德左衛門의 딸)에게 비법을 알아내게 하기 위해 유약과 재를 2층에 가져가기 전에 물을 헤아려 두고, 배합소에 가져가서 유약으로 쓴 뒤에 재의 나머지를 몰래 가져오게 하여 간신히 배합의 가감을 터득한 후 아내와 같이 그곳을 빠져나와 달아났다.

14 이 사람은 조선도공 김구영(金久永)의 생질 박정의(朴正意)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3 2010-12-30 오후 3:43:21

고로시치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잡으러 사람을 보냈으나, 부부는 2~3일간 산속에 숨어 잡히지 않았다.

뒤에 고로시치가 병으로 죽자 산노죠는 오무라 영[大村領: 현 長崎縣 彼杵지방] 나카오가와[中尾川] 내 사라야마[皿山 : 현 中尾山] 안에서 도토를 발견하여 이곳에 요업을 열었으나, 바탕이 흐리고 새하얗지 않았다. 그가 이곳에 머물고 있을 때 고야나기[小柳吉右衛門]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그 때에 히라도의 영주[29세손 뒷 鎭信 공][15]가 시카타[志方半之丞]를 시켜서 산노죠를 불러들였다. 이로 말미암아 이곳을 고야나기[小柳吉右衛門]에게 물려주고, 산노죠는 영주의 명에 따라 미카와치 마루야마에 거처를 정하고 나가하야마[長葉山]에 가마를 차렸다.

이 해에 영주가 산노죠를 세 사라야마[3窯山 : 三皿山]의 동량[(棟梁 : 대표자)겸 대관(代官 : 영주의 대행 지역 책임자)]으로 임명하여, 히로마사[廣正] 큰 칼 1구(口)와 아울러 봉토[知行所]로 야시코바[相木場] 일대를 내렸다. 또 야마노우치[山の內長兵衛]와 마에다[前田德左衛門]에게도 같은 봉토[知行所]를 내렸다.

O 1638(寛永 15, 戊寅)

에이의 아들 나카자토 모에몬[中里茂右衛門]이 아들을 얻어, 이름을 2대 모에몬[茂右衛門]으로 하였다. 2대 모에몬[茂右衛門]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다. 차남 센우에몬[千右衛門]은 역시 성을 '나카자토'로 하였다. 3남 도시치베[藤七兵衛]는 뒷날 기하라야마[木原山]의 담당자가 되었으며, 성을 요코이시[横石]라고 창씨하였

15 임진 · 정유왜란에 참전하여 거관 등 조선도공을 납치한 영주가 마쓰라[松浦] 가문의 26세 영주 시게노부[鎭信]인데, 29세 영주도 이름이 시게노부이다. 29세 시게노부를 뒷 시게노부라 칭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4 2010-12-30 오후 3:43:21

다.[16] 4남 고헤[五兵衛]는 성을 '사토미[里見]'라고 창씨하였다. 5남 징에몬[甚右衛門]은 성을 '후루카와[古川]'로 창씨하였다. 모두 분가하여 도예업에 종사하였다.

O 1641(寬永 18, 辛巳)

야지베[彌次兵衛, 如猿, 거관의 손자]가 7세 때, 구로카미야마[黑髮山]에서 거관에게 배웠다(1632년 참조).

이 해에 영주(뒷 鎭信公)가 순시하면서 도예업의 기술이 진보하고 정교함을 칭찬하고, 산노죠를 불러서 '이마무라[今村]'라는 성을 내렸다.[17]

O 1643(寬永 20, 癸未)

이마무라 산노죠[今村三之丞], 오로지 도예업의 발전을 꾀하여 영주(뒷 鎭信公)의 허가를 받아 기하라야마[木原山]와 에나가야마[江永山]의 두 곳에 지점을 두어서 오야마다[小山田佐平]를 기하라야마의 담당자, 다츠지로[辰次郎]를 에나가야마의 담당자로 하고, 산노죠가 모두를 총괄하였다.[18] 영주(뒷 鎭信公)는 또 금품 · 밭 · 논 등을 내려 격려하였다.

거관이 구로카미야마[黑髮山] 다이지잉[大智院]에서 사망하니 향년 88세였다. 구로카미야마의 못에 장사 지냈다. 거관의 손자 야지베[彌次兵衛, 如猿]는 아비 산노죠의 곁으로 돌아와 도예에 열중하였다.

16 근세 일본에서는 아들이 일가를 이루면 창씨를 할 수 있었다.

17 거관 가의 일본 성은 이 때 비로소 주어진다.

18 3곳의 도요지를 의미하는 미카와치 3 사라야마 체제(三窯山, 三皿山制)가 이때 확립되었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5 2010-12-30 오후 3:43:22

O 1658(萬治 元, 戊戌)

이마무라 야지베[今村彌次兵衛. 如猿]가 종래의 주소인 마루야마[丸山]에서 동남쪽, 대체로 2,000m 정도 떨어진 구구리이시[潛石]에 새 집을 지어 따로 살면서 도예업에 종사하였다.

O 1662(寛文 2, 壬寅)

이마무라 야지베에는 아버지 산노죠를 이어 따라 사기장이 되어 스스로 노력한 결과 종래의 자질(磁質)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아마쿠사[熊本縣 天草]에서 원료를 발견하고, 시요와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순백의 뛰어난 자기를 빚어내어 크게 명성을 떨쳤다. 전하기를 야지베가 지로베[次郎兵衛]라고 이름을 바꾸어 구마모토현[熊本縣] 아마쿠사 섬에 건너가서 도석장(陶石場)의 지주 우에다 아무개[上田 某]를 만나 거래를 계약하였다고 한다.

O 1664(寛文 4, 甲辰)

영주(뒷 鎮信公)가 도쿠가와가[德川家]에 올릴 진상품과 각 영주에게 보낼 납품으로 선정되어 공전의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영주(뒷 鎮信公)가 이마무라 야지베[당시 30세]를 불러들여 그 공을 칭찬하고, 100석의 신분인 오우마마와리[御馬廻][19] 수준으로 올리고, 가문(家門) 문장(紋章) 꾸지나무 잎[梶の葉紋]이 있는 삼베옷 상하 한 벌, 철에 맞는 옷 한 벌[時服 1重], 그리고 산수화[常信筆 山水畵] 1폭, 그 밖에 그림 본 여러 가지를 내렸다.

영주(뒷 鎮信公)는 또 에이도 불렀으나, 그녀는 늙었다고(당시 98세) 사절하였다. 그래서 그 자손에게 어용(御用) 고려 도기 번조

19 우마마와리[馬廻]는 말을 관리하는 하급 무사.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6 2010-12-30 오후 3:43:22

를 명하였다. 그 제품도 자기(磁器)와 마찬가지로 세인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이 해에 아마무라[今村], 야마노우치[山の內], 마에다[前田] 등이 발기하여 태신궁(太神宮)을 세웠다.

O 1666(寛文 6, 丙午)

이마무라 야지베가 아들을 얻어 야지베[彌次兵衛] 요시사다[好貞]라고 이름하였다.

O 1667(寛文 7, 丁未)

이마무라 산노죠와 시카타 한노죠[志方半之丞]는 서로 의논하여 가라즈 시이노미네의 사기장 후쿠모토 야지우에몬[福本彌次右衛門]을 초빙하였다(1598年 참조).

[후쿠모토 야지우에몬은 1608년 아들을 얻어 야이치[彌一]라 이름하고, 도요토미 사후 1613년(慶長 18) 시이노미네에 이주하여 활발하게 도예업을 경영하였다. 1623년 야지우에몬이 사망하였다. 아들 야이치는 그 때 나이 17세로, 아버지의 이름을 습명하여 야지우에몬[彌次右衛門]이라 개명하고, 오로지 도예에만 힘써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특히 고이차 다완[濃茶茶碗]을[20]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다. 이래서인지 미카와치에서 초빙하여, 이 해에 이사하였다. 3대 히사노죠[久之丞], 4대 기에몬[喜右衛門], 5대 오노에몬[斧右衛門], 6대 기자에몬[喜左衛門], 7대 사다베[貞兵衛], 8대 와키에몬[脇右衛門], 10대 겐시치[源七]에 이른다.]

20 일본 다도(茶道)에서 먼저 손님에게 올리는 진한 차를 고이차[濃茶], 마지막으로 올리는 차를 우스차[薄茶]라고 하는데, 고이차 다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7 2010-12-30 오후 3:43:22

O 1668(寬文 8, 戊申)

영주(뒷 鎭信公)가 명하여 세공소(細工所)와 대관 사무실을 두어서 도예업에 관한 일체의 일을 관리시켜 내외의 설비를 모두 구비하였다. 그리고 3,966.56㎡의 땅을 지정하여 세공소와 대관 사무소, 당직 집[御番宅] 등 5동의 집을 새로 지어 창 한 자루, 소매갈구리[21] 2자루, 쇠갈고리[鳶口][22] 2자루, 총 2자루 등을 갖추게 하고 나카타 덴베[仲田傳兵衛]가 당직자로 왔다. 이 해에 가네우지 다자에몬[金氏多左衛門]이란 사람이 와서 살게 되었다.

O 1672(寬文 12, 壬子)

에이[嫛]가 106세의 고령으로 타계하였다. 에이는 장부를 능가하는 호기(豪氣)와 기개가 있었다. 언제나 도예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늘 아들이나 젊은이를 격려하여 사람들이 '고라이바바[高麗媼: 조선에서 온 할머니]'라 하였다.

에이는 일찍이 작은 사당[釜山神祠]을 지어 산신 '니무네묘진[ニムネ明神]'을 모셨는데, 다음의 유언을 남겼다.

> 내가 죽거들랑 반드시 이 사당을 불태워라. 연기가 땅에 맴돌면 내 혼이 이곳에 머물러 도예업을 보호할 것이나, 연기가 하늘로 날아가면 내 혼은 조선으로 돌아간 것이다.

운명하고 나서 사당을 태우니 연기가 땅에 맴돌았다. 이리하여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 지내고 있다(1791, 寬政 3년 참조).

[2대 시게에몬[茂右衛門], 3대부터 5대까지 같이 모에몬이라

21 소매갈구리[袖がらみ]는 기다란 막대기 끝에 가시가 돋친 구부정한 쇠꼬챙이를 몇 개를 단 무기이다.

22 쇠갈고리[鳶口]는 막대 끝에 쇠갈구리가 달린 소방 용구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8 2010-12-30 오후 3:43:22

하고, 6대는 몽에몬[紋右衛門], 7대는 도고로[藤五郎], 8대는 도시치로[藤七郎], 9대는 시게타로[繁太郎], 10대는 도쿠쥬[德壽]로 이어졌다.]

신전각(申傳覺 : 이마무라 가의 기록)에 네번의 제사와 제물(祭物)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① 2월 15일 제사에 신주(神酒)와 안주를 올리다. ② 4월 8일 제사에 자반 안주를 올린다. ③ 5월 5일 제사에 신주(神酒)와 안주를 올린다. ④ 11월 15일 제사에 신주(神酒)와 안주를 올린다. 이날 조선 시루떡(志るしとぎ)을 올린다.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구전되었다.

네번 제사 가운데 11월 15일을 본 제사라고 전해 온다. 제사 때 신전(神前)에서 장구(チャンコ)라는 것을 어깨에 메고 주문을 외웠다. 그 장구는 예전 화재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흙으로 물고기 모양의 북[魚之鼓]을 만들어 아래 위로 종이를 두껍게 바른다. 길이 1척(尺) 5촌(寸),[23] 안쪽 크기[裡大サ]도 이와 같았다.

ㅇ 1673(延寶 元, 癸丑)

구로가미야마[黑髮山] 존각법인(尊覺法印)이 족자 한 폭을 야지베[彌次兵衛] 마사나[正名]에게 주었는데, "一勢至菩薩[24] 八十老尊覺筆(여든 살의 늙은 존각이 쓰다)"라 쓰여 있었다.

ㅇ 1692(元祿 5, 壬申)

영주(뒷 鎭信公)가 임시 어용 땔나무 산으로 아라히라[荒平], 사사노타니[笹の谷], 수미가마노타니[炭釜の谷] 등 세 곳 9,9174.0㎡를 내렸다.

23 1척(尺) 5촌(寸)는 45.45cm 정도이다.

24 세지보살(勢至菩薩)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脇侍菩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29 2010-12-30 오후 3:43:22

25 도자기에 유약을 입혀서 구운 표면에 다시 투명한 赤 · 紅 · 紫 · 黃 · 靑 물감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것을 '니시키쓰케[錦附]'라 하며, 이때 쓰는 물감을 상화약(上和藥)이라 한다.

O 1695(元祿 8, 乙亥)

미츠다케[三ッ岳]의 상화약(上和藥)[25] 사용을 미카와치 지역으로 제한하였다.(18436. 弘化 3, 참조)

O 1696(元祿 9, 丙子)

7월 9일. 이마무라 산노죠 마사이치가 마루야마[丸山]의 은택(隱宅)에서 타계하였다. 향년 87세.

O 1698(元祿 11, 戊寅)

11월 3일. 영주[뒷 鎭信公]가 산림 991.7㎢를 내리다. 당시의 임원은 오야마부교[御山奉行] 다테이시[立石伊左衛門], 사라야마[皿山] 대관(代官) 이데[井手甚五兵衛]. 세 사라야마 대표[三皿山頭] 이마무라 야지베, 어용 화사[御繪師] 다나카[田中與兵衛], 미카와치 촌장 구치이시[口石長右衛門], 5인 대표 가네우지[金氏太左衛門], 후루카와[古川甚右衛門] 등이었다. 아울러 기하라와 에나가 두 곳에도 영주가 산림을 내렸다.

O 1699(元祿 12, 己卯)

궁중[禁裏] 진상의 어용품 번조를 명받았다. 당시 청화백자[靑華], 니시키 쓰케[錦附], 양각 그림, 조각, 세공품, 투조(透彫) 등이 아주 정교하였다고 한다. 영주가 몇 대에 걸쳐 보호 장려한 결과일 것이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0 2010-12-30 오후 3:43:22

O 1702(元祿 15, 壬午)

이마무라 야지베가 승려가 되어 영주(뒷 鎭信公)를 뵈었을 때, 영주가 ‘죠엔[如猿]’이란 호를 내렸다. 아마도 이마무라의 모습이 얼핏 보아 원숭이를 닮았기 때문일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원숭이를 닮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였다.

O 1704(寶永 元, 甲申)

미카와치 세 사라야마[三ヶ皿山]의 명성이 천하에 자자하자, 1703~1754년, 약 50~60년 동안 여러 영지에서 변장을 하여 세 사라야마에 잠입하여 자기소지(磁器素地)의 조제법[調合法]을 탐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당시 대관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경계를 엄하게 하고 제조 방법 일체를 비밀로 하였다. 그러나 가마불 때기[窯燒]나 다른 일거리의 인부로 잠입하여 비법을 알아내어 야간 도주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그 대부분이 오와리[尾張, 현 愛知縣]와 미노[美濃, 현 岐阜縣] 지방 사람이라 한다.

당시 어용품의 제법(製法) 일체를 비밀로 하였으며, 사기장의 장남이 아니고는 일체 전수하지 않았다. 어용품에 제외된 나머지 물건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대개는 깨뜨려 땅 속에 묻었다.

O 1716(享保 元, 丙申)

6월 22일. 야지베 요시사다[彌次兵衛 好貞, 如猿의 아들]가 향년 51세로 별세하였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1 2010-12-30 오후 3:43:22

O 1717(享保 2, 丁酉)

3월 9일. 이마무라 야지베 죠엔[彌次兵衛, 正名 如猿]이 향년 83세로 사망하였다. 세 도요산에서 같이 모여 정중히 장사 지내었다.

O 1725(享保 10, 乙巳)

10월 9일. 하이키[早岐 大柳山]에 오무라[大村]에서 300~400명이 와서 벌목을 하였다. 미카와치 사람들이 제지하여도 떠나지 않아 미카와치도 같이 벌목을 하였다. 다음 날 10일에는 더욱 많이 왔다. 이쪽에서도 400명을 내세워 제지하여 양쪽이 철수하였다[家世年表].

O 1731(享保 16, 辛亥)

야지베 마사유키[彌次兵衛 正幸]가 아들을 얻어서 야지베 마사요시[彌次兵衛 正芳]라고 이름 지었다.

O 1736(元文 元, 丙辰)

6월 3일. 야지베 마사유키[彌次兵衛 正幸]가 향년 50세로 사망하였다.

O 1759(寶暦 9, 己卯)

야지베 마사요시[彌次兵衛 正芳]가 아들을 얻어 소하치 마사카즈[楚八 正和]라고 이름 지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2 2010-12-30 오후 3:43:22

O 1779(安永 8, 己亥)

영주[松浦家 34世 源清公]가 지방 순회를 할 때 미카와치 이마무라씨 저택에서 쉬었다(1791, 寬政 3 · 1834, 天保 5 참조).

O 1791(寬政 3, 辛亥)

6월 26일. 이마무라 야지베 마사요시[今村彌次兵衛 正芳]가 가마마을[窯山]의 연혁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아마도 영주(源清公)의 명령이었을 것이다. 그 개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이마무라씨 제출 문서에서).

(산노죠가 미카와치에서 가마를 열었다는 것을 말한 다음) 이후 아들 야지베[彌次兵衛]가 여러가지 세공품을 빚어서 바쳐 어용이 되어 포상으로 은과 쌀을 받았다. 그 뒤에 그림 자기 등도 바쳐, 에도[江戸]에 데려가서 100석 신분의 오우마마와리[御馬廻] 수준으로 올려졌다. 3代째 야지베[彌次兵衛]에게 10석과 두 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二人扶持]을 내리고, 20석의 새 땅도 내리다. 이것은 아버지인 죠엔[如猿]에게 토지를 주셔서 1686(貞享 3)년까지 개발하여 새 밭이 되었다. 4代째 야지베[彌次兵衛]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 이 사람이 세 도요지의 대관(代官) 역에 임명되었으나 다음 해에 사망하였다. (중략) 도자기 가마의 신을 '니무네묘진[ニムネ明神]'이라 하여 산신(山神)으로 모셨다. 1672(寬文 12)년까지는 조선에서 온 할머니(中里茂兵衛의 아내 에이)가 제관[祭女]으로 해마다 제사를 지내었으나 어느 날 말하되,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3 2010-12-30 오후 3:43: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내가 죽으면 이 사당을 불태워라. 연기가 하늘로 오르면 조선으로 돌아가니 이 제사를 지내지 말고, 새로 산신당(山神堂)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어라. 만약 연기가 하늘로 오르지 않고 땅에 맴돌다가 사라지면 영원히 이 사당에 제사 지내어라"

라고 하였다. 뒷날 할머니가 죽어서 사당에 불을 붙이니 연기는 오르지 않고 사라져 이상히 여기고 영원히 제사지내기로 하였다.

1716~1731년 사이에 이 가마의 윗부분에 큰불이 나서 사당 좌우의 큰 소나무가 불타 없어졌다. 장래의 재앙이 두려워 지금의 산으로 사당을 옮겼다. 지금의 당산[宮山] 이름 "さんばらけ('サンパウケ')"는[26] 한국어이다. '니무네묘진(ニムネ明神)'은 조선 도자기 가마의 신으로 산신을 모셨다고 전한다.

영주 源清公가 일찍이 미카와치를 순시하면서 들은 바를 다음과 같이 『갑자야화(甲子夜話)』 巻 57에 실었다.

"내 영지의 도자기를 히라도야키[平戸燒, 히라도 도자기]라고 부르고, 명산품이 되었다. (중략) 도장(陶匠)의 우두머리를 이마무라 아무개라고 한다. 매우 재산이 많다. (중략) 내가 지난해 영내를 순시할 때 그 집에 쉬면서 본 바 집도 깨끗하고, 마당에는 동산이 있어서 수석(樹石)의 경치가 좋았다. 그 동산 가운데 작은 사당이 있어서 도리이[鳥居, 신사의 출입문]를 세웠고 현판도 걸었는데, 거기에는 '웅천명신(熊川明神)'이라 쓰였더라. 나는 처음이라 미심적어 '웅천(熊川)'이 어떤 신이냐 물으니, 그가 '씨족신[氏神]'이라 하더라. '웅천(熊川, コモクイ)'

26 황정덕의 연구에 의하면 'さんばらけ'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마을이름 '三浦'에서 유래되었다. 三이 'さん', 浦의 한국어 훈독이 '개(け)'이다.

27 웅천(熊川)은 현재 창원시 진해구 웅천을 말한다. 한국의 곰내[熊川] 또는 곰개[熊浦]를 당시 일본인들이 'コモクイ'라고 읽은 것으로 보인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이[27] 조선의 땅이므로 아무개가 그곳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O 1803(享和 3, 癸亥)

9월 3일. 이마무라 야지베 마사요시[今村彌次兵衛 正芳]가 향년 73세로 사망하였다.

이마무라 소하치 마사카즈[楚八正和] 외에 세공인(細工人)들이, 영주[源淸 公]에게 죠엔[如猿]의 비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차남이나 3남에게도 장남과 같이 비법을 배우게 하고 새 가마를 지어서 연습시키도록 건의자, 영주가 허락하였다(1704. 寶永 元年 참조).

O 1804(文化 원, 甲子)

문화(文化) 문정(文政) 년간(1804~1829년) 미카와치의 상인 오노 게스케[大野慶助], 오노 진조[大野甚造], 나카자토 리스케[中里利助] 등이 나가사키[長崎]에 오가며 네덜란드 사람과 무역하였다.

O 1805(文化 2, 乙丑)

이마무라 소하치 마사카즈[楚八正和] 아들을 얻어서 쓰치타로 마사[槌太郎正]라고 이름을 지었다.

O 1810(文化 7, 庚午)

사토미[里見政右衛門]가 사라야마[皿山]의 촌장[庄屋]으로 임명되었다(이후 25년 동안 그 직책을 맡았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5 2010-12-30 오후 3:43:22

O 1830(天保 元, 庚寅)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사람이 미카와치의 커피 용기를 좋아하여 나가사키 상인이 와서 거래를 하였다. 이마무라 쓰치타로[槌太郎]가 영주(松浦家 35世 源熈公)에 상신(上申)하여 열심히 커피 용기를 만들었다. 영주는 임원을 나가사키에 보내어 ‘히라도도자기거래소[平戸燒物産會所]’를 설립하여 무역을 하게 하였다. 얇은 커피잔을 만든 시조는 이케다[池田安次郎] · 다카하시[高橋平助] · 나카자토[中里丑太郎] · 후루카와[古川庄作] 등이다.

O 1834(天保 5, 甲午)

현 영주(松浦家 35세 源熈)가 미카와치의 웅천신사(熊川神社)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전 영주(松浦家 34세, 源清)에게 말씀드렸다. 전후의 모습이 『갑자야화(甲子夜話)』 3편 11권에 극히 자세하여 간추렸다.

> 내(34대 영주 源清公: 역자) 영지에서 만드는 도자기를 세칭 ‘히라도 도자기’라 하며, 본성이 있는 히라도 섬에서 13리 떨어진 영지 내의 하이키[早岐]라고 하는 곳의 미카와치[三川內]라는 산마을에서 빚는다. 여기는 세칭 ‘이마리 도자기’가 나오는 이웃이다. ‘이마리’는 히라도와 같이 항구 이름이며, ‘이마리 도자기’를 만드는 곳은 내지의 아리타[有田]라는 산마을이다. 도자기가 이마리 항에서 팔려 나가기 때문에 ‘아리타’라 하지 않고 ‘이마리 도자기’라 하며, 이것은 하이키[早岐]의 도자기를 ‘히라도 도자기’라 하는 것과 같다.
>
> 이마리와 하이키[早岐 · 미카와치]는 작은 산을 경계로 인접해 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6 2010-12-30 오후 3:43:23

다. 비록 영지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산의 이쪽과 저쪽이다. 미카와치의 사기장을 지배하는 우두머리는 이마무라 아무개(이때는 彌次兵衛라고 하였을 것이다)로 대대로 이어졌다.

나(34대 영주 源淸公: 역자)는 1779년(安永 8) 히라도 본성을 떠나 영지의 변경을 순시하여 하이키[早岐]의 산마을로 가서 이 이마무라씨의 집에 쉬었다. 산에 있는 집이었으나 흉하지 않고 방도 넓었고, 추녀 밑에는 서까래가 보이고, 맞은편에 자연의 잔디를 동산처럼 다듬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 둘렀다. 이 잔디 동산 가운데 쯤에 작은 사당이 있다(상세한 것은 뒤의 그림을 참고하라). 그 앞에 작은 도리이[鳥居]를 세웠다. 여기에 '웅천명신(熊川明神)'이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내가 "이는 어떤 신이냐?" 물으니, 아무개가 "씨족신(氏族神)"이라 대답하였다. "씨족신이란 어떤 신이냐?" 물으니, 답하는 아무개는 원래 조선사람으로, 법인공(法印公 : 임란에 참전한 松浦鎭信)이 그곳(조선)에서 돌아올 때 종자(從者, 원문 : 御供)로 이곳에 따라 왔으며, 조선의 신을 모셔서 이 집의 진주(鎭主)인 씨족신으로 삼았다고 했다.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웅천(熊川, クマカハ)이란 조선의 지명 웅천(熊川, コモカイ)이며 씨족신이라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당 주변을 보니 매화나무 고목(古木)의 가지가 얽혀서 옆으로 누웠으며 그 가지에 끈으로 표주박을 달아 놓았다. 내가 이를 물으니 산새가 이 표주박에 와서 잔다고(이 일은 이미 77권에서 말하였다) 하여 진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요즈음(1834. 天保 5) 히슈(肥州 : 일본 사가 · 나가사키 · 구마모토현의 총칭) 지역 이야기가 나와서, 예전에 (34대 영주가) 말씀하신 미카와치의 이마무라 집에 있는 웅천사당에 대하여 재작년인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7 2010-12-30 오후 3:43:23

(1832. 天保 3년) 물으니, 그 사당도 현판도 없어졌다고 답했다. 히슈[肥州]에서 찾아보았지만 그 지역의 덴레[田令]나 리쵸[里長]들도 모두 모른다 하여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내가(34대 영주)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사당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은 참 개탄할 일이 아닌가. 돌아보건대 내가 순시했던 1779년(安永 8)으로부터 벌써 56년, 상전(桑田)의 변화도 인정할 만하다. 옛날이 그리우면 다음 그림에서 찾아 봐야 하네."

또 이마무라의 조상을 물으니 조선의 웅천 사람 거관(巨關)이라 하니, 그렇다면 웅천은 바로 이마무라 씨가 태어난 땅이다. 예전에 씨족신이라고 한 것도 믿을 수 있다. 또 이마무라는 내(34대 영주 : 역자)가 순시할 때는 야지베[彌次兵衛]라고 하였지만, 그 아들이 소하치[楚八], 다시 그 아들이 쓰치타로[槌太郎]로 야지[彌次]의 손자라고 들었다. 뜬 구름, 흐르는 물과 같은 세상 일에 슬픔을 참기 어려웠다.

살펴보니 『징비록(懲毖錄)』에 "웅천군은 경상도의 동쪽 바닷가의 땅, 부산포와 그리 멀지 않다"하였으니, 법인공(法印公)의 옛 일을 생각해 볼 일이다.(도면 생략)[28]

(다음 『갑자야화(甲子夜話)』 속편(續篇) 77 권을 간추렸다.)

교겐[狂言]의[29] 코마이[小舞][30]의 노래에

イタイケシタル者アリ, ハリコの顔 ヤヌリチゴシユクシヤ結ビニ, 笹結ビ, 山科 結ビニ 風車, 瓢箪ニ 舎ル山雀クルミニフケル友鳥, トラマダラの狗コロ, 起アガリ小法師, 振鼓手, マリヤヲドルハ小弓[31]

28 여기서는 『甲子夜話』에 수록되어 있는 웅천신사 그림은 본문 89쪽 그림55 참고.

29 교겐[狂言]은 일본 중세 민중 연극의 줄거리.

30 こ-まい[小舞]는 노[能]의 교겐[狂言]의 배우가 추는 짧은 춤.

31 이 こ-まい[小舞]의 노래 제목은 'いたいけしたるもの'이며, 귀여운 것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유파에 따라 시구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다 : いたいけしたる物あり、張子の顔や塗児衆、くしや結びに笹結び、山科結びに風車、瓢箪に宿る山雀(やまがら)、胡桃に耽る友鳥(ともどり)、虎斑の狗子(えのころ)、起揚がり小法師ふり鼓、手鞠や踊る毬小弓。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8 2010-12-30 오후 3:43:23

이 노래 가사 중에 알기 어려운 데는 우선 놔두고 “표주박에 머무는 산새, 곤줄박이”라는 말에는 생각나는 것이 있다. 지난해 영지의 갓마을 하이키[早岐]라는 곳을 순시할 때, 이 마을에는 사기장들이 사는데, 그 우두머리를 이마무라 아무개라고 한다. 그가 사는 곳은 산가(山家)여서 깊숙한 곳이지만 집도 넓고, 마당도 잘 만들어 기관(奇觀)이었다. 동산은 자연산으로 잔디를 심어 사랑하며, 여러 가지 나무가 곳곳에 있는 가운데, 오래된 매화 한 그루 옆으로 누워 있는데, 가지는 성겨도 끈으로 표주박을 달아 놓았다. 내가 주인을 불러 “저 달아 놓은 표주박은 무엇인가?” 물었더니 “저것을 달아놓으면 산새가 와서 저 안에 삽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스스로 날아오느냐”고 물으니,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스스로 날아 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옛날 풍속에도 그와 같은 일도 있었을 것이다. 과연 노래 가사의 귀여운 것 가운데 들어갈 만한 그럴듯한 풍정(風情)이리라.

O 1835(天保 6, 乙未)

이마무라 쓰치타로[槌太郎]가 아들을 얻어 소하치 마사요시[楚八 正義]라고 이름 지었다.

O 1838(天保 9, 戊戌)

11월 18일. 소하치 마사카즈[楚八正和]가 향년 88세로 사망하였다.

O 1840(天保 11, 庚子)

영주(35세 源熈公)가 특별히 황실에 진상할 어용품을 빚도록 명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39 2010-12-30 오후 3:43:23

령하였다. 세공인(細工人) 모두가 솜씨를 다하여 이에 열중하였다.

O 1842(天保 13, 壬寅)

영주(35세 源凞公)가 3월 9일자로 다음과 같은 각서(覺書)와 와카[和歌][32] 두 수를 내렸다.

각(覺)

그 조상 죠엔(如猿)에게 옛날 한없이 입은 은덕을 세 사라야마[皿山[窯山] : 미카와치[三川内], 기하라[木原], 에나가[江永] 세 산]에 살고 있는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감히 이것을 잊지 말지니, 그러므로 앞으로 도기만족기원소[陶器滿足祈願所]로서 죠엔 다이묘진[如猿大明神]으로 우러러 받들고 제사를 지낼지어다.

1842(天保 13)년 壬寅 3월 9일. 源凞.

이에 본산(本山 : 미카와치를 에워싼 산) 동쪽의 땅을 내려 신사를 세워 '죠엔다이묘신[如猿大明神]'이라 모셨다. 그 와카에 말하되,

흙을 지키는 신이시여, 가마가 번영하도록 힘을 다해 기원을 올립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찾아가서 보아라, 귀신도 감동시키는 가사(歌辭)의 위력을.[33]

ひたふるに山さかへよとわかわさをつくしていのれつちまほる神
わけいりてた連(れ)もみよかし鬼神もあはれとおもふことのはの道

32 각서(覺書)는 의견이나 약속 희망을 기록한 간단한 문서. 와카[和歌]는 일본 고유의 정형시로, 5·7·5·7·7의 5구(句) 31음으로 되어 있다.

33 이 와카는 창원대 일문과 마치다[丁田隆] 객원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0 2010-12-30 오후 3:43:23

이 해 지난 1840년(天保 11) 하명한 황실 진상품을 빚었는데, 쓰치타로[槌太郎]는 병이나 세공인 감독 다나카[田中記太夫]가 대리인으로 영주가 있는 히라도성으로 어용품을 가져왔다고 알렸다. 전 영주(35세 源凞公)때 행정책임자인 가로(家老) 야마모토[山本甚左衛門]를 시켜서, 앞서 언급한 각서(覺書)와 와카[和歌]를 쓴 단책(短冊)을 내렸다. 아울러 다나카[田中記太夫]와 이마무라[今村利右衛門]에게 꾸지나무 잎 가문 문장(紋章)의 삼베옷 아래위 한 벌을 내리고, 신분을 하급무사[中小姓]로 임명하였다. 또한 다른 세공인들에게도 모두 선물을 내렸다.

O 1843(天保 14, 癸卯)

하리오섬[針尾島] 오사키[大崎]의 돌로써 죠엔다이묘신[如猿大明神]의 신사를 짓고, 해마다 죠엔[如猿]의 기일인 3월 9일 제사지내는 것으로 정하고, 지난 해 영주(35세 源凞公)께 받은 각서와 단책의 노래를 읊는 것을 예로 하였다.

이 해에 앞의 미카와치의 요시노모토[葭の本]에서 한 개의 꽃병을 발굴한 바 "겐나[元和] 10년(1624, 寛永 元) 오야마다[小山田佐平]가 빚었다"라는 명기(銘記)가 있었다. 이를 영주에게 드렸다. 영주(諦乘公)는 수당으로 쌀 천 가마니를 내려 미카와치의 창고에 비치하게 하였다.

O 1846(弘化 3, 丙午)

기하라[木原]·에나가[江水]의 두 야마[山]에서 대관 가와부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1 2010-12-30 오후 3:43:23

치[川淵莊兵衛]에게 미카와치의 독특한 유약인 미츠다케[三ッ岳] 상화약(上和藥)의 배분을 요청해 왔다. 1695년(元祿 8) 죠엔[如猿] 대관 때에 이 약은 미카와치에만 한정하여 쓰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1844~1853년(弘化 嘉永 사이)에 어용 도자기는 물론, 여기저기의 상인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여 청화 자기, 적갈색 자기, 세공물 등을 열심히 빚었다. 당시 어용사기장기술자[御用人]는 18명, 요업 보조 51명, 적갈색 자기 전문집 6가구, 미카와치야마에 도자기집 300여 가구, 기하라야마와 에나가야마를 합하면 500여 가구가 되었다.

이즈음 미츠다케[三ッ岳]의 흙을 밤중에 도굴하여 배로 실어 내어 다른 영지의 가마에 판매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영주(松浦家 36世 源曜公)에 보고하여 감시소[御番宅]를 두기로 하였다[1856년(安政 3)을 참조].

O 1852(嘉永 5, 壬子)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가 태어났다.

O 1856(安政 3, 丙辰)

감시소 건축 담당 다나카[田中記太夫]와 가마 불때기 후쿠모토[福本脇右衛門]가 같이 힘을 써서 11월 감시소를 완공하였다. 또한 미츠다케의 흙을 채굴하여 하이키[早岐] 선창에 운반하여 그곳의 창고에 저장하고, 다나카[田中記太夫]로 감독하게 하였다. 미츠다케의 흙을 3등분하여, 가장 흰[上太白]흙을 어용토로, 다음 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2 2010-12-30 오후 3:43:23

[上白]흙을 미카와치산, 그 다음 흰[下白]흙을 기하라와 에나가 두 산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당시의 대관 시라카와[白川常次郎]가 풍속 교정에 힘써서 성과를 올렸다.

O 1861(文久 元, 辛酉)

6월 7일. 이마무라 쓰치타로(今村槌太郎 正文, 8대)가 향년 57세로 사망하였다.

O 1862(文久 2, 壬戌)

10월 19일, 이마무라 소하치(今村楚八 正義)가 아들을 낳아 진자부로 마사카타(甚三郎 正方)로 이름 지었다.

O 1864(元治 元, 甲子)

10월,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를 가마야마[窯山]의 촌장으로 임명하였다.

O 1865(慶應 元, 乙丑)

히라도도자기거래소[平戸燒物産會所] 담당자 후쿠모토[福本榮太郎]가 전적으로 무역에 종사하였다.

가네우지[金氏多三郎], 이마무라[今村常作], 모리토시[森利喜松] 등이 금란금부[金襴錦付][34] 두벌 구이[2度燒]를 시작하였다.

후루카와[古川又藏]가 어용 세공인이 되었다.

8월 4일, 영주(37世 源詮公)가 막부(幕府)에 문안드리며 조정

34 금난금부(金襴錦付)는 금이나 은빛의 무늬를 넣는 자기를 말한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3 2010-12-30 오후 3:43: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5 저자포[潮煮鮑] : 소금 간을 하여 조린 전복.

36 우마마와리[馬廻]는 말을 관리하는 하급 무사.

에 해마다 바치는 네 가지 가운데 올해는 미카와치 도자기와 전복 조림 저자포[潮煮鮑]를[35] 바치겠다고 알렸다.

12월 27일, 막부(幕府) 어용 담당에 "조정에 히라도 도자기를 바치겠다"는 취지의 품의서를 내었다(御用人日記).

미카와치 대관 역인 하급무사 하타하라[畑原一左衛門]가 면역원(免役願)을 내다. 미카와치 어세공(御細工) 수습 다카하시[高橋平太郎]가 수습을 면하고 녹로사(轆轤師)가 되었다. 하루에 쌀 5홉으로 두 사람을 기를 수 있는 보수의 신분이 내려졌다(大目付日記).

선박 관리 보좌역[御船手] 및 우마마와리[馬廻][36] 하시모토[橋本太次平]에게 미카와치 대관역을 허가하고, 히에시치[裴衛七]의 후임자로 명하였다(御用人日記).

O 1866(慶應 2, 丙寅)

5월 20일, 영주(37世 源詮 공)가 조정에 미카와치 도자기를 바쳤다.

O 1869(明治 2, 己巳)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가 도자촌의 촌장에 임명되었다(1864. 元治 元년 참조).

O 1870(明治 3, 庚午)

나카자토 미마타[中里 己午太]가 태어났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4 2010-12-30 오후 3:43:23

O 1871(明治 4. 辛未)[37]

옛 영주(源詮公)가 대관(代官) 후루카와[古川澄二]에게 '히라도도자기거래소[平戶燒物産會所]' 일체 업무를 넘겨주었다. 후루카와는 후쿠모토[福本榮太郎] 등과 협의하여 만포잔상포[萬寶山商鋪]를 차리고 제품에는 '만포잔시에세이[萬寶山枝榮製]'라고 명기(銘記)하였다.

O 1872(明治 5. 壬申)

이즈음부터 재벌구이 가마[本燒窯]를 15개 이하 5, 6개의 작은 오름 가마[小登]로 개량하였다. 종래는 30~40개의 큰 오름 가마였다.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아리타[有田]의 후카가와[深川榮左衛門]로부터 홍차다완(紅茶茶碗) 무늬자기 주문이 있었다. 모리토시[森利喜松]가 6가선화(六歌仙畵)[38]의 극히 치밀한 채색 도자기를 빚어서 좋은 평을 받았다(그 아들 宇三郎, 아우 榮四郎는 陶畵의 묘수로서 요업에 이바지한 바가 매우 크다).

O 1873(明治 6. 癸酉)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가 미츠다케[三ッ岳] 사기장의 대표 이사가 되었다.

O 1874(明治 7. 甲戌)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가 숙부 후루카와[古川澄治]의 뒤를 이어 도업에 종사하였다.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가 우편국(우체국) 설치를 출

37 이 해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현치(縣治)가 시작되었다(廢藩置縣).

38 六歌仙畵는 일본 平安시대의 6 歌人을 그린 그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5 2010-12-30 오후 3:43:23

원하여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O 1875(明治 8, 乙亥)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가 당산(當山)의 총대(總代)가 되었다.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아리타[有田] 후카가와[深川榮左衛門]의 주문이 있어서 만들기로 하였다.

O 1876(明治 9, 丙子)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가 제도업조합(製陶業組合) 대표가 되었다.

후쿠모토[福本竹太郎 : 榮太郎 차남]가 구마모토시[熊本市]로 이주하여 도자기 판매를 시작하였다. 특히 잔의 니시키 문양[錦付]으로 이곳에서 원조가 되었다.

O 1877(明治 10, 丁丑)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가 미카와치구[三川內區]의 작은 우두머리[小頭]로 임명되었다.

2월, 구치이시[口石茂太郞]가 하이키의 다치마치[立町]에 이주하여 도기상을 경영하였다.

O 1879(明治 12, 己卯)

구치이시[口石丈之助]는 구치이시가[口石家]의 7대의 손이다. 2대 죠우에몬[長右衛門]은 1684~1702년에 촌장[庄屋]이었다. 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6 2010-12-30 오후 3:43:23

치이시[口石丈之助]가 대마도[對州]에서 도토를 발견하였다(지금도 아직 중요한 원료이다).

이마무라 소하치 마사요시[今村楚八 正義]가 향년 45세로 사망하였다.

39 狩野派(かのうは)는 무로마치시대 狩野正信을 시조로 하는 일본 회화사의 최대 계파를 말하며, 土佐派(とさは)는 풍속 묘사를 주로 하는 일본화풍의 하나이다.

O 1882(明治 15, 壬午)

이마무라 호쥬[今村豊壽]가 무역 사업에 애써서 나가사키에서 활발한 거래를 하였다(豊壽는 이마무라家 방계 자손으로 어려서 墨畵를 좋아하여 앞서 영주 御用畵師 片山先生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狩野 · 土佐[39] 두 종류의 墨畵를 습득하여, 뒤에 영주의 어용을 배명하고 豊壽의 두 자를 내렸다). 구치이시[口石丈之助 : 口石家 7대 손]가 투조(透彫) 향로를 시도하였다(1884. 明治 17년 참조).

나카자토 모리사부로[中里家 傍系 9대의 손이다. 나카자토[中里丑太郎]는 얇은 커피잔을 만든 원조이다]가 나가사키와 한신[阪神]지방, 요코하마[橫濱] 등으로 판로 확장에 힘쓰며 무역에 종사하였다.

O 1883(明治 16, 癸未)

9월. 쿠스모토[楠本孚嘉]가 「부산신사기[釜山神祠記]」를 찬하였다.

O 1884(明治 17, 甲申)

6월.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가 흥산회사(興産會社)를 설립하여 대표자가 되었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7 2010-12-30 오후 3:43:24

구치이시[口石丈之助]가 지난 1882년(明治 15)부터 투조(透彫) 향로 빚기에 애를 써서 점점 일품(逸品)을 만들어 옛 영주(源詮公)에 올려 칭찬을 받았다. 후지모토[藤本恒太郎]는 자기로써 바둑돌을 처음으로 만들다[고타로[恒太郎]는 藤本家의 10대손. 선조 지자에몬[治左衛門]은 보조 가마 불때기[手傳窯燒]의 원조였고, 9대 구마지[熊治]는 1847~1853년에 적갈색 자기를 발명하였으며 1829~1843년 이래 나가사키 무역에 종사하였고, 메이지 초기(1868년) 이후 치밀한 다케마키[竹卷]를 발명하여 꽃병, 접시, 기타에 응용하여 좋은 평을 받았다].

이 즈음부터 청화 자기의 바탕이 뛰어난 것이 내외인의 칭찬을 받게 되자,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와 도요타[富田熊三郎]가 협력으로 미카와치 산의 옛 히라도 영주 대관 집에 상점을 열었다. 이후 도쿄,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그 밖의 각지에 제품을 판매하였다.

○ 1885(明治 18, 乙酉)

다나카[田中佐十郎]가 동경 우에노[上野]공진회에 출품하여 상을 받았다[佐十郎은 田中家의 방계 3대손. 아버지 數之助는 앞서 香蘭社의 위탁으로 박람회에 니시키즈케(錦付)를 출품하였다].

○ 1887(明治 20, 丁亥)

이 즈음부터 성형(成形)에 석고형(石膏型)을 썼다. 대개는 정밀한 소형(小形)에 응용하였다.

후쿠모토 가메타로[福本龜太郎], 제도업(製陶業)을 시작하였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8 2010-12-30 오후 3:43:24

[가메타로는 후쿠모토家 방계 5대, 에타로[榮太郎]의 아들. 대대로 요업에 종사하였으나, 가메타로에 이르러 나가사키에서 무역 거래를 하다가, 이 해부터 옛날로 돌아갔다. 아들 센키치[仙吉] 역시 제도업에 종사하였다].

O 1889(明治 22, 己丑)

나카자토 모리사부로[中里森三郎]가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였다.

3월에 구치이시 시게타로[口石茂太郎]가 사세보[佐世保] 권상장(勸商場)에서 도자기 소매점을 시작하였다. 5월 구치이시 죠노스케[口石丈之助]가 황실에 진상하고 싶은 뜻을 지사(知事) 구사카[日下義雄]에게 출원하여, 11월 14일 허용되었다(1890. 明治 23년 참조).

O 1890(明治 23, 庚寅)

3월. 메이지[明治]천황이 사세보 진수부(鎭守府)에 행차하실 때, 행재소 진렬품 가운데 이마무라 카츠지로[今村克次郎]가 출품한 닭모습 장식물[太白鷄置物] 하나를 사시는 영광을 누렸다.

구치이시 죠노스케[口石丈之助]가 지난 해 황실에 진상할 수 있게 되어, 근신하며 도자기 번조에 종사하여 올해 봄 구치이시 죠노스케가 현청(縣廳)에 출원하여 진상 절차를 마쳤다.

또 구치이시[口石丈之助]는 동경 우에노[上野]박람회에 3단 향로 1개, 2단 향로 1개를 출품하였으며, 진열 당일 외국인이 이를 구입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49 2010-12-30 오후 3:43:24

후쿠모토[福本源七]가 마쓰라가[松浦家]의 동경 아사쿠사[淺草] 저택 내에 있는 어용요(御用窯) 담당으로 명을 받았다(明治 27년에 사퇴함) (후쿠모토는 福本家 10대의 손으로, 어려서 손으로 빚는 세공을 좋아하여 이마무라 료사쿠[今村良作]의 제자가 되어 종량(從良)이란 호를 얻었다].

다나카[田中佐十郎]가 사세보에 진열한 노송화(老松畵)의 꽃병 1개가 궁내성에서 구입하는 영광을 누렸다(아들 治吉 역시 陶畵를 좋아하였다).

O 1891(明治 24, 辛卯)

나카자토 토요시로[中里豊四郎 : 3대 中里茂右衛門의 차남 五郎右衛門 7대 손], 자가(自家)의 제품을 한신[阪神]지방으로 판로를 넓혔다.

O 1892(明治 25, 壬辰)

사토미 마사시치[里見政七 : 中里家 방계 別家인 사토미 분가 4대의 손, 2대는 세에몬[政右衛門]이다. 1810, 文化 7년을 참조]가 제조가(製造家) 총대에 추선되어 영주가 내린 산림과 에가미마을 공장, 아울러 하이기항 원토(原土) 저장 창고 등 일체의 감독을 맡았다.

나카자토 요모사쿠[中里興茂作 : 中里家 방계 6대손, 2대 茂右衛門 이래 高麗도자기 御用의 명을 받다]가 마쓰라가[松浦家] 어용 도예의 명을 받았다(후계자 松次郎도 열심히 本山 固有의 唐子 그림을 습득하여, 唐子 도자기 전문으로서 호평을 받았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0 2010-12-30 오후 3:43: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 1893(明治 26, 癸巳)

미국 시카고 박람회에 출품하였다.

O 1894(明治 27, 甲午)

자기제조업조합(磁器製造業組合)을 조직하였다.

O 1895(明治 28, 乙未)

교토 내국 권업박람회[京都內國勸業博覽會]에 출품하였다.

O 1897(明治 30, 丁酉)

선염법[渲染法=ボカシ畫] 기타에 밀[蠟]을 쓰는 편법(便法)을 시작하였다.

옛 영주(源詮公)가, 히라도 쓰루가미네[鶴ケ峰]의 본저(本邸)에 가마를 열어 이케다 나오노스케[池田直之助]가 영주의 가마에서 어용을 임명받다[池田의 조상은 아이가미우라[相神浦] 사람으로 도미에몬[富右衛門]이라 하여 酒造家였다. 그 아들 덴쿠로[傳九郞]가 죠엔의 딸과 혼인하여, 뒷날 이주하여 도업에 종사하였다. 나오노스케는 8대손이다].

O 1899(明治 32, 己亥)

'도자기 의장(意匠)전습소'를 개설하였다. 발기인은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사토미[里見政七]·나카자토 리이치[中里利一]·이마무라[今村虎之助]·나카자토 미우마타[中里己午太] 등이며, 소장에 도요시마[豊島政治], 부소장에 사토미[里見政七]가 추선(推選)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1 2010-12-30 오후 3:43:24

40 盛上畵 : 일본 그림에서 흰 도료로 두껍게 떠오르게 채색하는 방법.

되었다. 그리고 도화과(陶畵科), 제형과(製型科)의 두 과로 하여, 동경미술학교(현 도쿄예술대학) 등에서 도안과(圖案科) 교사를 초빙하고, 이미 있는 화가 이마무라[今村豊壽], 나카자토[中里己午太 : 庄之助 장남] 등에 의해 고유의 화법(畵法)을 습득시켰다. 제형과(製型科)는 이미 있는 세공인, 모로쿠마[諸隈鹿太郞], 후루카와[古川米之助], 이케다[池田直之助]를 주임 교사로 하였다. 이마무라[今村寅之助 : 今村家 방계 6대손]는 알선에 진력하였다(그 아들 國三郞 역시 도화(陶畵)의 묘수였다). 후쿠모토[福本源七], 군마현(群馬縣) 군마군(群馬郡) 무로타산[室田山] 장명사(長命寺)에 500나한(羅漢)을 만들어 안치하였다(뒤에 武藏國 安樂寺에 16漢을, 또 信濃國 正安寺에 500羅漢을, 또 東京 田端 興樂寺에 弘法大師의 像을 같이 만들어 안치하였다).

O 1900(明治 33, 庚子)

황태자(皇太子) 전하(殿下) 성혼[御成婚]의 대전(大典)에 즈음하여 사세보시에서 바칠 향로 1개의 제조 촉탁을 받고, 삼가 빚어 올렸다. 기사(技師)는 이마무라[今村鹿吉]로 투조로 빚었다(今村家 방계 4대 손).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였다.

7월 14일, 이마무라 진자부로[今村甚三郞]가 향년 39세로 사망하였다. 히로이치[廣一]가 그 뒤를 이었다[甚三郞의 부인 이마무라 세키[今村セキ]는 오로지 사기장으로 종사하여 특히 모리아게에[盛上畵][40] 조각 등 조상 죠엔의 풍을 터득하여 뛰어난 기술을 보였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2 2010-12-30 오후 3:43:24

O 1901(明治 34, 辛丑)

일본 요업(窯業) 제1회 공진회에 출품하였다.

옛 영주(源詮公) 가쿠호우테이[鶴峰邸, 영주의 사저 : 역자]에 가마를 열어, 이마무라[今村六郎 : 今村家 방계 5대 손]가 영주 사요(私窯)의 어용으로 임명을 받다. 이마무라[今村六郎]는 도화(陶畵)를 좋아하여 호를 '효엔[表猿]'이라 내렸다(그 아들 猪吉 역시 陶畵를 좋아하였다).

O 1902(明治 35, 壬寅)

나카자토[中里己午太]가 '뿌리는 그림[振掛畵]'을 시작하였다. 옛 영주 마쓰라 아키라[松浦詮] 백작의 부름에 따라 나카자토[中里己午太]가 마쓰라가의 사요(私窯)를 담당하였다. 구치이시 죠노스케[口石丈之助]가 사망하였다. 긴타로[近太郎] 그 뒤를 이어 동경·요코하마·고베 등을 오가며 판매에 종사하였다.

O 1903(明治 36, 癸卯)

나카자토 세쥬로[中里政十郎 : 中里家 방계 6세손 永之助 實弟]가 군(郡) 가미하사미마을[上波佐見村] 도자기의장전습소의 초빙에 응하여 교사로 부임하였다.

O 1904(明治 37, 甲辰)

사토미[里見政七], 총대(總代)로서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에 모토야마[本山] 조합에서 출품하여 금패(金牌) 1등상을 받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3 2010-12-30 오후 3:43:24

나카자토[中里政十郎], 모토야마[本山]의 도화(陶畵) 교사가 되었다.

O 1906(明治 39, 丙午)

나카자토[中里己午太]가 공업보습학교(工業補習學校)를 창립하여 도화(陶畵) 및 제형(製型)의 도제(徒弟)를 양성하였다. 도화는 근대의 명인으로 일컬어지는 나카자토[中里己午太]가 맡았다[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영주 특설의 세공소(細工所)에서 직공 도제를 양성하여, 숙달도에 따라 돈 · 쌀을 주는 제도였다].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 미카와치 도자기조합을 대표하여 영국 아더 · 왕자(The Prince Arthur, Duke of Connaught and Strathearn) 일행이 사세보에 왔을 때 꽃병 세 개를 올렸다. 3월 30일 접대원[接伴員]인 궁중(宮中) 고문관 나가사키 쇼고[長崎省吾]로부터 받았다는 통지서가 왔다.

O 1907(明治 40, 丁未)

대소(大小) 제조가는 39가구로, 이 해의 생산액[製産額]은 20만 원에 이르렀다. 합자회사(合資會社)를 설립하여 도요시마[豊島政治]를 사장으로 추천하였다.

O 1909(明治 42, 己酉)

이 해의 통계로 제조가 수 39호, 직공 수 남 335명, 여 175명, 재료 산지는 아마쿠사석[熊本縣 天草石], 미츠다케석[長崎縣 三ッ岳石]이 있었으며, 가격은 아마쿠사석 1,000근에 8원, 미쯔오카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4 2010-12-30 오후 3:43:24

석 1,000근에 10원, 연료는 1,000근에 4원이었다.

재벌구이 가마[本燒窯]로는 일본식(日本式) 오름가마[登窯] 7에 51칸[間], 일본과 서양의 절충식[和洋折中式] 가마 2, 초벌구이 가마[素燒窯]로는 일본식 39, 적갈색구이가마[赤繪燒付窯] 30이었다. 생산액은 11만 3천 5백여 원. 제산품(製産品)의 종류는 꽃병, 향로, 거실의 장식물[床置物], 책상 장식물[机飾物], 다기(茶器), 주기(酒器), 식기(食器), 과자그릇[菓子器] 등이었고, 판로는 '요코하마 · 고베 · 나가사키' 등이었으며, 외국 판매 6/10, 도쿄 오사카 등 일본내 판매가 4/10이었다.

O 1910(明治 43, 庚戌)

거관(巨關)의 묘비와 유해를 구로가미야마[黑髮山]에서 모토야마[本山]에 옮겨서 조상 3대를 같은 곳에 모시게 되었다(1643, 寬永 20년 참조).

2월에 나카자토[中里政十郎]가 모토야마 우체국장에 임명되었다.

나카자토가 후쿠오카 공진회에 출품하여 상을 받았다.

O 1911(明治 44, 辛亥)

6월 1일, 황태자전하[皇太子殿下]가 도쿄 아사쿠사[淺草] 마쓰라 백작 저택을 방문하자 아츠시 백작[厚伯]이 큰 영광으로 여기고, 전하께 명품 집기[珍什]와 미카와치에서 빚은 물 향로[水香爐]를 바쳤다.

3월, 『미카와치요업연혁사[三川內窯業沿革史]』를 발간하였다. 저자는 다카바시[高橋久滿治](지난해 시월 기고를 하였다)이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5 2010-12-30 오후 3:43:24

O 1917(大正 6, 丁巳)

마쓰라 아츠시(厚) 백작이 『세 사라야마 개요 기념비[三皿山開窯記念碑]』를 찬서(撰書)하였다. 가로되,

我第35世祖肥前守凞公賞今村氏第2世祖如猿開窯之功命其7世孫正日永祀如猿而勿怠焉上所刻之文卽是也今記其由爲記念言爾.

우리 제35세 선조 히젠모리 히로무(凞) 공이 이마무라씨 제2세 죠엔(如猿)이 도요지를 연 것을 기념하여, 그 7세손에게 죠엔의 제삿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지내기를 명하였다. 이 일을 글로 새겨 둠이 마땅하여, 이에 내력을 써서 기념하고자 한다.

O 1918(大正 7, 戊午)

마쓰라 아츠시 백작이 또 청을 받아 「창요삼백년기념비(創窯三百年記念之碑)」의 9자를 찬서(撰書)하였다.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6 2010-12-30 오후 3:43:24

참고문헌

1. 자료

『宣祖實錄』

『亂中雜錄』

『西日本新聞』, 1994. 5. 19.

『朝日新聞』, 1994. 5. 19.

『今村家記錄 : 三川內燒物略記』, 松浦史料博物館 소장.

『平戶燒沿革 一覽』, 佐藤獨嘯 편(1918), 松浦伯爵家編修所 發行 (ガリ版), 松浦史料博物館 소장.

2. 보고서(報告書)

佐世保教育委員會(1999), 『長葉山窯蹟發掘調査報告書』.

佐世保史談會(2002), 『平戶藩御用窯總合調査報告書』.

佐世保市教育委員會(1975), 『江永古窯跡發掘調査報告書』.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7 2010-12-30 오후 3:43:24

佐世保市教育委員會(1982),『葭の本窯跡範圍確認調査報告書』
平戸市教育委員會(1994),『中野窯跡の發掘』.

3. 도록(圖錄)

佐世保市經濟部商工勞動課(1996),『三川內燒窯元巡り: 皿山三昧』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2004, 6판),『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綜合案內』.
佐世保教育委員會(1996),『三川內青華の世界 ： 三川內燒(平戸燒)の形と繪』.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2007),『秀吉と文祿・慶長の役』
佐賀縣九州陶磁文化館(2006),『土と炎(Earth and Fire)：九州陶磁の歷史的展開』.
朝日新聞社西部企劃部 編(2000),『はるかなる千年の歷史. 平戸・松浦家名寶展』.

4. 논저

김문길(1995),『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 혜안.

塙薫藏(1934),『平戸史蹟大觀』, 愛宕山莊.
岡部狷介(2000, 8판 : 1962, 1판),『史都平戸』, 松浦史料博物館.
高橋久滿治(1917),『三川內窯業沿革史』.
久村貞男(1988),「平戸藩領三川內の窯業創始期について」,『長崎の陶磁展』, 佐賀縣立九州陶磁文化館.
內藤雋輔(1978),『文祿慶長の役に於いて被虜人研究』, 東京大出版會.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8 2010-12-30 오후 3:43:24

大橋康二(2002),『日本やきもの有田伊万里』, 淡交社.

大橋康二(2003),『日本やきもの唐津』, 淡交社.

大橋康二(2004),『世界をリードした磁器窯』, 新泉社.

大畑三千夫(1967),『平戸藩窯』.

大畑三千夫(1992),『平戸藩窯(三川内燒)と鶴峰園三猿』.

木田三郎(1915),「三川內陶磁器意匠傳習所と豊島政治翁の事蹟」.

山口康夫(2006, 22판),『歴史の 平戸』, 平戸文化財研究所.

山口雅生(1979),『平戸燒繪譜』, 平戸燒研究會.

松浦厚 編(1884),『松浦法印征韓日記抄』.

佐世保市教育委員會(2008),『歴史教育副讀本:ふるさと歴史めぐり』.

佐世保市史編纂委員會(2002),『佐世保市史 : 通史編』上卷.

中島浩氣(1936),『肥前陶磁史考』, 青潮社.

中島浩氣(1954),『肥前陶磁史』, 肥前陶磁史刊行會.

中島浩氣(1989),『肥前平戸燒讀本』, 創樹社美術出版.

中島浩氣(1993),『魅惑の古平戸燒』, 創樹社美術出版.

中島浩氣(1997),『平戸燒細工物』, 創樹社美術出版.

中村幸言 外(1978),『甲子夜話』4, 日本: 平凡社.

Stewart Dick(1904), *Arts and Crafts of Old Japan*, T. N. Foulis, ltd, Edinburgh & Lond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indd 159 2010-12-30 오후 3:43:25

찾아보기

ㄱ

가라코에[唐子繪] 81, 85, 86, 87
가마야마[窯山] 91
가마야마신사[釜山神社] 41, 89, 92
감시소 80
갑자야화(甲子夜話) 92, 136, 138
거관(巨關) 29, 45, 46, 48, 50, 55, 56, 71, 75, 88, 93, 94, 102, 107, 108, 115, 117, 119, 120, 121, 123, 125, 138, 155
고(高)자 40, 86, 87
고라이마치[高麗町] 35, 36, 40, 43, 71, 119
고라이바바[高麗媼] 41, 88, 108, 115, 128
고려다완(高麗茶碗) 121
고려 도기 126
고려비(高麗碑) 37, 40
고려사(高麗祠) 57
고무기상 23
기시타케[岸岳] 62, 64, 66

ㄴ

나가사키 81
나가하야마 57, 66, 68, 71, 72, 120, 124
나고야[名護屋] 117, 119
나고야성[名護屋城] 23, 24, 29
나고야성박물관 25, 26
나카노[中野] 40, 48, 117, 119
나카노가마 43, 45, 50
나카노 도자기 119
나카자토[中里] 58, 102, 110, 124
나카자토 모에몬 55, 56, 66, 72, 120, 124
나카자토 쇼노스케[中里庄之助] 143, 145, 146, 147
나카자토 에이 66, 76, 115
난각지소 81, 82
네덜란드 136
네덜란드 상인 81
니무네묘진[ニムネ明神] 88, 128, 133, 134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찾아보기.indd 160 2010-12-31 오후 12:20:32

ㄷ

다나카[田中記太夫] 141, 142
다나카 요베에[田中與兵衛] 73
대관 79, 100, 131, 142
대마도[對州] 147
도요시마 세이지 142, 145, 148, 151, 154
도요시마 세이지[豊島政治] 100, 102
도요토미 히데요시 23, 25, 27, 28, 29, 64, 117, 119, 131
도자기의장전습소 102, 151
도자기전쟁 17, 64
도조신사(陶祖神社) 94, 109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 18

ㅁ

마쓰라사료박물관 28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鎭信] 17, 19, 23, 25, 27, 28, 35, 36, 40, 46, 89, 117, 119
만포잔상포[萬寶山商鋪] 145
미국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 102, 153
미국 시카고 박람회 101, 151
미츠다케[三ッ岳] 142, 145
미카와치 도자기 17, 18, 40, 41, 144

ㅂ

부산(釜山) 91
부산대명신[釜山大神社] 90
부산신사(釜山神社) 89, 91
부산신사기(釜山神社記) 90, 147
북 129

ㅅ

사세보시 용기 역사관 106
산노죠 48, 71, 72, 120, 122, 123, 124
산노죠[三之丞] 40, 121
산바라게[さんばらけ(げ)] 89
삼포(三浦) 89
세 사라야마 76, 79, 94, 124, 131, 156
세 사라야마체제 73
슈인죠 27, 28
스튜어트 딕 81, 85
시루떡 129
시이노미네 29, 30, 66, 71, 72
신공황후(神功皇后) 57, 60, 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찾아보기.indd 161 2010-12-31 오후 12:20:32

심수관(沈壽官) 17

ㅇ

야지베[彌治兵衛] 40, 125, 133, 138
야지우에몬[彌治右衛門] 25, 120
에이[瑩] 56, 57, 71, 88, 102, 110, 108, 128, 133
요시노모토 49, 71
웅천(熊川) 17, 19, 23, 40, 41, 46, 55, 76, 93, 107, 117, 119, 123, 134, 137, 138
웅천명신(熊川明神) 92, 134, 137
웅천 사기장 27, 29
웅천신사(熊川神社) 92, 93, 94, 136
웅천요(熊川窯) 107
웅천형 68
이마무라[今村] 79, 93, 102, 108, 125, 134, 137, 138, 139, 141, 147
이마무라 산노조[今村三之丞] 29, 31, 50, 73, 76, 125, 127
이마무라 야지베[今村彌治兵衛] 41, 75, 76, 77, 94, 122, 126, 127, 130, 131, 132, 135
이삼평(李參平) 17

ㅈ

장구 129
전무도인(前無陶人) 40
정한(征韓) 58, 60, 65
조선 도공 86
조선 사기장 17, 19, 35, 38, 41, 50, 57, 64
종차관(從次貫) 24, 25, 29, 30, 76, 108, 112, 115, 117, 119
죠엔[如猿] 41, 77, 94, 109, 122, 131, 132, 133, 135
죠엔다이묘진[如猿大明神] 94, 140, 141

ㅋ

커피 용기 132

ㅍ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 101,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찾아보기.indd 162 2010-12-31 오후 12:20:32

146, 152

ㅎ

후쿠모토[福本] 25, 112, 120, 143
후쿠모토 야지우에몬[福本彌次右衛門, 從次貫] 29, 31, 76, 127, 112
히라도[平戶] 17, 35, 40, 117
히라도 도자기 134, 144
히라도도자기거래소[平戶燒物産會所] 82, 100, 136, 143, 14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찾아보기.indd 163 2010-12-31 오후 12:20:3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임진본문 12월10일-02(4교)-찾아보기.indd 164 2010-12-31 오후 12:20:32